

<2008 년 한국문학탐방> 답사 후기 및 작품

<답사 후기>

20041139 박은서

퇴계 이황이 후학을 기르고자 말년에 지은 곳이 바로 이곳이며, 우리 조가 조사하게 된 곳이 도산서원 이었다. 이렇게 거창한 이름 아래 꾸며진 도산서원은 그 이름만큼이나 화려한 경치와 분위기를 많이 노출시키고 있었다. 어찌 보면 후에 사람들이 새롭게 꾸미고자 인위적으로 조금은 보기 좋게 했을지 몰라도 원래 뼈대가 뛰어나다보니 가는 곳 하나하나마다 내 눈을 어지럽힐 정도로 많은 자극을 주었다,

낙동강을 따라 오르다 보니 어느새 도산서원 입구에 다다르게 되었다. 처음 본 느낌은 이렇게 볼 것 많은 경치 속에 공부에만 집중하기에는 주변 환경이 너무 좋지 않느냐는 생각들이 정도로 화려함과 멋들로 넘쳐나고 있었다. 반대로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퇴계 이황이 많은 후학을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공부하다가 안 되면 강바람을 맞으면서 머리를 쉬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책을 너무 열심히 봐서 눈이 피로할 때는 경치를 감상하면서 눈의 피로를 덜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 인재들이 넘쳐나기에는 이곳만한 곳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든다.

여자가 옷을 입을 때 가릴 곳과 그러지 않은 곳을 아름답게 매치하며 보여주듯이 도산서원도 긴 나무들이 듬성듬성 남으로 해서 멀리서 봤을 적에 오히려 더 멋스러움을 보여주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내 마음의 와 닿기도 하였고 편안함을 주었는지도 모르겠다.

다음에 또 오게되겠지만 그때에도 이번만큼 이상의 또 다른 무언가가 나를 반겨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애뜻하게 떠오른다.

<답사 후기>

20051117 박은희

답사 첫날. 우리는 도산서원을 갔다. 그곳에서 퇴계 이황에 대한 발표를 하고 나는 친구들과 이곳저곳을 구경했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이 말년에 지은 곳으로, 그곳에서 후학을 양성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그곳은 학문에 취미를 붙일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원 이곳저곳에 피어있는 하얀 매화나무는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효과를 주고 있었다.

처음에 이곳의 이미지는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가지면서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곳. 그 정도였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천천히 그곳을 바라보면서 정적인 그곳의 분위기에 나는 점차 동화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이곳에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이 들었다.

도산서원의 특징은 분위기 외에도 나무들이라고 생각된다. 서원 곳곳에 배치된 나무는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곳에 꼭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곳에 나무가 없었다면 조금 어색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처럼 나무 한그루 한그루도 이곳을 만드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다 돼서 돌아오는 길. 나는 도산서원을 다시 돌아봤다. 그곳에는 한 마리의 학처럼 고고하지만, 결코 튀지 않고 자연과 동화되어 있는 서원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나는 또 한 번 서원을 가슴에 품게 되었다.

<답사 후기>

20051114 박경남

따뜻한 봄바람이 두 뺨을 스치는 봄 날, 탐방으로 퇴계 이황 선생의 숨결이 살아있는 도산서원으로 향했다. 난 발표를 할 때 염소 목소리를 내는 발표 울렁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탐방 발표에서 우연히 가위바위보에서 지게 되어서 도산 서원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되었다. 앞이 캄캄하고 숨이 턱 막혀서 버스에서 이동하는 내내 발표 걱정하느라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확 트인 도산서원의 경치에 잠시 넋이 빠졌었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선생께서 낙향 하신 후 제자들을 양성하신 곳이었다고 하는데, 도산서원 앞으로 펼쳐져있는 자연경관과 함께 이황 선생의 맑은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다. 맑은 공기와 시원한 바람, 굽이굽이 너리워진 나무들과 도산서원의 풍경들이 마치 액자에 걸려있는 그림같이 느껴졌다. 이런 곳에서 열심히 학문에 열중했을 퇴계 이황 선생과 제자들을 생각하니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생각과 좋은 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도산서원을 걸으면서 이황 선생께서도 이 땅을 밟으면서 학문을 정진하셨을 거란 생각을 하니, 어쩐지 경건한 마음이 들었다. 마음도 왠지 의자에 정자세로 앉은 것마냥, 꼴딱해지는 것이 이황 선생의 기운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다.

도산서원 밖에 큰 버드나무도 인상적이었는데 내가 두 팔을 뻗어 감싸 안아도 다 감싸지 못할 만큼의 커다란 나무였다. 이 커다란 나무 역시 이 도산서원과 함께 세월을 보내왔다고 생각하니 무척 신기했다. 몇 백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도 보았을 이 나무를 현재의 나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한 곳에 우직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큰 버드나무가 신령스럽게 느껴졌다.

도산서원 내부에는 예전의 선비들이 학문을 공부했을 한옥으로 만들어진 서원들이 질서정연하게 세워져있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한옥을 무척 좋아하는데 도산서원의 지붕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한옥들은 무척 정갈하고 아름다웠다. 한국적 미로 가득 채워진 도산서원을 바라보며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한국적 미가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꽃봉우리가 피어나는 초봄의 생명력 넘치는 도산서원을 둘러보며 마음까지도 확 트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퇴계 선생의 강직한 성품이 그대로 묻어나는 듯한 도산서원을 바라보며 나도 도산서원과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퇴계 이황 선생은 강직한 성품으로 벼슬을 사양하고 후진양성에 힘써 교육과 학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나도 이를 본받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답사 후기>

20081144 한혜림

지갑을 열면 천원 지폐에 항상 너그러운 미소를 머금고 계신 퇴계 이황. 고등학교 때까지

- 울곡 이이와 퇴계 이황이 헛갈렸을 정도로 깊이 생각해본 적 없었던 퇴계 이황을 내가 조사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조금 쑥스러웠다.

그의 작품은 고등학교 때 봤던 도산십이곡이 전부였고 잘 몰랐었다. 내가 맡은 생애를 조사하면서 이황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다. 생애 뿐이었지만 그래도 뿌듯한 기분이었다. 퇴계 이황과 관련된 곳은 답사 일정 중 가장 첫 번째였던 도산서원이었다. 도산서원은 사실 서원하면 가장 떠오르게 하는 곳이었다. 그저 사진으로 봤었고 건물도 크게 느껴졌던 것 같다.

내가 발표를 하고 구경한 도산서원은 생각보다 너무 아담했던 모습이었다.

그러나 ‘아! 이곳에서 인재를 많이 키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아담한 서원이 마음속에서는 크게 느껴졌다. 웬지 위대해 보이는 서원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지도 궁금했고 수업방식도 궁금해졌다.

앞에는 커다란 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역시 사람은 자연과 함께 살아야 공부가 잘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공부하는 곳에서 정면으로 쳐다보면 흐르는 강물이 보이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서원의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교수님께서 도산 서원의 문패를 써준 사람이 한석봉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신기하였다. 그것이 사실인지 확실치는 않다고 하셨지만 그냥 믿고 싶었던 마음이 무척이나 강했다. 서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이황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놓은 장소에 들어갔다. 이황이 쓰던 것들, 친필 등 이황과 관련된 유적이 있었다. 무언가 너무 신기했다.

비록 도산서원에서 있었던 시간은 짧았지만 자세히 못 들여다봐서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뿌듯한 기분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매우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답사 후기>

이육사 문학관을 다녀와서

20041184 한상우

이육사라는 시인에 대하여 저항시인이자 민족시인이라는 것과 <청포도> 같은 유명한 작품만 알고 있던 나로서는 이번 이육사문학관이 이육사라는 시인을 다시 알게 해 주었다.

이육사문학관을 방문하기 전, 사전 조사를 위해 홈페이지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이육사의 생애와 독립운동, 그리고 청포도 이외의 유명한 작품들 등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새로이 알 수 있었다.

이육사문학관에 처음 당도하였을 때, 육사시인의 등신상과 그의 작품인 <절정>이 새겨진 시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그 앞에서 발표하였는데 그 주변의 분수와 함께 동상이 어우러져 멋진 절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문학관 뒤로는 생가와 산책로 뒤로 청포도가 새겨진 시비가 있었는데 그곳도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문학관 안을 둘러보는 데에 시간이 다 지나버려서 가볼 수 없어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문학관 안에는 육사시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벽에 멋지게 걸려있었고 시를 낭독한 것을 들을 수 있는 장치도 되어있었다. 문학관 안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몇몇 시를 탁본을 뜰 수 있었는데 문학관에서만 할 수 있는 정말 소장가치 있는 것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 듯하였다.

가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주변 경치나 문학관내에 볼만한 것들이 매우 마음에 들었고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여러 준비를 하고 보러가서 그랬던 것인지는 몰라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듯하다.

<답사 후기>

그 맛에 답사가지

20051106 김선미

지나치게 비싸다. 입장료, 관람료, 간단한 기념품 하나 까지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나라에서도 운영자금을 받으며 관광객에게 따로 돈을 받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건물은 이미 완공되었으니 따로 돈을 들일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지루한 얼굴로 입구를 지킬 매표소 직원의 월급이라면 너무 많은 액수다.

식사는 모질다. 원겉 또는 그 지역 특산물 정도는 한번쯤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다.

경주 근처쪽이 음식들이 맛있는 편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각오는 했지만 원 짜도 너무 짰다. 식관에 배식줄 때는 고등학교 때 급식을 생각나게 했다. ‘쫄만 더 줘봐요’ ‘먹고 나서 더 먹어.’ 에라이 치사하다. 굶고말지!.....라고 호기롭게 굶기에는 일정이 너무 고달프다. 차안에서 자다가 주변 몇바퀴 돌다보면 배가 꺼져있다. 번번히 반찬투정하다가도 이내 짭한 공기 비워버린다.

볼게 너무 없다. 작가들이 남기고 간 만년필, 작가들이 보던 오래된 책, 그들의 가족관계가 적인 연보, 보고 있다보면 그 작가가 그 작가 같고 방금 본게 누구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새로 지은 말끔한 건물에 작가 사진 보려고 들어가려니 열의가 안 생긴다.

의미 불명, 가파른 절벽 산을 타면서 생각한다. ‘이 정도는 해줘야 답사 제대로 왔다고 해 주는 건가.’ 숨은 차오고 평소 쓰지 않던 근육들이 비명을 지른다. 여기서 포기하자니 돌아 가는 길도 막막하다. 소리는 점차 멀어지고 귀는 먹먹해진다. 체력관리 좀 해둘걸. 지금이 지나면 까먹을 생각도 막연히 든다. 고지에 도착해서 보니 경치는 절경이다. 냉수도 한잔 마시고 찬바람 좀 쐬고 나니 이제야 머리가 돌아간다. 그리고 웃고 놀다 내려가며 다들 한 마디 한다.

“여기는 왜 올라왔대?”

배고프고 피곤하다. 마지막 답사 일정. 초등학생들의 장기자랑으로 떠들썩한 이 밤, 나이만 먹은 동기들끼리 모여서 와구 떠들어댄다. 근처에서 조달한 먹거리와 손벌려 얻어온 소

주 몇병으로 그 밤이 지나도록 주저리 말도 많다.

‘애가 이런 면도 있었네?’

새삼스럽게 옆자리 그 애 얼굴을 바라본다. 몰랐던 숨을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며 씨익 웃어 보인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고개를 갸웃한다.

“분명 뭘 했는데 그게 뭐더라?”

“집에가서 청소랑 빨래랑 ...아니 것보다 몸살 걸릴 것 같아. 일단 자야겠어.”

한마디씩 하다가 말이 씨가 됐다고 감기몸살로 앓아누워버렸다.

답사 안간 친구에게 신나게 수다를 떠는데 친구가 말한다.

“결국엔 고생만 했다는 거네? 답사 안가길 잘했다.”

나는 손을 휘저으며 대답해준다.

“무슨 소리! 그 맛에 답사를 가지!”

<답사 후기>

이육사문학관을 다녀와서

20051121 변민영

이육사문학과에 가보기 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거였다.

이육사는 1943년 7월에 모친과 형의 소상(小祥)에 참여하기 위해 귀국했다. 고향 마을인 원촌과 안동풍산에서 하루 묵고 상경한 뒤, 늦가을에 동대문 형사대와 헌병대에 검거된다. 부인 안일양은 7월에 동대문 경찰서에서 마지막으로 육사를 보았다고 전한다. 20여 일 동안 구금생활을 치르다가 딸 옥비에게 전에 없는 심각한 표정으로 딸의 볼을 얼굴에 대고, 손을 꼭 쥐고는 ‘아빠 갔다 오마’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글은 문학관에서도 보았는데, 홈페이지에 봤을 때보다 더 가슴이 뭉클하고 아팠었다. 아마 그 딸이 1살이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사에서 읽은 기억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다.

이육사를 평가할 때 모두 그에게 저항시인이며, 민족주의 시인이라고 말만 하며, 그의 이런 가슴 아픈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아 어딘가 허전했다.

그에게 있어 문학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의 가족이 있기에 고통 속에서 버틸 수 있지 않았을 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항상 어리광만 부리는 내가 더 부끄러웠다.

<답사 후기>

한국문화탐방을 다녀와서...

20081101 강주희

한국문화탐방에서 내가 속했던 조는 이육사 시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번 탐방을 계기로 이육사 시인에 대한 조사를 해봄으로서 이육사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탐방을 하면서 이육사 문학관도 다녀왔는데 시인의 작품들과 관련물품들을 보면서 이육사에 대하여 더 알게 된 것 같고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다. 국문학도로서 이렇게 여러 문학작품들과 작가들에 대하여 알아간다는 것은 큰 기쁨이다.

이번 우리 조가 이육사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대표시로 ‘청포도’와 ‘절정’을 준비 하였다. 두 작품 모두 고등학교 문학시간에 익히 배웠었던 작품인지라 너무 반가웠다. 그런데 이 작품들을 대학교에 들어와서 다시 접하게 되니 느낌이 새로웠다. 나는 두 작품 중에서도 ‘절정’에 더욱 관심이 갔다. 이육사는 저항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에선 그러한 면모를 더욱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시에선 극한 상황에서의 초극의지를 보이고 있다. 극한 상황에 있어서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않고 강하게 맞섬으로서 정신적 초월과 극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이 시에서는 이육사의 평가 중 하나인 남성적이고 대륙적인 입김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한껏 느껴볼 수 있어 좋았다. ‘절정’의 시 내용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라는 구절인데 겨울과 강철의 차갑고도 단단함이란 복합적 심상이 무지개와 결합을 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승화시키고 있다. ‘겨울’이라는 이미지는 어두운 일제 치하의 현실을 보이고 있다. ‘강철’은 광물성 이미지를 통하여 저항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무지개’는 역설적 이미지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암시하고 있다. 일제 치하의 극한 상황 속에서 받는 고통을 황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다.

나도 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육사의 시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나는 시를 써도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시어를 잘 구사해 내지 못한다. 또 비유적 표현보다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나의 시는 읽기는 좋으나 사건이 평이하게 전개되다 보니 시어를 풀이해보며 읽거나 하는 시의 깊은 맛을 느끼기가 힘들다.

이처럼 이번 답사를 통해서 이래저래 배운 것이 참 많이 있었다. 특히 국문학과 학생으로서 알고 있었던 작품이나 새로이 알게 되는 작품 등등 많은 작품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여러 작가들에 대한 다른 조의 조사내용도 들어보고, 생가를 방문해보는 등의 기회들이 주어져서 더없이 즐거웠다. 또 버스로 이동을 하면서나 숙소에서 술자리를 하면서 동기들과 선배님들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서 행복했다. 많은 이야기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서로 얼굴도 익히고,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음 했다. 장거리 이동으로 피곤하기도 했지만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어 좋았다.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들이어서 더욱 뜻 깊은 탐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답사 후기>

“일석이조 한국문학탐방”

20081105 권서희

아침 일찍 서둘러 연암관 앞에 모인 국문과는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천을 금세 빠져나와 쪽 뺨은 고속도로 위를 신나게 달려 안동에 도착했다. 안동 권씨인 나

에게 안동은 무언가 꿈틀거리게 하는 곳이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느낌…….

춘천보다 먼저 찾아온 남쪽의 봄은 한창이었다. 출발 때 입었던 점퍼는 자연스럽게 벗게 되었다.

벽찬 가슴을 달래고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높은 문지방을 조심스럽게 넘으며 이곳저곳 나무 냄새, 흙냄새, 바람 냄새를 맡으며 오랜만에 여유로움을 갖고 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을 탐방하였다.

그 다음은 우리조가 조사한 이육사 문학관을 향해 갔다.

답사 준비를 하면서 우리 2 조는 일제 강점기에 끝까지 민족의 양심을 지키며 죽음으로써 일제에 항거한 시인 이육사에 대해 조사하여서 그런지 이육사 문학관 탐방이 가장 기대되었다.

기대를 안고 시작한 이육사 문학관 탐방에서 기억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려는 취지는 있으셨지만 이야기가 조금 엇나가신 관장님과 잘못된 판화부분을 친절하게 수정해주시는 할아버지, 짧은 그의 인생을 길게 늘어놓은 연보, 요즘 시대와 발 맞춰 좀 더 쉽고 가깝게 시에 다가갈 수 있게 마련해 놓은 사색의 창 등이 있다.

조국의 광복에 대한 염원과 그 염원을 담은 시에서 나는 그 당시의 모든 국민들의 진심 담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육사 문학관 탐방에서의 진심다음 마음과 염원을 안고 청량사 등반 후 첫째 날을 마감하였다.

둘째 날, 해가 밝았다. 경주로 이동하기로 한 날이어서 그런지 한껏 기분이 들떠있었다. 경주, 초등학교 6학년 수학여행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신라의 수도.

경주를 가기 전 이현보, 조지훈의 생가를 방문하고 돌이 많아 등산이 힘들다는 소문이 있던 주왕산을 향했다. 주왕산을 오르기 전 허기진 배를 봄을 가득 담은 비빔밥과 도토리묵으로 채우고는 등산을 시작하였다. 떠도는 소문과 달리 주왕산 등반은 수월했고, 폭포는 가득 찬 달이 떴을 때 선녀들이 와서 먹을 감을 것만 같았다.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한 폭포였다. 산 입구에서 사과를 파시는 아주머니들께서 아낌없이 맛보라고 하셨던 사과 맛도 잊을 수가 없다.

등산 후, 우릴 기다리고 있을 경주로 향했다. 수학여행을 올 첩이라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니 설레었다. 경주의 벚꽃 길은 여의도 부럽지 않았고 숙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었다.

그렇게 신라의 달밤은 가고 셋째 날, 초등학생들로 가득 찬 불국사를 들린 뒤 김동리와 박목월 문학관을 갔다. 얼룩송아지의 지은이가 박목월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후로 견학한 국립경주박물관에서의 성덕대왕신종에 관한 전설과 사실 여부성, 신라시대의 귀족들의 생활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안압지.

이렇게 3일은 마치 3 교시마냥 빨리 지나갔고,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내일 남은 일정만을 남기고 모두가 모여 지금까지의 답사평가와 회식을 하였다. 마지막 회식장소에서 보이는 커다란 등대와 풍력발전.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큰 등대와 풍력발전소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내가 서있는 곳 까지 불어오는 짙 것 같은 바다바람을 맞으며 밤길을 비춰주는 등대를 보며 이제야 진짜 원거리 여행의 시작점 위에 서있는 내 자신에 대해 잠시 동안 생각해보기도 했다. 그렇게 마지막 밤은 깊어갔다.

마지막 날, 아침 일찍 보기로 계획했던 호미곶 일출은 보지 못했다. 늦게까지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그만 숙소에서 해를 보고 잠들었기 때문이다.

아침밥을 먹으러 가야 된다는 소리에 일어나 고양이세수를 하고서는 따라나섰다. 든든하게

아침을 먹고서는 바다냄새가 좀 더 진하게 나는 호미곶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동기들 선배님들 교수님들 모두가 동그렇게 모여 12 조가 준비한 「연오랑 세오녀」 발표를 기다렸다. 12 조는 앞에 11 개의 조와는 조금 다른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박수 소리와 동시에 발표는 시작되었고, 12 조는 연오와 세오녀의 신화를 연기하였다. 사실 12 조의 발표를 듣기 전까지 연오랑 세오녀에 대해 나는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12 조의 발표로 쉽게 알 수 있었다. 12 조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답사일정은 한 곳 이 남았고, 그 한 곳은 구룡포 해수욕장이었다. 매년 여름 뉴스에서 보여지는 넓은 해수욕장과 넓은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장 기대가 되었다.

구룡포 해수욕장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양말을 벗고 뛰어 나갈 준비를 하고는 도착하자마자 내려 바다로 갔다. 조금은 센 파도에 입고 있던 옷이 젖었지만, 그래도 마냥 신이 나고 좋았다. 바다는 매번 볼 때마다 날 즐겁게 해준다. 반가웠던 바다와도 잠시 우리는 학교로 가기위해 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렇게 3 박 4 일간의 길고도 짧은 답사가 끝났고, 나에게 이번 답사가 전해 준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그 속에 담긴 문학과들과 작품들이다. 좋은 곳에서 좋은 생각만하고 좋은 것들을 보며 자라온 그 들에게서 나온 글과 그 장소를 담아 쓴 글들을 보며 나 또한 앞으로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다. 지금은 내가 펜을 잡고 또 타자기위에 손을 얹고 무엇을 쓴다는 것이 낯설고 미숙하지만, 언젠가 노력을 한다면 이 분들처럼 남들의 마음에 흡수될 수 있는 글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하는 큰 욕심도 부러보게 되었다. 여행에서 배우는 것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중요한 것 같다. 원거리 여행의 시작점에 서있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답사 후기>

20081113 김희찬

이육사 문학관에 갔을 때 내가 우리조 대표로 발표를 했었다.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러워서 문학관을 살펴볼 여유가 없었는데 발표 후에 견학하면서 보니 육사의 친필 원고 같은 것도 있고 건물 외관도 운치 있게 잘 지어놓아서 좋았다. 비록 육사의 친필 원고 같은 자료들은 별로 수가 많진 않았지만 시비와 동상 같은 조형물들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서 괜찮았다. 그리고 또한 이육사에 대해서 발표준비를 하면서 이육사에 시에 대해 고등학교 때 입시위주로 배운 것 말고도 저항시가 아닌 순수한 시 자체만으로 한 해석들을 알게 되었는데 색다른 기분이었다. 오히려 불국사 같은 진부한곳 보다는 이육사 문학관이 더 인상 깊었다.

<답사 후기>

20081103 박 현 진

4월 2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되었다. 7시 30분은 원래 일어나는 시간이지만 이 날만큼은 7시 30분까지 모여야 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7시 30분에 연암관에 모여서 1,2호차를 나눠 국문과의 3박 4일 탐방은 시작되었다. 너무 일찍 일어난 탓에 차에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리고 잠깐 꿈나라에 갔다 오니 하회마을에 도착해 있었다. 내가 중학생 일 때 가족들과 친척들이 함께 간 적이 있었다. 그때 사람들도 많고 했는데 우리가 갔을 땐 우리가 마치 주인인 된 듯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저변에 가족과 갔을 때는 널뛰기도 하고 그네도 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고 보기만 해서 아쉬웠다.

그리고 일정보다 늦게 도착해서 바로 병산서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구경을 하고 국학문화회관으로 향했다. 생각보다 건물이 좋아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도산서원을 다녀온 뒤 퇴계이황을 발표하러 향했다. 1조의 발표가 끝난 뒤 사진도 많이 찍었다. 그리고 바로 이육사문학관으로 갔다. 2조의 발표가 끝난 뒤 예쁜 분수도 보고 유명한 시 청포도와 광야도 감상했다. 이육사의 문학세계도 살펴 볼 수 있었고, 도장도 찍고 놀았다. 그리고 나서 숙소로 와서 약간의 술과 탐방의 첫날밤을 즐겼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아왔다. 3조인 우리조의 발표가 있었고, 그 발표가 끝난 후 물가에 가서 장난도 치고 놀았다. 그리고 그 다음 주실마을도 가고 맛있는 점심도 먹었다. 비빔밥이 나의 입맛을 돋우었다. 그리고 주왕산 가서 맑은 물도 보고 예쁜 사진도 많이 찍었다. 생각보다 힘들지 많아서 다행이었다. 바닥도 잘 닦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신라의 숨결이 묻어 있는 경주로 향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일정보다 느리게 되어서 시간이 빠듯했었다. 그리고 셋째날과 넷째날 있을 일출을 걱정하며 잠이 들었다. 생각으로는 5분도 채 못간 것 같지만 벌써 일출 볼 시간이 되었다. 억지로 일어나서 해를 봤지만 일어난 보람이 있었다. 너무 어여쁘게 빨갛고 동그란 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국사에 가서 경주에 살아있는 역사를 보고왔다.

그리고 김동리, 박목월 문학관에 가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보다 깊은 집중력으로 관찰했다. 그리고 경주박물관에 가서 에밀레종도 보고 눈이 즐거웠다. 그렇게 3일째 밤도 깊어갔다. 그리고 드디어 탐방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호랑이 모양의 호랑이 꼬리에 위치한 호미곶에 갔다. 호미곶에 가보니 2002년에 히트 친 드라마 '네 멋대로 해라'가 생각나기도 했다. 그리고 노란 유채꽃 밭에서 단체사진도 찍고, 마지막 조가 발표한 연오랑 세오녀 연극도 보고, 구룡포 해수욕장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즐거운 탐방을 마무리 지었다.

<답사 후기>

20031125 배춘택

새벽 6시에 일어날 수 없다며 친구들과 밤을 새며 기다린 한국문학탐방. 그만큼 탐방에 대한 기대는 부풀어 있었다. 아이들과 떠들면서 느끼는 새벽의 공기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상쾌함을 맛볼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달려서 하회마을을 지나 처음 도착한 답사지는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이었다. 어

렸을 때부터 말로만 듣던 곳이었지 실제로 와본 적은 없는, 지폐에서만 보던 그런 꿈같은 곳이었다. 마치 미로 같은 도산서원 안을 이곳저곳 둘러 다니다보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퇴계선생님의 마음을 알 것만 같았다.

이육사 문학관을 거쳐 다음으로 간 곳은 청량사였다. 생각보다 꽤나 가파른 산을 계속 오르는데 과연 이 깊은 산중에 절이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산을 올라가면서 보이는 자연의 경관들은 정말 장관이라고 할 만큼 보기 좋았다. 약 30 분쯤 올랐을까. 청량사가 보였다. 깊은 산중에 연등이 가득 매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높은 산속에, 이렇게 큰 절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이틀째의 첫 답사지는 농암종택이었다. 농암 이현보가 태어나고 성장한 집으로 낙동강이 바로 보이는 곳 약 2000 여 평의 공간에 집을 지어놓았다. 농암종택과 앞에 펼쳐진 낙동강을 보자마자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낙동강 반대편으로 보이는 절벽과 푸른 하늘,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이 왜 농암을 자연에 생활하며 풍류를 즐기게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정말 이곳에서 생활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잊어버리고 흘러가는 강물이나 보면서 세월을 보낼 것만 같았다. 종암종택은 넓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았기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새벽에 멋진 일출을 보고, 불국사로 향하게 되었다. 경주하면 불국사라고 생각하는 탓인지 평일에도 엄청난 인파들로 북적였다. 유명한 석가탑도 보고 다보탑도 보았지만 역시 사람이 워낙 많아 자세히 구경하지 못하고 눈으로만 훑고 나오는 것이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다음날 포항에서 호미곶을 본 다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3 박 4 일이라면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답사지를 자세히 둘러보기에는 길지도 않은 시간이었다. 모든 장소가 너무 멋있고 조금만 더 그곳을 보았으면 싶었다. 답사를 출발하기 전에는 많은 불안도 함께였지만, 답사를 하면서 옛 선조들의 장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불안은 사라지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을 내 마음속에 똑똑히 알게 해준 그런 탐방이었다.

<답사 후기>

답사를 다녀오면서

20081125 우상진

4 월 2 일부터 시작된 3 박 4 일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답사는 아침 일찍 학교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부터 시작 되었다. 첫째 날, 하회 마을에서 초가집과 기와집이 있고 직접 그곳에서 사람들이 산다고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웠다. 그리고 한적해 보이는 안동에는 많은 학생들이 관광을 하러 왔었다. 뭔가 특별히 아름답거나 웅장하다는 그런 점은 없지만 검소해 보이고 자연과 잘 어울린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았다.

둘째 날에는 우리조가 발표를 하는 날이었다. 발표는 1 학년인 내가 맡게 되었는데 발표를 하기 전 날에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연습도 하였지만 막상 실제로 발표를 하려고 하니 굉장히 떨렸다. 사람들이 모두 둘러앉아 처음에 말을 꺼내기가 무척 힘이 들었는데 조금 말을 하고 나니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면서 겨우 발표를 마치게 되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주왕산

을 오르게 되었다. 어제 갔던 청량사라는 절도 산 속에 있기 때문에 등반을 하다시피 하여서 조금 피곤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어제는 산세가 매우 험하였지만 등반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산을 오를 때 땀을 흘리고 나서 거의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절에서 땀을 말리고 있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주왕산의 경우는 산속을 등반을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산보라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할 정도로 경사가 낮았지만 걸어 가는 거리가 꽤나 있어서 힘이 들었던 것 같다. 한창 꽃이 필 때여서 그런지 여기저기 사람들도 많이 보였고 산바람이 무척이나 시원 했다.

세 번째 날에는 아침일찍 일어나서 석불암에서 일출을 보게 되었는데 구름 낀 날씨 때문에 일찍 일어난 보람도 없이 해를 잘 보지 못해서 아쉬움과 함께 허탈감도 일었다. 숙소로 다시 돌아오니 졸음이 밀어 닥쳐서 다시 잤다. 이 날에는 국립경주 박물관에 가게 되었는데 건물이 크고 넓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다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척이나 아쉬웠다. 박물관 밖에는 에밀레 종이라고 불리우는 성덕대왕 신종이 있었다. 교수님께서 에밀레종에 내려져 오는 전설인 아이가 들어있다는 전설을 종의 성분 검사 결과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을 때 좀 놀라면서도 그 시대에 그렇게 힘들었을까 생각 되었다.

마지막 날에도 일출을 보러 나갔는데 바닷가 앞이어서 그런지 날씨는 어떤지 몰라도 안개가 끼는 바람에 또 해가 뜨는 순간을 못 봐서 좀 화가 났다. 아침을 먹고 나서 마지막으로 호미곶에 가서 마지막조의 발표를 들으니 출발 할 때는 굉장히 길다고 느껴지던 답사가 굉장히 짧게 느껴졌다. 춘천으로 올라가는 버스에 몸을 실으면서 내년 답사도 무척 기대가 된다고 느꼈다.

<답사 후기>

한국 문학 탐방 체험 후 느낀 것

20081133 임명철

3박 4일 길지만 짧은 탐방 기간이다. 대학교에서 처음 가보는 한국 문학 탐방을 가니 마음도 들뜨고 신이 났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곳을 둘러보았다. 하회마을에서 시작하여 호미곶 광장까지 많은 시인들과 작가들 그리고 절, 종, 문학에 관련된 많은 곳을 가보았다. 물론 버스도 많이 탔다. 잘 짜여진 일정대로 차곡차곡 하나씩 보면서 느낀 점도 다 달랐는데 두 번째 날 농암 종택에 갔을 때는 정말 멋있고 주변 경관이 정말로 확 트이고 산과 개울이 흐르는 화려하고 맑은 곳이었다. 이곳에서 살았던 이현보님은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또 책에서 본 것들을 국립 경주 박물관에서 가서 실제로 보니 더 근사하고 크기를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우리가 문학 탐방하면서 12 조 모두 자신들이 조사한 곳에 가서 조사한 정보를 발표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곳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고 관련된 인물들이나 설화들을 알 수 있어 더 재미있게 관찰하였다. 다음 학년에도 갈 수 있다면 한국문학 탐방 강의를 신청하여야겠다.

<답사 후기>

답사를 다녀와서...

20081122 신이슬

대학생이 되고 국어국문학과생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답사라는 것을 간다고 했을 때 처음엔 두려움이 앞섰다.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간다는 개념과는 달리 무언가를 더 많이 배우고 와야겠다는 생각과 내가 본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답사를 가기 전 선배님들과 생각을 모아 답사할 지역을 조사하고 그리고 다른 조가 조사한 것을 보면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답사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답사를 시작하면서 다른 조가 하는 발표와 그 지역을 살살히 훑어보면서 내가 읽었던 책의 배경과 작가들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 작품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우리 조가 조지훈 선생님의 대해 발표할 때에는 지금 모인 사람들 중에 우리 조가 가장 조지훈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아 솔직히 뿌듯해지기도 했다.

그리 길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3박 4일을 보내면서, 여러 작품들을 더 많이 알게 된 것은 물론 내가 국어국문학과 학생이라는 것도 확실히 느끼게 해준 시간이었다. 더욱이 평소에는 가깝게 지내기는 힘든 고학번 선배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여러 가지 조언들과 충고들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뜻 깊은 시간이었다. 4월 초 벚꽃이 만발한 안동, 경주, 포항을 경유해 일정을 채우는 동안 아직 서먹하기만한 동기들과 밤새도록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도 꽤 즐거운 일이었다.

한 번도 일출을 본적이 없는 나에게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일출배경이 멋져 힘들다는 것을 까맣게 잊을 정도였다. 중고등학교 때 소풍이나 수학여행으로 한번쯤 와 보았던 곳이지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임해서인지 더욱 뜻 깊고 재밌는 여행이었다. 나의 후배가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답사를 갈 기회가 생긴다면, 그 후배들에게 선배의 입장으로 조언해 줄 날을 기다리며 3박 4일간의 시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다.

<답사 후기>

탐방

20081108 김선미

나는 조지훈의 승무에 대해서 조사를 맡았다. 조지훈의 승무는 고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서 집에 있는 학교 교과서를 보고 조사를 했다 선생님이 말씀해주시던 것을 필기를 잘해서인지 이 정도면 무리 없이 조사를 맡을 거라고 생각했다.

말을 이으면서 어색한 문장에 대해 꽤나 머리 아팠지만, 쉬운 과제였다. 고등학교 때 분명 시험범위였음에도 기억에 나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는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서 억지로 머리에 넣지 않아도 되는 거였기 때문에 부담 없이 했지만, 머리에 많이 남았다.

참 아름다운 시였다. 밤에 이 시에 대해 조사하면서 승무의 동양적 미를 머릿 속에 떠올리며, 삼경이 지금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모 핸드폰 광고에까지 이 시는 패러디 되었는데 쉽고 아름답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아름다운 시를 조사하면서 동양적 미와 불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조지훈 시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직접 찾아가면서 조지훈 시인의 얼굴도 사진으로 보고 여러 시에 대해서 생각하고 승무에 대해 깊고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과제였다.

제일 기억에 남는 글귀는 번뇌는 별빛이라는 글귀인데 나는 비록 종교가 기독교가 아님에도 웬지 이 글귀가 기억에 많이 남았다. 아름다운 비유와 전아한 시어의 승무를 조사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였다.

<답사 후기>

주실마을

20051143 홍복정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주실마을.

차로 산자락을 따라 굽이굽이 들어가다 보면 한옥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이 보인다. 그곳이 바로 조지훈의 생가인 호은종택이 있는 주실마을이다. 주실마을 앞으로는 넓은 논밭이 펼쳐있고 뒤로는 일월산이 팔을 벌려 마을을 품고 있다. 마을은 입구에서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로 작았지만 결코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다. 아마도 일월산이 딱 버티고 서있기 때문일 것이다.

주실마을에 발을 들어놓았을 때 처음 나를 맞이한 이는 매서운 바람이었다. 바람은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주기 싫은 지 연신 내 몸을 밀어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직 마을은 손님을 맞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마을 입구에는 공사의 흔적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곳곳이 나를 막아서는 바람을 뚫고 걸어 들어갔다.

주실마을이 시인 조지훈을 기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마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우선 작지만 마을 한 편에는 조지훈의 문학관이 세워져 있었고 산책로를 따라 그의 시를 새긴 비석들이 줄지어 있었다. 길을 따라 차례로 돌아보다 보면 마치 마을 전체가 조지훈의 문학관처럼 느껴졌다.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마을만의 힘으로 이 정도를 이룩해 놓은 것이라 하니 대단했다.

조지훈의 생가인 호은종택은 생각보다 작았다. 종가집이라는 말에 사실 방 수십 칸이 있는 한옥을 상상했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외형이 소박했다. 한옥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유리문이 달려 있어 어색하면서도 묘한 어울림을 만들어 냈다. 아쉬운 점은 호은종택에는 아무도 살고 있는 않는다는 것이다. 원래 집 주인은 어디로 떠나는지 집은 낡아 위엄보다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나는 쓸쓸함을 그 곳에 남겨두고 뒤를 돌아 나왔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 마을을 빠져 나왔다. 마을에 들어설 때만해도 웅장하게 보이던 일월산이 팬스레 외로워 보였다. 호은종택은 남겨두었던 쓸쓸함이 나의 뒤에 묻어있었다 보다.

<답사 후기>

4 월. 경북을
다녀오다

20051108 김은희

햇볕도 좋고 바람도 좋은 4 월. 한림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2 학년 때 한 번 다녀왔었던 탐방을 다시 가게 되었다. 마지막 탐방이라 그런지 왠지 기대감이 컸다.

이번 탐방 지역은 경북지역. 친척도 없고 문화지역을 잘 가볼 기회가 없는 나는 처음으로 경북 땅을 밟았다. 3 박 4 일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다닌 것 같다.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장소를 꼽으라면 안동하회마을과 청량사. 안동하회마을은 늘 책에서만 봐왔던 곳이었는데 실제로 가보게 되니 마을 전체가 정말 멋진 곳이란 것을 알았다. 병산서원에 있는 만대루라는 곳에 올라 병풍처럼 둘러있는 산을 보니 시 한 수 절로 나올듯한 기분이 들었다. 바람도 시원하고 만대루 앞에 흐르는 강물도, 미끄러질 듯한 산도 사람이 절대적으로 침범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다. 정말 그런 곳에 앉아 글을 쓰고 시를 쓰면 아무런 근심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량사. 오후가 되어 산 중턱으로 올라가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산행을 해야 했던 곳. 분명 등산로라고 했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길은 가팔라졌다. 거기다가 하늘에서는 뚝뚝하게 비까지 내려주니 탐방일정 가운데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미웠다. 그렇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때쯤 연분홍의 연등들이 무수하게 걸려 있는 절들이 눈에 들어왔다. 깊은 산꼭대기에 그렇게 큰 절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나였기에 엄청 많은 연등에 놀라고 절 크기에 한 번 더 놀랐다.

또한 내가 믿고 있는 종교와는 정 반대인 곳이라 약간 거부감은 들었지만, 절 앞에서 내려다보는 그 경치는 정말 놀라웠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올라오는 동안 흘렸던 땀을 다 마르게 해주고 한기까지 들게 한 그 곳에는 좋은 경치도 있었지만, 아주 훌륭한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소나무가 뿜내는 그 자태에 넋 놓고 보고 있었다.

우리가 탐방을 통해 많은 작가들이 살아왔던 곳을 지나왔는데 위에 말한 곳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곳도 있었다. 그때도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이 드는 것이지만, 정말 산천이 푸르고 마음이 맑아지는 곳에서 우리가 배웠던 작가들이 살아왔다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그대로가 한 편의 시가 되고 한 편의 글이 되었을 것이다.

<답사 후기>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탐방

20021149 윤수진

5 년 전 강원도민속조사 이후 처음 가보는 탐방. 그 때는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린 막내였었는데, 이번에는 막내가 아닌 조장이 되어버렸다.

안동과 경주, 그리고 포항. 개인적으로 여러 번 다녀온 곳이었지만, 문학관이나 생가 등은 방문한 적이 없었기에 새로웠다. 3 박 4 일이라는 일정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곳을 다녔고, 가는 곳마다 새로운 곳에 대한 흥미와 평소에는 느끼지 못한 마음의 편

안함을 느꼈다.

병산서원에서 바라본 수려한 경관과 한적함이, 매일 회색건물 사이에서 어지럽게 번쩍이는 간판을 보는 나에게 휴식을 주는 듯하였다. 유유히 서원 앞을 흐르는 강물과 그 뒤로 병풍처럼 펼쳐진 산. 무엇을 하다 힘들어 지칠 때, 그 광경을 보면 모든 것을 잊을 듯싶다.

청량사나 주왕산은 몸이 불편하여 가지 못 하였다. 그 곳을 다녀온 사람들이 “힘들었지만 좋았다”는 말을 듣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혼자서라도 다시 한 번 가보리라’ 라고 다짐하였다. 또 주왕의 혼을 위안하기 위해 지은 주왕암이란 곳도 가보고 싶다. 주왕산이 국립공원이었던 것도 이번 탐방으로 알게 되었다.

이번 탐방을 통해 여러 작가의 문학관이나 생가, 여러 설화가 무대였던 곳을 돌아보았다. 모두 하나같이 빼어난 경치를 자랑했고, 가는 곳 마다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작가들도 나와 같은 편안함을 느꼈을까 궁금해진다. 짧은 생각으로는 그들 역시 빼어난 경치를 보며 마음의 편안함에서 좋은 작품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탐방을 통해 많은 후배들을 만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여러모로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짧아서 아쉽다고 느껴질 정도로 나에게 뜻 깊은 탐방이 되었다.

<답사 후기>

옛 사람들을 따라서

20061108 김은정

신입생 때부터 매년 그랬듯 탐방가기전날은 매우 분주하다. 통학생인 나에게는 탐방 전날부터 집에서 나와 춘천에서 하룻밤을 자야 한다. 본래 3박 4일의 여정은 나에게는 4박 5일인 셈이다. 막차를 타고 춘천으로 가는 길. 3년째 가게 되는 2008년 탐방도 신입생 때 처음으로 갔던 탐방처럼 또 다시 설레기만 했다.

안동은 중·고등학교 때 여행 왔을 때와 변함없이 고풍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낙동강 줄기로 펼쳐진 절벽들과 빠르게 변하는 우리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옛 모습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는 멋진 가옥들이 다시 한번 날 자극했다. 몇 년 사이에 많이도 빠르게 변해버린 날 자책하게 만들었다. 옛 사람들이 밟았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또는 양반처럼 점잖게 안동의 길을 걸었다. 미로처럼 얽혀있는 집 사이의 골목길을 걷노라면 양반의 규수가 된 듯 나도 모르게 몸가짐이 내 원래 모습보다 더 얹전하게 변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 틈에서 나와 조용히 바람 가는 길목을 걷는 것은 마치 바람에 이끌려 다니는 기분을 들게 했다. 바람은 서낭당에서 멈췄다. 약간 무서운 느낌까지 들게 하는 몇 백 년 동안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나무의 신비로움은 저절로 경건해지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주위에 작은 돌을 들어 손에 짊어 다음 기도를 했다. 그런 후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담겨있는 돌무더기에 내 작은 소원도 함께 얹었다.

도산서원은 정말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곳이었다. 잔잔히 불어오는 바람 조용한 언덕과 푸르게 푸른 소나무. 앞에 보이는 풍경과 물줄기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에서 이황선생께 배웠던 제자들이 있었던 그곳이었다. 그 시대에 이런 곳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부러워질 정도의 멋진 곳이었다. 환하게 핀 개나리와 옛 사람들의 고민과 한숨을 다 받아낸 오래된 고

목들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넘치는 학구열과 나라에 대한 걱정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이황선생의 모습처럼 기품 있었다.

농암 이현보 선생의 종택에서 보는 병풍처럼 펼쳐진 절벽들은 아직까지도 눈에 선하다. 집 앞에 흐르는 강물 그리고 그 뒤 절벽 풍경의 경치를 보고 있자니 농암 이현보 선생이 지은 시조들이 절대 거짓이 아닌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저절로 시조자락이 나올만한 곳이었다. 오랜 역사가 있는 중부로 시집을 가고 싶다던 선배언니는 이현보 선생의 종택으로 시집오고 싶다고 말했었다. 그곳은 종가 덕 시집살이를 아무렇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멋진 곳이었던 것이 분명했다.

이번 탐방은 조선 속에서 살고 있던 옛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도 생각하게 했었다. 그들의 숨결이 아직도 살아있고 열정이 아직도 고스란히 간직된 그곳들이 생각초자 어린 내 모습에 대해 꾸지람을 하는 것 같았다. 멋진 경치들보다 그 경치들을 마음에 품고 많은 생각을 했던 그들의 모습이 어느덧 내 마음속에 확연히 남아있다.

<답사 후기>

20081112 김춘기

경상도 지역에서 버스를 통해 다니던 답사. 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경주에 왔던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중학교 때 선생님들에게 끌려다니던, 어쩔수 없이 다니던 것과 달리 대학에서의 답사는 자신이 자발적으로 보고싶은 곳을 돌아다니며 봤기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그 때와는 다르게 답사 자체에 흥미가 있어서였는지 그 장소들에 더 관심이 갔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에밀레종이라 불리는 성덕대왕신종이다. 솔직히 다른 곳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던 터라 그저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며 그러려니 하며 답사를 다녔다. 하지만 성덕대왕신종은 어릴적 책에서 읽기도 했고, 워낙 유명하다보니 그나마 좀 아는 것들이 있었기에 더 관심이 갔었다. 그리고 발표가 끝나고 나자 처음 했던 생각처럼 다른 곳들과는 달리 설명이 더 많이 귀에 들어왔다.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을수도 있고 여러가지를 알수있었던 중,고등학교 때와 다른 답사였다.

<답사 후기>

20081124 심보선

내가 경주라는 도시에 가게 된 것이 지금까지 몇 번인지 정확하게 셀 수 없을만큼 초등학교 시절부터 줄곧 소풍, 수학여행지로 자주 들렀던 곳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선생님들께 설명도 많이 듣고 봐왔어도 단지 친구들과 논 기억, 모이는 장소를 못 찾아 헤매던 기억밖에 나지 않는다. 경주박물관에도 대여섯번 갔다 왔지만 그곳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렇듯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방문하였던 곳을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의 유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답사를 하게 되었다.

이번 탐방을 통해서 보았던 곳 중 가장 내 마음에 들었던 곳은 안압지였다. 일단 안압지에 들어가는 순간 활짝 핀 벚꽃과 으로 마음이 탁 트였다. 그리 크지 않아 한바퀴 도는데 20 분도 걸리지 않았다. 역사적으로는 포석정과 더불어 신라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조금은 부정적인 곳으로서 표현되고 있다. 하지만 신라가 통일을 이룩한 뒤 부의 축적으로 이러한 곳을 만들고 즐기는 것 또한 현재로서 훌륭한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곳은 불국사였다. 한창 수학여행 오는 시기라 초등학생이 많아 잘못 보긴 했지만 워낙 유명한 건축물들이 많아서 외형보다는 설명을 보고 듣는 것에 치중을 많이 두고 돌아보았다. 불국사는 천년신라문화의 정수로도 손꼽히는데 신라 경덕왕 때의 재상 김대성에 의해 이전 소규모로 창립되었던 불국사가 대대적으로 확장되었다고 한다. 전세의 부모님을 위하여 석굴암을 건축하였고, 현세의 부모님을 위해 불국사를 건축하였으나 정작 자신은 완공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한다. 불국사 안에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도 관심있게 보았다. 석가탑은 다보탑과는 달리 안정감을 지니고 신라의 정형의 석탑이라고 알고 가서 봤는데, 이번에 새롭게 느낀 거지만 석가탑도 자세히 보니 다보탑 못지 않게 화려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경주라는 도시는 초등학교 때부터 방문했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방문했었던 경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에 보존된 문화유산들에 대해서 확실히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우리 문화유적지에 대한 답사라는 개념과 단순히 둘러본다는 방문이라는 개념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외국의 유산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직접 보고 왔다는 사실을 굉장히 뿌듯하게 여긴다. 그런데 정작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번 다녀온 경주에 대해서는 지금껏 정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답사를 통해서 신라의 뛰어난 기술과 문화, 그들의 생활양식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자세히 봤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 교수님들, 선배님들, 동기들과 함께한 첫 탐방이어서 뜻 깊었고 더욱 즐거웠다.

<답사 후기>

20021170 정한별

오늘도 어김없이 유시(酉時)가 되자 강 건너 만송정 솔숲 끝자락 변씨네 초가지붕 위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른다. 저 연기가 마치 봉화의 신호라도 되는 듯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차례로 일어난다. 나무하러 갔던 총각들과 글공부를 마친 꼬마 도령들, 서낭나무 밑에 모여 앉아 장기를 두던 어르신네들도 분주히 골목을 헤집고 다니더니 하나둘 그들의 집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근래 해가 길어지고 있다지만 이 시각에 화천서원 뒤쪽으로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아직은 날이 덜 풀린 듯하다.

그래도 봄은 봄이로다. 산보라도 하려 치면, 길가에 피어나는 매화며 산수유가 춘심을 공연히 뒤흔들어 놓으니 말이다. 지난 삼월 삼짇날 장인을 뵈러 정선에 갔을 때만해도 동강의 물줄기가 미처 다 풀리지 못해 아직은 동장군이 설치는구나 싶었는데, 계절의 변화란 것이

언제나 그랬듯 이렇게나 급작스러운 것임에 새삼 놀라움을 느낀다.

이런 저런 사심들에 취해 있다 보니 어느새 부드러운 공기에서 차가움이 배어나고 있었다. 잠시 이 흥을 더 즐기고 싶기도 하고 몸을 움직임이 좋겠다 싶어 나갈 채비를 한다. 석식을 준비하는 석이어멈에겐 잠시 산보나 하고 오겠노라 전하고 도포자락을 걸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당을 나섰다. 가까이 부용대나 다녀오면 시간이 얼추 맞겠구나. 흥이 절로 올라 정선을 오가며 배운 아라리를 내키는 대로 불러본다.

“갈절인지야 봄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뒷동산 행화춘절이 나를 어진다. 나날이 생각은 당신 하나뿐인데 얼마나 보고 보며는 시들어 보나.”

아라리 몇 곡조를 흥겨이 뽑아내며 부용대 정상에 다다를 무렵, 맞은편 길에서 뜬금없이 사내의 목소리가 답가를 해왔다.

“한치 뒷산에 곧드레 딱지가 이마 맛만 같으면 고깃만 뜯어 먹어도 봄 살어난다.”

여우의 장난인가 싶어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주위를 살폈다. 잠시 조용한가 싶더니 이쪽으로 저벅거리며 발걸음 소리가 커져간다. 멈췄던 곡조도 이어지며 함께 점점 커져갔다.

“정선 같이야 살기 좋은데 놀러 한번오세요 거문산 물밑이라도 해당화가 핍니다. 정선에 본릉은 무릉동이라더니 무릉은 다 어디가고서 산만 충충하구나. 이름만 선비, 안동골 한량 주둥이에서 나오는 정선아라리 가락도 나쁘진 않구만. 잘 지냈는가?”

바위 뒤편에서 흐느적대며 걸어 나온 사내가 누군가 싶어 뚫어져라 쳐다본다. 비쩍 마른 체구에 가슴팍까지 내려오는 거무튀튀한 수염, 축 늘어져 선해 보이기 그지없지만 총기 가득한 눈빛을 가진 사내. 그리고 무엇보다 세간 사람들이 김립(金笠)이라 부르듯 크게 얼굴을 덮고 있는 삿갓. 오랜 지음(知音) 병연이었다.

“안동골 한량이야 제 터라도 있어 부용대에 올랐지만, 터도 없는 무릉골 선인이 여기엔 어인 행차신가?”

말로 하는 인사치레는 이 정도로 족했다. 둘은 호탕이 웃으며 걸쭉한 포옹을 나눴다. 은은한 매화향 틈새로 사람내음이 섞여 들어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고향을 거쳐 발길 닫는 대로 정선을 지나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안동까지 와있었다는 그의 말에 그저 탄성이 절로 나왔다.

“거참 매정한 사람아. 농으로라도 벼이 그리워 왔단 말은 할 줄 모르는 겐가?”

“솔직히 일곡주(一穀酒) 이하회(二河回) 삼지음(三知音)의 심정이네만?”

너무나 당연하단 듯 내뱉는 그의 말투와 표정에서 이미 무얼 더 바랄까. 좋구나, 술이다. 함께 크게 웃어버리고는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이번엔 어느 고을까지 그의 발길이 미쳤는지 세상 돌아가는 형용이 어떠하던지 묻고 싶은 것이 가득하다.

해는 크게 저물어 하늘이 붉게 물들고, 그 아래 펼쳐진 마을의 전경을 바라보며 병연은 머릿속으로 또 어떤 시라도 써대는지 한참이나 생각에 빠진듯하다. 둔덕위로 허연 초승달이 미소 짓고 있다. 내 마음도 참 그러하다.

- 답사를 다니며 가장 크게 느낀 감흥은 서원이나 정사들과 어울리는 주변 산세였습니다. 이런 곳에서라면 ‘지나가던 개라도 풍월을 읊고, 뜻 없는 서생이라도 이태백이 될 수 있겠구나’싶을 정도로요. 그런 마음을 담아 소박하고 담백하게 하회마을을 배경삼고 풍류인 김삿갓까지 빌려와 짧게나마 글을 써봤습니다.

<답사 후기>

20081146 홍초록

대학교를 들어와 ‘한국 문학 탐방’이라는 과목을 접하고, 3 박 4 일이라는 짧지 않은 답사를 다녀왔다. ‘대학생’하면 MT 뿐만 아니라 여러 답사들을 떠올리곤 낭만적인 여행을 생각하느라 국문과 수업 겸 답사 가는 것 자체가 큰 기대였다. 더군다나 교수님들께서도 같이 가신다고 하시고, 아직 친해지지 못한 고 학번 선배 언니 오빠들과 같이 가는 답사라서 너무 기대가 되었다. 그리고 경주로 보통 수학여행을 많이 가니까 다 지겹다고 그랬는데, 나는 중학교 때는 ‘영종도’ 청소년 수련원을 갔었고 또 고등학교 때는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경주에 가 볼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답사 가기 전에 경주도 간다고 해서 은근히 기대가 되었다.

먼저 안동으로 가서 하회마을을 둘러보고 발표를 하고, 문학관 등 뜻 깊은 곳만 다녔다. 등산도 하고, 아침에 일출도 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교수님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즐거웠다. 답사 기간 내내 날씨도 좋아서 모두가 신나게 봄 소풍 온 기분으로 답사 지역을 둘러보았다.

주왕산에 올라가기 전엔 등산을 한다고 해서 안그래도 몸이 힘든데 올라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올라가다보니 등산로가 힘들지도 않았고, 주위의 멋진 풍경들과 시원한 바람들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름답다. 깨끗한 물로 손을 씻을 때에는 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리고 답사 지역 중에 주왕산 말고도 인상적이었던 곳은 이현보의 농암 종택이었다. 어찌나 좋은지……. 친구들과 둘러보면서 그 아름다운 주위 풍경에 기분이 절로 좋아졌다. 밑에 강가까지 내려가서 뛰어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물도 만져보고 그 풍경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다. 그 마을에 살았던 옛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절로 멋진 시 한 수가 그려질 만한 그런 곳이었다.

답사를 하면서 버스 안에서 이동하느라 힘든 몸을 이끌고 다음 답사 지를 답사하기 위해 내려야 할 때는 몸이 피곤해서 너무 귀찮았는데, 답사하고 나서 다시 버스를 타야할 때에는 답사한 곳이 너무 좋고 바깥 공기가 너무 좋아서 버스에 다시 타고 싶지가 않았다.

답사하면서 박물관들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듣는 문학가들, 작가들에 대한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다.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관도 있어서 재미있었다.

대학에 와서 가족들과 떨어져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답사 지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좋은 곳을 가족들과 함께 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국문과에 들어와서 답사도 하고 내가 잘 몰랐던 작가들의 생활과 작품, 생가들 모두 새롭고 멋진 곳들 이었다. 비록 버스 안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서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든 답사였지만, 눈과 귀와 오감이 정말 모두 행복했다.

<답사 후기>

주선률

탐방가기 전날,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학입학하고 처음 가는 여행이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다른 학과는 그 시기에 MT를 갔지만 우리는 의미부터가 달랐다. MT랑 다르게 배우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의기소침해졌지만 일단 내가 살던 의정부가 아니고, 춘천도 아닌 곳을 우리 과 아이들이랑 간다니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첫째 날 날씨가 너무 좋았다. 거기다 의욕이 가득해서 어디를 가도 힘들지 않았다. 엄청 꼬불꼬불한 안동하회마을은 한옥이 많아 눈이 즐거워서 옛 것의 정취에 취했고, 병산서원과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은 굉장히 보존이 잘 되어있어서 신기함이 먼저 앞섰다. 그리고 바로 가까운 곳에 이육사문학관이 있는데 이육사의 연보와 업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첫째 날 가장 힘든 곳은 청량사였다. 산으로 왕복 2시간이란 말에 기겁을 했지만 그리 험준하기도 않고 올라가니 연등이 수천 개는 있어서 마치 다른 동양나라에 온 것 같아서 느낌이 새로웠다. 그리고 바람도 엄청 거세게 불어서 모자가 날아갈 뻔 했다.

둘째 날은 이현보의 농암종택으로 시작하였다. 농암종택의 황금빛 잔디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리고 조지훈의 주실마을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우리를 너무 반가워하셔서 우리도 기분이 좋았다. 물론 주실마을에서 소 거름 냄새가 났지만 그것도 고향을 기억나게 하는 향취여서 별로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또 이문열의 주실마을을 거쳐 주왕산에 도착했다. 주왕산 위에 계곡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얼른 올라갔다. 땀을 비 오듯 쏟으며 달려가 도착한 주왕산계곡은 정말 깨끗하였다. 물 속이 햇빛에 반짝반짝 거리는 것이 아름다웠다. 세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거기서 조금만 가면 주산지인데 끝도 없을 것 같은 강이 펼쳐진 것이 장관이었다. 그리고 가장 힘들면서 보람차던 일중 하나가 일출을 본 것이었다. 석굴암 일출은 진짜 주황빛을 내면서 눈부시게 만들었다. 그곳에 아침을 먹고 바로 불국사를 둘러서 김동리, 박목월 문학관에 도착했다. 영상물을 보면서 김동리, 박목월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었다. 탐방 중 유일하게 못간 곳이 용장사지였다. 너무 멀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아쉽지만 발길을 돌려 월명사의 사천왕사지에 갔다. 그리고 경주박물관은 진짜 소장하고 있는 것이 많아 내 눈을 즐거이 했다. 특히나 셋째 날 장관이었던 것은 안압지였다. 신라인들의 휴식처였던 그 곳은 팬스레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유채꽃이 만발한 호미곶 광장에서 연오랑, 세오녀를 배웠고 구룡포 해수욕장에서 바다구경하면서 닭싸움도 구경하였다. 탐방을 다녀오면서 배운 것도 정말 많았지만 느낀 것이 더욱 많았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멋진 곳이 존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해외여행으로 돈만 축내고 있는 현실에 너무 안타까웠다. 우리나라만의 매력이나 향취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답사 후기>

20081110 김정은

대학교에 들어와 처음 가보는 답사였다.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작가의 생가나 기념지를 들

며 답사를 한다는 소리는 들어왔지만 내가 직접 가게 되어 설레는 마음이 컸다.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은 첫날에 갔던 이육사 문학관이었다. 예전부터 이육사 선생님을 좋아했던 나에겐 이육사 문학관은 이육사 선생님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육사 문학관은 굉장히 시설이 좋았다. 동산같은 곳에서 이육사에 대해 조사한 조가 발표를 하였는데 느낌이 새로웠다. 그런 후 이육사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이육사의 시와 생전에 쓰셨던 물건들이 있었다. 선생님의 습작을 보면서 웬지 이육사 선생님에 대해 반의 반밖에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답사를 통해 이육사 선생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답사를 다니면서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직접 그곳을 찾아가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었다. 그전에는 책이나 작품을 통해서만 작가에 대해 느낄 수 있었는데 답사를 다니면서 작가의 생가를 찾아가보고 작가가 이런 곳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점이 새록새록 생겨났다. 또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몰랐던 작품에 대해 답사를 다녀온 후 알아보고 조금은 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는 답사였던 것 같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시간에 쫓겼다는 점이다. 많은 곳을 가봤지만 머무르는 시간은 5-10 분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어서 탄 곳도 더 돌아보고 싶었지만 시간에 쫓겨 많은 것을 보지 못한 것은 아쉽다. 이렇게 빡빡한 일정이면 차라리 한두 곳 정도 정해서 2박 3 일이나 짧은 기간을 통해서 짧고 굵게 가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답사 후기>

20031111 김웅기

나에게 있어 답사는 설렘 보다는 걱정이었다. 이미 사전답사로 다 둘러보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할지는 내게 흥미거리가 될 수 없었다. 나는 그것보다 내가 만들고 내가 짠 일정이 한국문학탐방을 함께하는 학우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고 얼마나 많은 재미를 줄지, 그리고 아무런 착오없이 진행될지 만이 내 주된 관심사였다. 첫 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와는 다르게 날씨는 무척 좋았다. 그리고 아무 문제없이 하회마을을 둘러보고 병산서원과 도산서원, 이육사 문학관을 거쳐 청량사까지..... 청량사에 들러 탁 트인 산에서의 운치는 내가 깊은 인상을 주었고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나 또한 즐거웠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술자리에서 계속 되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일정은 농암종택에서부터 시작됐다. 생각보다 깊이 자리잡은 탓에 1 시간이나 지체된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 일정들에서 1 시간씩 계획된 것들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제 시간에 도착한 주왕산에서의 시원한 폭포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내 마음속까지 시원하게 해주었고 고요한 주산지는 평온함을 안겨주었다. 해질녘 출발하여 밤 늦게 도착한 경주에서 우리는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피곤함을 이끌고 새벽부터 찾아간 석굴암에서의 일출은 모든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오전 중에 동리 • 목월 박물관과 불국사에 들러 우리 조가 조사한 현진건의 무영탑과 석가탑을 발표했다. 그러나 오후 일정에 남산에 위치한 용장사지를 올라가 보기로

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남산 앞에서 발표해야 했다. 시간 계획을 잘못 짠 내 실수에 모두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사천왕사지를 둘러본 후 점심식사를 마친 우리는 경주박물관에서 삼국시대의 찬란한 역사를 보았다. 정말이지 까마득한 과거에 우리는 이런 웅장한 역사의 꽃을 피웠다 생각하니 내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마저 들게 했다. 용장사지를 안 오른 탓에 남은 시간을 아쉽지만 경주 보문단지에서 벚꽃을 구경하는 것으로 채웠다. 다음 숙소인 포항을 향하는 버스 안에서 다들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고 포항에 도착해 짐을 풀고 시작된 술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늦게까지 이어졌다. 서툰 계획 탓에 많이 고단했을 텐데 내색않고 잘 따라준 학우들이 고마웠다. 다음날 아침 일출을 보고 서둘러 호미곶 광장에서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발표한 후 짐을 챙겨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준비를 했다. 잠시 들린 구룡포 해수욕장에서 여행의 피곤함을 씻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3박 4일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춘천은 포근함마저 들었다. 서툰고 엉성하기 짝이 없는 일정에 고단했을 학우들에게 미안함 마음이 많이 들었다. 그리고 갈피를 못 잡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우리들이 교수님들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러나 처음으로 학생이 계획하고 쫓다는 것을 변명삼아 많은 학우들과 교수님들께 용서를 빌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 될 한국문학탐방이 이번을 계기로 더욱 발전하고 더욱 유익해지길 바라며 후기를 마친다.

<답사 후기>

답사가기 싫었던 놈

20031122 박준수

08년도 1학기 수강신청을 할 때였다. 전공과목 가운데 한국문학탐방(이하 답사)이 보였다. 미모의 조교 선생이 적극 유혹 했지만, 나는 여러 이유로 이 과목이 맘에 안 들었다. 평점도 안 나오는 싸구려 1 학점짜리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비싼 등록금에 추가 비용까지 들여야 한다니. 움썹달짝 못하고 장시간 버스를 타는 일이 싫기도 했고, 무엇보다 ‘가서 뭘 배워온다는 거야?’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난 절대 이 과목은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조교 선생께서 자꾸만 “나를 보내고 학교에 남으면 당신 마음이 편하겠냐.”고 구슬픈 목소리로 협박을 하는 게 아닌가. 천성이 착하고 마음이 여린 나는 ‘그 한마디’에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답사를 떠나게 되었다. 올해는 경상북도로 가게 되었는데, 춘천보다는 아래에 있는 지방이라 그런지 벚꽃이 일찍 피어있는 곳이 많았다. 버스 타는 동안 대부분 잠들어 있었지만, 가끔 깨어나서 창밖을 보면 벚꽃이 항상 보였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 버스 타는 일이 지겹지만은 않게 느껴졌다.

3박 4일 동안 다녀 온 여러 답사 코스 가운데 인상 깊었던 곳은 병산서원과 주왕산이다. 먼저 첫 날 두 번째 코스였던 병산서원. 서원 입구 쪽에 있는 만대루에 올라가서 병산을 바라보면, 말 그대로 산이 병풍의 그림처럼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마치 내가 그림

속에 빨려들어 온 느낌이었다.

두 번째 날 찾아갔던 주왕산도 절경이었다. 기암절벽과 폭포가 멋진 곳이었다. 등산로를

걸으며 계속 고개를 두리번거려야 했다.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한데, 시간 관계상 끝까지 올라가 보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내려와야 했기 때문이다.

집(춘천)에 있을 때 바람 좀 쐬고 싶다 하면, 으레 공지천공원을 돌며 똥물을 헤엄치는 오리배를 감상하곤 했다. 그러다가 진정 아름다운 경관들을 보게 되니, 집에 돌아가기 싫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모든 답사 코스가 위와 같지는 않았다. 작가들을 기리기 위한 문학관이나, 경주 국립박물관 등과 같은 시설들이 그렇다. 솔직한 이야기로 별 감흥이 없었다고나 할까. 우선 둘러 본 문학 작가들이 기념될 만큼의 인물들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공감하기 힘들었던 점은, 그들의 작품들을 읽어 보지도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잠깐 문학관에 들어서 그와 문학작품을 소개 받은 들,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 조를 짜고 작가조사를 시킬 필요가 있었나 보다.

그런데 여기서 웃지 못 할 사건이 발생했으니, 내가 조장을 맡은 7 조의 일이다. 김동리에 대해 조사하고 답사 발표지에 작가의 사진까지 실었다. 문제는 그 사진이 김동리 작가가 아닌 한승원이라는 다른 소설가였다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조사하던 와중에 ‘김동리 문학상’을 받은 인물을 김동리로 착각하고 사진이 실렸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왜? 아무도 몰랐냐.’이다. 동리문학관(정확히는 동리•목월 문학관)에 있는 사진과 발표문의 사진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데도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심지어는 교수님들 까지도. 오히려 답사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김은자 교수님이 이 사실을 지적해 주셨다. 그 바람에 확실하게 밝혀졌으나, 답사는 이미 지나가지 않았는가. 다시 들춰내기도 민망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문학관 관람은 가서 배운다기보다, 오히려 공부를 마친 후에 찾아 볼 곳이 아니었을까.

이런식으로 문학관을 둘러보느니, 차라리 병산서원이나 주왕산처럼 경치 좋은 곳 즉석에서 시나 무엇이든 창작을 하는 것이 어떨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문인들이 이러한 환경 아래서, 이러한 자연을 바라보며 공부했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느낀 것을 표현해 보는 것이 어떨을까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그만큼 여유가 없는 답사였다는 것이 아쉽다. 천천히 감상을 하려하면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니, 그래서 문학관에서 대충 훑어보는 것과 같이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코스를 줄이고 못 가본 곳은 다음 답사 때 찾아보는 방식도 좋을 것 같다.

아쉬움이 있지만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조교 선생에게 “다음엔 뭐라고 해도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신청한 답사였지만, 내년에는 가기 싫다는 녀석들을 내가 끌고 가게 될지 모르겠다.

<답사 후기>

3 박 4 일의 즐거운
나들이

20041187 홍수정

이제는 어찌 기억도 잘 안 난다. 나름 봄의 기운을 물씬 만끽하면서 수업이 아닌 잠시 여행을 가는 기분으로 다녀오자던 문학탐방이었는데, 고작 한 달 남짓을 넘기면서 시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억도 안 나는 일들로 인하여 탐방일은 머릿속에서 까마득하게 잊혀졌다.

‘수업제출용’이라는 명분의 기행문, 혹은 수필, 혹은 각자 마음에 드는 식으로라도 무언가를 써서 제출하라는 말에 떠올려보지만 머릿속은 이미 뿌연 안개가 낀 듯이 아득하고, 남은 사진 몇 장으로 그간의 3박 4일의 일정을 겨우 떠올려본다.

즐거웠다. 3박 4일의 일정은.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대화도 나누어 보고, 파란 하늘 아래서 어린애처럼 흥조를 띄고 뛰어다니고, 바람을 맞으며 산에도 오르고, 바다도 만져보고, 버스에서 끊임없이 꾸벅꾸벅 졸고, 그 외 등등. 문학탐방을 사칭한 나들이에 불과한 감상이라 해도 어쩔 수 없지만 문학관과 박물관, 그리고 다녀온 유적지들은 나에게는 어쩔 수없이 문학적인 측면이 아닌 나들이 측면으로 변모하여, 어딜 가나 즐거울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날씨는 얼마나 좋았으며, 풍경은 얼마나 좋았었는가! 둘째 날 저녁 경주에 도착하여 어둑어둑한 창문 밖으로 얼굴을 밀착하면서 고작 4월 초인데 벚꽃이 만개한 장면을 보면서 나는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개인적으로 3박 4일 일정 중에 특히 감명 받은 곳은 포항의 호미곶이다. 근 10년 만에 바다를 본 감동도 있었겠지만, 호미곶은 워낙 유명한 관광명소이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직접 그곳에 들린 감회는 새로울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연오랑 세오녀의 설화를 연극으로 잘 발표해준 12조의 센스도 한몫을 더한 것 같다. 오전 식사를 하고 바로 들린 곳이라 아쉽게도 숙소에서 카메라를 놓고 나온 것은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 같다.

아쉽게도 앞으로 또 탐방을 가게 될 기회는 없겠다. 어떤 심정의 변화가 생겨서 4학년 주제에 관여 아는 사람도 없으면서 덜컥 수업을 신청하여 다녀오게 되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웬지 다녀오고 나니 조금이라도 학년이 낮았을 때 이 수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 분명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느꼈을 테고, 설사 시간이 지나서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잊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문학탐방기간의 3박 4일의 즐거웠던 기억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어렴풋이 즐거울 것 같다.

<답사 후기>

20081115 노소희

나에게 이번 탐방은 고등학교 2학년 이후 내가 속해있는 작은 사회의 구성원들과 떠나는 첫 여행이었다. 사실 아침잠이 많은 나로서는 처음에 7시 30분까지 연암관으로 모이라는 얘기에 많이 부담이 되었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약간 긴장한 탓인지 다행히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겨 들고 기숙사를 나섰다.

버스에 오르고 얼마 안 있어 버스는 아직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춘천을 떠나 우리의 첫 번째 답사지인 안동 하회마을을 향해 남쪽으로 출발했다. 하회마을에 도착하자 아직은 약간 쌀쌀한 바람이 꽃 냄새를 머금고 불어왔다. 나는 내 동기들과 함께 하회마을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돌아다녔다. 강물이 마을을 돌아 나간다고 해서 하회(河回)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마을을 처음으로 본 나에게 하회마을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안동 하회마을을 둘러본 후 우리는 다시 병산 서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병산서원 또한 그 경치가 멋있었다. 한적한 서원 앞으로 유유히 강이 흐르고 그 앞으로 바로 뛰어난 절경의 산이 보이는 그 서원에서 퇴계 이황 선생이 학문을 연구하셨다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었다.

그 후 도산서원과 이육사문학관에 들어서 퇴계 이황 선생과 이육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숙소로 향했다.

둘째 날에는 농암 이현보의 종택과 조지훈의 주실마을에 들렀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조지훈의 시 공원이었다. 조지훈 시 공원은 돌에 새겨놓은 조지훈의 시를 전시 해놓은 곳이었는데 주변 환경도 잘 정리되어 있어서 좋았다. 그 후에는 이문열 발표를 위해 두들마을에 들린 후 주왕산으로 향했다. 주왕산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산이어서 오르기에는 수월했는데 모두 오르지는 않고 중간쯤 계곡에서 잠깐 사진을 찍었다.

셋째 날에 우리는 석굴암에서의 일출을 보기 위해 5시 30분에 일어나야만 했다. 처음 석굴암 입구에 도착했을 때에는 줄리기도 하고 춥기도 해서 빨리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이 컸지만 막상 일출을 보니 일찍 일어나서 온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에는 <무영탑>을 발표하기 위해 불국사로 향했다. 불국사는 지금까지 몇 번 와본 곳이어서 인지 친숙한 기분이 들었지만 우리가 답사를 갔을 때에 (불국사는 언제나 사람이 많지만)사람이 많아서 발표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웠다. 그 후 우리는 김동리, 박목월 문학관에 들러 김동리와 박목월의 작품을 감상한 후 김시습의 <금오신화> 발표를 위해 용장사지에 갔다. 그리고는 국립경주박물관에 갔었는데, 그 동안 경주에는 많이 왔었지만 셋째 날처럼 경주 이곳저곳을 둘러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좋았다. 특히 국립경주박물관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고, 전시품도 많아서 여러모로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그 후에는 안압지에 갔다가 월명사에 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 사천왕사지에 갔다. 그런데 사천왕사지에 처음 도착했을 때 ‘여기에 왜 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와 닿는 부분이 없어 아쉬웠다.

마지막 날에는 언제나 TV 나 사진으로만 보았던 호미곶에서 처음 일출을 보았다. 일출을 늘 정동진에서 봤던 나에게 불국사 일출 다음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었다. 그 후에는 호미곶 광장에서 연오랑과 세오녀 발표를 했는데 연오랑과 세오녀의 발표를 맡은 조가 그곳에서 연극(?)을 했었다. 그래서 원래 연오랑과 세오녀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나에게 다른 조들과는 발표방법이 달라서 인상 깊었다. 연오랑과 세오녀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춘천으로 다시 향했는데 도중에 구룡포 해수욕장에 들러 다같이 사진도 찍으며 잠깐 쉬었다 가게 되었다.

나는 처음 이번 답사가 대부분 수학여행으로 많이 갔다온 경북지역이어서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내가 처음 다녀온 곳도 있었고, 또 이미 왔던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과 관련된 문학 작품이나 작가들의 설명을 들으며 다녀서 인지 처음 생각과는 달리 지루하기보다는 재미있는 답사였던 것 같다.

<답사 후기>

한국문학탐방답사를 다녀와서..

20081127 유주신

답사를 떠나기 전 날 밤, 설레던 마음에 잠을 뒤척이던 것이 어제일 같은데 답사를 다녀온지도 어느새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기억

하고 싶던 장소, 풍경들이 그 짧은 시간동안 벌써 흐릿해지고 있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를 하나 꼽자면, 바로 ‘동리·목월 박물관’이다. 답사 전, 조별 발표과제의 주제가 김동리 작가여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곤하고 뻘뻘했던 일정 속에서도 동리·목월 박물관을 방문할 때 만큼은 조금 더 세심하게 둘러보던 기억이 난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몇몇의 작품들 중 답사 내내 입가에 맴돌게 된 시구 하나가 있다. 바로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에서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다. 이 시구가 또렷이 기억나는 이유는 시구 하나에 노을 진 시골 언덕 어귀를 걷는 나그네의 모습이 자연스레 그려지는 것에 감탄해서가 아닐까 한다. 또한 문인들의 서재를 재현해 놓았는데, 생각보다 소박하고 단출한 방 내부에 친근함과 동시에 정감이 갔다. 그리고 김동리 작가의 대표작들을 애니메이션으로 꾸며놓아 문학작품에 좀 더 쉽고 재밌게 접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어린아이들이 와도 가볍고 재밌게 문학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 것 같아 좋아보였다.

비록, 시간에 쫓기는 탓에 계획대로 모두 둘러보지 못해 한편으론 아쉬움도 남지만, 쉽게 경험하지 못할 소중한 시간을,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다. 여러 문학 유적지나 박물관들을 둘러보는 시간도 뜻깊었지만, 일정 외에 숙소에서 선배님들이나 친구들과 즐거웠던 추억도 영영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답사 후기>

문학 속으로..

20081136 전소향.

봄비가 내리는 날 아침 바리바리 싹 짐을 들고 버스에 올라탔다. 처음엔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장거리를 움직여야 하는데, 차멀미가 있는지라 타자마자 걱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 가는 장소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니 재미있기도 하고 멋진 경관에 놀라기도 했다. 뻘뻘하게 짜여진 일정 탓에 세밀하게 보는 시간은 별로 없었지만 문학가들의 자취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다. 한옥으로 지어진 집들이 편안하게 느껴져 작품에 몰두하기 좋아 보였다. 일출을 보러 갔을 때에는 날씨도 춥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황이라 항상 짜증이 나기 일쑤였다. 하지만 막상 해가 뜨는 것을 보고나면 붉은 빛의 풍경에 넋이 나가 쳐다보곤 했다. 수학여행이나 졸업여행에 가면 유적지를 대충 둘러보고 무언가를 사먹기 바빠서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그냥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 의미가 더 컸었다. 물론 문학탐방 역시도 선·후배간의 더 친밀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가기 전에 조별로 문학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발표도 하여서 한번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시원한 바다를 보면서 그동안 과제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소는 국립경주박물관이었다. 그 이유는 목이 잘린 부처님의 모습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한 개도 아니고 수십 개쯤 되 보이는 불상들이 하나같이 다들 얼굴이 없는 형태로 잔디밭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안내판에는 보존 중에 훼손되었다는 소리도 있고,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해 머리를 잘라버렸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소름끼쳐 보였다. 3박 4일 동안 둘러본 곳곳마다 의미가 있었고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

한다. 좀 더 여유롭게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다.

<답사 후기>

20031143 윤대원

처음에는 동기가 신청하자고 졸라서 신청을 했다. 그냥 탐방만 한번 다녀오면 끝인 줄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해야 할 것도 많고 해서 귀찮았다. 그냥 수강 취소할까 하는 생각도 없이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조장을 맡게 되어서 계속 해서 마음을 접었다. 출발하는 그 순간까지도 괜히 신청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었다. 막 전역을 해서인지 그냥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 마음도 탐방을 가 있는 동안은 금세 날아가 버렸다. 이번 탐방을 하며, 오히려 엠티보다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 의미 없이 모여서 술만 마시는 시간보다 국문과답게 문학 속에서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유익한 것 같았다. 군 전역을 하고 바로 복학을 해서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었는데, 조모임과 또 갖은 만남을 통해 과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한 명, 한 명 알아가는 것 역시 즐거웠다.

특히나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조지훈 시공원이었다. 사실 시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날은 특히나 시가 나를 잡아끄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중에서도 조지훈의 “완화삼”이라는 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리조가 맡은 박목월을 조사하다가 알게 된 시였다. 조지훈이 “완화삼”이라는 시를 써서 박목월에게 보여주어, 그것에 대한 답시로 그 유명한 “나그네”가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미리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알고 있는 시를 읽으니 - 그것도 시비로 만들어져 있었다. 감상을 하다가 일행의 뒤를 쫓지 못할 정도로 빠지고 말았다.

이번 탐방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문학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두 가지 선물을 안겨준 멋진 시간이었다. 다음번에 탐방을 가게 된다면 조금 더 여유있는 마음으로 불만을 가지기 보다는 더 준비를 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오는 시간이 되게 하리라.

<답사 후기>

20081131 이은주

4월 2일, 3박 4일의 길고도 짧은 여행이 시작되었다. 국어국문학과답게 한국의 문학을 탐방하는 여행이었다. 탐방을 하러가는 모든 인원들을 총 12 조로 나누었는데 나는 그 중에 8조였다. 그리고 각 조마다 작품이나 작가를 하나씩 맡아서 조사를 하게 하였는데 우리 조는

‘박목월’을 조사하게 되었다.

‘박목월’에 대해 조사하던 중 ‘김동리’라는 작가와 친했다고 한 내용을 봤는데 노란 책의 앞쪽에 붙여진 시간표를 살펴보니 우리가 갈 곳 중에 ‘김동리·박목월 문학관’이라는 곳이 있었다. 내가 우리 조 발표를 맡게 되어 책으로 나온 내용을 읽어보았더니 책의 내용에서도 그 문학관 이름이 나왔다. 유족들로부터 기증, 위탁받은 여러 가지의 작품과 생활용품, 애장품들로 인해 국내문학관 중 가장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책에 적혀있던 내용 중 내 맘을 사로잡은 것은 ‘좌 동리 우 목월’이라는 말이었다. 저 이름과 같이 사후에도 나란히 자리를 지켜 둘의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듯 양 전시실에 두 사람의 유품을 전시해 두었다고 했다. 처음에 저 내용을 읽었을 때엔 하나의 큰 전시실 안에 입구에서 보았을 때 좌측엔 김동리의 유품을 전시해두고, 우측에는 박목월의 유품을 전시해뒀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들을 보며 죽어서까지 같이 있게 된 두 사람의 우정을 볼 수 있어 부러운 마음이 생길거란 생각을 했었다. 그런 기대를 안고서 발표를 마치고 박물관 안에 들어가 보았다.

하지만 직접 들어가서 본 박물관의 구조는 실망스러웠다. 마주보는 두 개의 전시실 입구가 보였고, 그 위에 금색 글씨로 ‘목월문학관’, ‘동리문학관’ 이라 적혀 있었다. 위치만 옆에 있을 뿐 각각의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어 두 사람의 끈끈한 인연이라던가 우정을 느낄 수가 없어서 아쉬웠다.

일단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전시실을 둘러보았다. 각각의 전시실 안에는 김동리와 박목월이 생전에 쓰던 서재를 옮겨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전시물들이 있었다. 나중에 필요하게 될 것 같아서 찍어두고 다른 곳을 둘러보던 중 박목월이 지은 동시들이 적혀져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그곳으로 가보니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동요의 가사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이였고 그 밑에는 2 절이라 볼 수도 있는 ‘얼룩 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낮설고 조용한 분위기의 박물관에 우리에게 친숙하고 낯익은 말이 적혀있어 굉장히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길게 구경하지 못했고, 한 전시실 안에 전시된 것이 아니라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김동리와 박목월처럼 죽어서까지 옆에 같이 있게 되는 그런 친구가 나에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동시에 김동리와 박목월이 굉장히 부럽게 느껴졌다.

<답사 후기>

20081134 장수영

박목월이란 시인의 이름은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왔다. 하지만 정식으로 조사해본 적은 답사를 계기로 해서 처음이었다. 박두진, 조지훈과 함께 청록파였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박목월이 어떤 작품을 썼고 어떤 작품세계를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다.

우선은 내가 조사한 시인이었기 때문에 박목월 문학관에 도착하는 시간을 기다렸다. 차를 타고 문학관에 도착했다. 좋은 날씨에 방문하게 되어서 기분이 한층 더 고조되었다. 다른 시인들의 문학관과는 달리 박목월문학관에서는 영상을 틀어주고 박목월의 실제 음성으로 자

신이 지은 시를 읽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여기에 오기 전까진 눈으로만 감상해서 눈이 피곤했었는데 눈을 감고 청각으로만 감상하니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음성으로 읽어주는 시에 대해서 혼자 눈을 감고 그림도 그려보고 박목월의 얼굴도 떠올려보고..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기분을 느꼈더니 박목월이란 시인이 갑자기 좋아지기도 했다. 인터넷과 책에서는 단지 그 사람의 활동 내역과 작품 해석만이 소개되어서 답사 오기 전에 사전조사를 할 때 조금은 지루했었다. 하지만 답사를 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지루하기는커녕 문학관에 전시되어있는 박목월의 사진, 작품, 생전에 쓰시던 물건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었다. 문학관에 오니깐 답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다.

차도 오래 타고 걷기도 많이 걸어서 힘들었지만 힘들었던 만큼 얻은 것이 더 많았기에 보람된 답사였다. 내년에 또 답사 일정이 생긴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다시 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중요한건 박목월시인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여서 더 좋았다.

<답사 후기>

청량사를 오르며

20051127 원수진

봄 냄새가 나는 4월 첫 주 경상도로 답사를 갔다. 이번이 세 번째 답사이다. 성격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나에겐 답사가 여행의 좋은 구실이다. 이번 답사는 이전과 달리 훨씬 여유로웠다. 여유로움 속에서 마지막 답사를 즐겼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답사 첫째 날 들른 청량사이다. 나는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평소 걷는 습관도 없고 운동이라고 하면 딱 질색이다. 그러나 단체 활동이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산을 오를 일이 없기에 묵묵히 올랐다. 발길을 옮기자 비가 조금씩 내렸지만 청량산은 울창한 초록빛으로 일렁였다. 산길을 따라 온통 울창한 숲의 색깔과 바람을 느끼다 보니 기분이 상쾌했다. 길은 조금 가파르지만 가슴 깊숙이 청량한 기운을 느끼려 나뭇잎 하나 바람 한 자락도 놓치지 싫어졌다. 어느새 산을 오르면 암벽과 초록빛에 둘러싸인 청량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범종각 아래 잠시 쉬어 시원한 물 한금을 마셨다. 땀을 잠시 식히기 위해 먹은 물 한 모금이 몸과 마음도 맑게 씻어주는 것 같다. 한 계단 한 계단 나무 계단을 오르면 청청한 도량으로 오르는 기분이 더욱 더해진다. 계단을 올라 고개를 들면 청량사의 본전이 유리보전이 자리하고 있다. 퇴계 이황은 청량산을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한다. 청량산을 자주 찾았고 이 곳에서 후학에게 강론도 즐겼다고 전한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배움은 배로 컸을 것 같다. 절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오층석탑은 근래에 세웠다고 한다. 유리보전 앞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과히 장관이다. 우뚝 솟은 봉우리와 먼 듯 가까운듯한 하늘과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바람이 주위를 에워싼다. 소나무와 오층석탑 그리고 청량산의 기암절벽이 조화를 이뤄 청량사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었다. 이름 그대로 청량함과 고귀함을 간직한 청량사였다.

산사를 둘러본 후 내려오는 길에 아쉬운 듯 산을 한번 쳐다보았다. 청량사를 오르내리면서 그 곳에 부는 푸른 바람이 몸과 마음 청량하게 씻어주는 듯 했다. 그 여운이 오래 남는

다.

<답사 후기>

20081106 김경례

3박 4일의 짧고도 긴 답사였다.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느낀 것이 많은데 가장
억에 남는 곳은 퇴계 이황선생님의 이육사문학관이였다.

춘천에서 먼 길을 향해 달려간 경북안동에 위치한 문학관은 문학관 밖에서 ‘절정’을 새긴
시비가 있었고 그 앞을 배경으로 한 육사선생님의 등신상도 볼 수 있었다. 문학관 안으로
들어가니 1 층에 청포도시가 줄줄이 벽에 붙어 있어서 다시 한번 시를 읊을 수 있었다. 또
문학관 안에서 체험코너를 통해 이육사의 시인 「광야」, 「청포도」의 시를 판화로 찍어봄으로
써 문학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곳은 포항에 위치한 호미곶 이였다. 마지막날에 간 곳이었는데,
바다를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또 호미곶에서 12 조가 발표한 연오랑세
오녀 설화가 기억에 남았다. 연오랑세오녀의 설화를 연극으로 보여줬는데 다른 조의 발표보
다 더 기억에 남고 이해하기가 쉬웠었다.

이렇게 답사를 마치면서 많은 문학작품 선생님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안 것 같았다. 그리
고 직접 여러곳을 다니며 보고 체험하니깐 그것이 더 뜻 깊고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다.

<답사 후기>

금오산을 다녀와서

20011173 최문관

이번 답사 때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창작했던 금오산에 다녀왔다. 일단 용장사지까지 오르
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지만 멀리서나마 금오산을 바라보고 온 것에 만족한다. 금오산에 오
르지 못했기에 달랐던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왜 하필 김시습이 많
은 산들을 뒤로하고 금오산에 은거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김시습은 31 세 되는 세조 11 년 봄에 경주 남산 금오산에 금오산실을 복축하고 종신의 땅
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때 산실을 지은 곳은 금오산 남쪽 곧 신라시대에 창건한 절 옛터였
다. 그가 전국 각지를 편력하면서 굳이 이 금오산을 은둔지로 삼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신라 알지왕의 후예라는 점과 승려의 신분으로서 경주가 지내기에 적합하다
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그는 금오산에 은거하면서도 세조 11 년 4 월 원각사
창건행사에 참가 상경하여 찬시(讚詩)를 짓고 세조가 원각사에 머물 것을 원하였으나 효령
대군에게 환산(還山)을 비는 시를 바치고 떠나버렸다.

세조가 중도에 사람을 보내어 재삼 불렀으나 소명을 사양하고 진정서를 내어 끝내는 나아

가지 아니하고 금오산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는 그가 현실을 완전히 부정하고 도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현실세계에 적응하고자 하는 일단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 현실에 적응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은둔을 확고하게 해 주었다.

<답사 후기>

20071110 김수빈

봄 햇살이 따뜻하고 꽃들이 활짝 핀 멋진 풍경들과 선후배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 질 수 있었던 이번 문학탐방은 정말 재미있고 뿌듯했던 여행이자 수업이었다.

어느덧 2학년이 되었고 두 번째로 가는 탐방이라서 그런지 일정들과 발표 등이 부담되거나 힘들지는 않았다. 자연스럽게 작년에 갔었던 탐방과 비교되는 이번 탐방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다. 다소 작년보다 일정이 느슨해져서 몸이 고달프거나 힘들지는 않았지만 작년과 비슷한 비용으로 많은 곳을 보지 못한 것과 배를 타는 등의 색다른 재미를 느끼지 못한 부분은 아쉬웠다. 하지만 3박 4일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며 쉽게 볼 수 없는 절경과 많은 문화재들은 아쉬운 부분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았다.

처음으로 갔었던 안동 하회마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왔었던 장소였다. 고 1 때 친구들과 있었던 추억과 같이 사진 찍었던 장소들을 걸어 다니며 그때의 추억을 느낄 수 있었다. 오히려 하회마을의 전통 가옥들보다는 학창 시절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며 나의 추억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퇴계 이황 선생의 도산서원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들과 함께 이거 천원짜리 지폐 뒷면의 나오는 곳이야 하며 신기해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멋진 장소들이 이젠 나의 추억의 한 장소로 기억되고 있었다. 다시 한 번 이곳을 찾게 된다면 그때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상상을 했다.

개인적으로는 둘째 날 주왕산 계곡 관광을 이번 탐방의 최고의 명소로 뽑고 싶다. 탐방을 가기 전 다리를 다쳐 산에 올라가는 것이 꺼려졌지만 계곡만큼은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힘들게 올라갔다. 그리고 계곡을 보는 순간 힘든 것도 다 사라지고 안 왔으면 땅을 치고 후회했을 뻔한 멋진 절경이 펼쳐져 있었다.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와 맑은 계곡 물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릿속까지 시원하고 맑아지는 것 같았다. 산에서 내려오는 게 아쉬울 정도의 멋진 절경의 산을 좋아하는 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드려 주왕산의 꼭 한번 와보시라고 추천을 했다.

수학여행으로 경주를 많이 간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난 경주를 한번 도 와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 탐방 일정에 경주가 있어서 드디어 한번 경주를 가보겠구나 하고 좋아하고 있었다. 경주 하면 불국사하고 석굴암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하고 있었던 장소였다. 처음 경주에 도착하여 숙소에서 도착했을 때 주위에 수학여행을 많이 온 학생들을 보고 역시 경주라는 생각을 했다. 다음날 석굴암 일출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다. 비록 석굴암으로 간 건 아니지만 떠오르는 멋진 태양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불국사에 도착하자마자 교과서나 TV에서나 보았던 모습들을 직접 보니 신라 천년의 숨결을 나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조의 발표가 있는 용장사지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가지 못했고 그 앞쪽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제대로 된 멋진 장소에서 발표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 마지막

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춘천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추억을 남긴 것 같아서 뿌듯했다. 한 곳 한 곳 장소마다 남겼던 사진들 덕분에 잊혀 질 수도 있는 기억들을 까먹지 않게 소중한 남긴 것 같아 다행이다.

작년보다 친구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서 아쉬웠지만 오히려 혼자 다니며 멋진 풍경들과 모습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많은 곳을 다니며 남겼던 나의 추억들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발자취를 따라 나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고 싶다.

<답사 후기>

20081128 이기범

처음 답사 일정표를 보고서는 뻑뻑이 채워져 있는 일정들로 인해 3박 4일이 너무나도 길게만 느껴졌었다. 이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들도 많구나 하고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된 탐방은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다.

우선 첫째 날인 수요일 아침 일찍 모여서 첫 일정을 위해 출발을 하였다. 예정보다 조금은 늦긴 했지만 하회마을이 처음 간 곳이었다. 평소에도 자주 듣던 곳이기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고 많은 것을 보았다. 전통 가옥뿐만 아니라 여러 절경들이 어울려져서 더욱 명소다운 느낌이였다. 그 이후로도 여러 곳을 둘러서 탐방을 하면서 발표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첫째 날은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다. 처음 숙박을 위해 머물렀던 국학문화회관은 외관부터 깨끗했고 실제로 안까지 깨끗하여 편하게 머물렀다. 또 저녁에는 같은 방에 머무는 선배, 동기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며 많은 얘기들을 나눠서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둘째 날 아침을 일찍 먹고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고된 일정을 소화해냈다. ‘하나쫓은 평크 나쫓지’ 했지만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주왕산 계곡관광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걷는 것이 조금은 힘들었지만 목표지인 계곡에 도착하고 나서는 그런 노고는 말끔히 씻겨졌다. 좋은 경치들이 즐비했고 공기마저 산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둘째 날 일정을 마치고 경주에 도착했다. 두 번째 숙박지인 신라여관에서 저녁을 먹고 형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조금 늦게 잠이 들었다.

셋째 날 석굴암에서의 일출을 보기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고달팠다. 하지만 고생에 비해 값진 장관을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러 곳을 탐방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김동리, 박목월 문학관 이었다. 그들의 생가와 주변을 잘 보존한 것도 있고 문학관에서도 자세한 설명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서 한눈에 들어왔다. 많은 지식들을 얻은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 같다. 그리고 우리 조가 조사했던 김시습의 생가에 들리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생가로 갈수 있는 길이 차단 되어서 못갔다. 그래서 먼발치에서 생가를 바라보며 아쉬운 발걸음을 해야 했다. 다음에 근처 지역을 가게 된다면 반드시 들리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동안의 것들을 평가하고 회식하는 자리가 있었다. 화기애애한 기분 좋은 자리여서 그런지 이 평가회, 회식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넷째 날 호미곶 일출을 보고 마지막 발표 장소인 호미곶 광장에서 연오랑세오녀의 발표를 마쳤다. 그러므로써 3박 4일간의 탐방은 끝이 났다.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 여러 곳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나다니며 보고 느낀 것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탐방은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답사 후기>

20081135 장아름

처음 김시습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름이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시작하면서 김시습이란 문인이 조선 전기의 문인이었다는 걸 알고서 더욱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맡은 조사는 김시습이 지은 대표적인 작품 『금오신화』였습니다. 금오신화는 다섯 개의 개별 작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이야기를 조사하는 방법도 좋지만, 저는 『금오신화』 자체를 통틀어 알고 싶어서 금오신화의 의의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직도 금오신화를 다 읽지 못해서 아쉽지만, 시간이 난다면 해석과 더불어 공부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고전 문학은 많은 매력을 지닌 것 같습니다.

저희 조 조장님인 문관 오빠, 수빈 오빠를 비롯하여 동기인 주경이, 기범이, 병욱이가 각각 조사한 내용이 하나로 합해져 김시습이란 인물이 완성되는 과정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조선시대 문인을 현대의 대학생이 조사하고 탐구해가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고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3 박 4 일의 탐방은 일정이 주르륵 잡혀 있어 조금 몸이 고단하였지만 내심 다른 인물 보다는 김시습의 용장사지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금오신화』를 조사하면서 인터넷상으로 많이 보았기에 그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비록 바쁜 일정에 가보지는 못하고 발표밖에 못했지만 가까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여행하고픈 경북 지역입니다. 특히 금오산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절경을 보며 시와 소설을 지었을 문인들에게 공감대도 형성되고 존경심도 생겨났습니다. 끝으로 탐방가기 전이나 탐방에 다녀와서도 저희 조를 잘 챙겨주신 조장오빠, 씩씩하게 발표를 잘 해주신 수빈오빠, 같은 조였던 주경이, 기범이, 병욱이 모두 9 조로써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답사 후기>

20081111 김주경

이번에 간 답사에서 나는 9 조로 배정되었다. 9 조는 김시습을 조사하는 것이었고, 나는 그의 유적들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다. 조사한 유적들 중 이번 답사에서 간 곳은 용장사지였다. 하지만 답사 때는 용장사지에 가지 못했다.

내가 조사한 용장사지는 김시습이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를 지으면서 머물렀던 곳이

라고 한다. 김시습은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사실을 알고 모든 책을 불태운 후 승려가 됐다. 그 후 관서와 관동, 호남을 거쳐 경상도로 간 것이었다. 김시습은 좋은 경치를 보면 시로 읊기를 즐겼다. 그리고 그는 관직에 욕심을 내지 않았다. 거기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도를 펼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몸이라도 지키자고 하여 용장사지에 오른 것이라고 한다.

우리 조가 발표한 곳은 봄이라 그런지 꽃이 만발한 곳이었다. 개나리도 활짝 피어있었고, 나무의 풀도, 새싹도 하나 둘씩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그 곳에서 우리 조는 발표를 하였다. 선배님이 발표를 한 것을 들으면서, 또 답사 책자를 보면서 김시습이 무엇을 하였는지, 금오신화란 무엇인지, 용장사지는 어떤 곳인지, 이 외의 유적은 무엇이 있는지 또 한 번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용장사지를 볼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까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개인적으로라도 가보고 싶은 곳이다.

<답사 후기>

속에 남겨진 사천왕사지

20081143 최은주

월명사와 사천왕사지에 대한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사천왕사지에 대해 기대가 컸다. 월명사의 제망매가와 도솔가는 고등학교 때 향가를 공부하며 배웠고 대학에 들어와서 다시 만난 작품이다.

사천왕사지에 대해 발굴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사천왕사지의 옛 모습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던 것은 지나친 생각이었나 싶었다.

사천왕사지에 대해 조사하면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완공할 시간이 없어 오색의 비단으로 절을 짓고 승려가 비법을 행해 당나라를 물리쳤다는 이야기나, 사천왕사지의 벽화 그림이 실제 그림처럼 실감나는 모습, 80 년대에 복원된 다양하고 생동감 넘치는 부조상들의 설명 등이 사천왕사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거의 발굴이 끝난 듯 험한 벌판이 눈앞에 펼쳐졌다. 절이라고 하면 대개 산 속 깊은 곳에 있는 절들을 생각했었는데, 사천왕사지는 산 속도 아니고 조그마한 언덕에 위치해 절터가 남아있었다.

우리 조의 사천왕사지에서의 설명이 끝난 후 절터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차에 올랐을 때 무언가 아쉬움이 남았다. 사천왕사지는 신문왕릉의 옆, 선덕여왕릉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걸어서 신문왕릉과, 선덕여왕릉을 보고 갔으면 사천왕사지에서의 아쉬움은 조금 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상과 기대 속에 있던 사천왕사지는 비록 아무것도 없는 쓸쓸한 모습으로 만났지만, 사천왕사지에 대해 내려져 오는 신비스러운 이야기들과, 월명사의 문학, 발굴된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사천왕사지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답사 후기>

월명사의 자취를 찾아간 길.

2008111 손 해 립

월명사의 자취를 따라 간 곳은 '사천왕사지'. 도착한 곳에서 절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단지 넓은 절터만이 방문객을 반기고 있을 뿐.

사천왕사는 월명사가 소속되어 있던 절로 그와 관련된 설화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월명사의 피리 소리에 달이 멈추었다는 이야기다. 달이 뜬 밤에 고요히 울리는 피리 소리. 그 선율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가던 달도 멈추어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 이 얼마나 환상적인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를 접하며 사천왕사지의 아름다운 경치를 상상했다. 그러나 도착한 사천왕사지의 모습에 솔직히 실망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의 경치를 기대했었는데, 절터 주위를 둘러봐도 아름다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흐르며 환경이 변한 것일까? 관광지 개발을 위해 원래의 환경을 훼손한 걸까? 어느 쪽이든 반갑지 않은 생각이다. 병풍처럼 절터를 둘러싼 산들은 멋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밤이 돼서 달과 별이 뜨면 내가 생각했던 경치가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학교의 일정대로 몇 분 후면 떠나야 하는 나에게 야경을 보는 것은 무리였다. 정해진 시간이 되고, 결국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지금 생각해도 야경을 못 본 것이 많이 아쉽다. 정해진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후에 시간이 허락 한다면 그때 보지 못 했던 경치를 감상해 보고 싶다.

<답사 후기>

20081116 문숙경

4월 2일~ 5일까지 3박 4일로 문학탐방을 가게 되었다. 첫날에는 도산서원, 이육사 문학관, 청량사에 들렀었고, 둘째날에는 농암 종택, 주실마을, 두들마을, 주왕산, 주산지에 들렀었고, 셋째날에는 불국사, 김동리 박목월 문학관, 용장사지,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 사천왕사지에 들렀으며, 마지막날에는 호미곶 광장 구룡포 해수욕장을 다녀왔다. 여러 곳에 다녀왔지만 그 중 나는 셋째날에 다녀온 국립경주박물관이 기억에 남는다. 이번 조별탐방과제로 성덕대왕신종에 대해 조사를 해서 그런지 그 곳에 있는 성덕대왕신종이 가장 인상 깊었다.

성덕대왕신종은 달리 말해 에밀레종이라고도 불리어 진다. 에밀레종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동화로 접해 왔었기에 친근했다. 종을 만들 때 아기를 넣어 만들었다던 에밀레종은 내가 기존에 보아왔던 종과는 다르게 훨씬 더 컸다. 에밀레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큰 종이라고 한다. 성덕대왕신종이 에밀레종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여운의 소리가 '에밀레' 같고, 그 뜻은 "에밀레라" 즉 "에미 탓으로"와 같기 때문이다. 내용인 즉 경덕왕이 대종을 만들기 위한 성금을 모으기 위하여 전국에 시주 종을 내보냈을 때 어느 민가의 아낙네가 어린애를 안고 회룡조로 "우리 집엔 시주할 것이라고는 이 애밖에 없는데요"라며 스님을 놀렸다는 것이다. 종 만드는 일에 계속 실패를 거듭하자 일관이 점을

쳐서 이것은 부정을 탄 것이니 부정을 씻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러 갈래로 그 부정의 원인 알아본 결과 그 아낙네 탓으로 단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애가 희생이 되어 "에밀레"로 되었다는 얘기이다. 이번에 조사한 성덕대왕신종 즉 에밀레종설화를 조사하면서 나는 어렸을 때 읽었던 에밀레종동화와 사뭇 다른 느낌을 받았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에밀레 종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다. 에밀레 종소리는 낮게 내려앉은 저음이지만 그 맑은 여운은 긴 파장을 이루며 한없이 퍼져 나가는 그 소리는 장중하면서 맑은 소리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 소리를 "엄청나게 큰 소리이면서 이슬처럼 영롱하고 맑다."고 하였다. 기회가 된다면 에밀레종소리를 꼭 한번 들어보고 싶다.

<답사 후기>

20081141 채상윤

답사를 가기 전에는 나도 참 아직 순수한 아이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일까. 3박 4일간의 답사를 놀러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탔기 때문에 졸림을 이기지 못하고 자버렸고, 뻘뻘한 일정의 시작이라서 놀지도 못하고 재미없겠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인들과 소설가들의 흔적을 조사하러 다니면서, 민속촌도 가보고 멋진 절도 가보고 박물관도 들리고, 특히 저희조가 맡은 에밀레종을 직접 보러갈 때가 사전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조 사람들에게 설명도 해주고 마치 더 잘 아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친구들과 선배님들과 교수님들과 사진도 찍으며 우리가 여기에 왔다! 하는 멋진 추억의 증명서도 남기며 정말 가식적인 말이 아닌 즐거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림대 국문과에 입학한 꿈 많은 국문학도입니다. 아직은 먼 얘기이지만, 1학년을 모두 마치고 군대를 다녀와서 선배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저보다 어린 후배녀석들을 이끌고 답사여행을 한번 더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때는 다른 지역의 시인과 소설가분들의 발자취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답사 후기>

20081142 최성은

3박 4일 길지만 짧게 느껴졌던 시간. 한국문학탐방을 다녀오고 우리나라 문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또 다른 흥미를 갖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얇은 문학 지식, 나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다른 조가 발표하는 것을 듣고, 내가 조사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새발의 피라고 생각했다. 답사 일정 처음에 있던 안동 하회 마을에 들렀을 때는 남 다른 느낌이 들었다. 중학교 탐구학습 때 와봤던 하회 마을이었지만, 중학교 때의 느낌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다. 하회 마을 말고도, 불국사, 사천왕사지, 호미

곳, 주왕산 등 많은 곳을 들렀지만 답사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다. 우리조가 성덕대왕신종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기억에 남을 수도 있지만,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전시되어있는 성덕대왕신종을 보고 난 뒤에는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장인정신과 과학의 우수성에 대해 생각했었다. 지금의 과학의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종을 1000년 전의 기술로 만들었다는 것에 감탄했다.

성덕대왕신종에 대해 조사한 것을 발표하면서 교수님에게 지적을 당하여 마음의 상처도 받았지만 교수님의 지적으로 인하여 다음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자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3박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 동안 뵙지 못했던 선배님들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어서 좋았고, 어렸을 때의 여행의 추억에 한국문학탐방의 추억이 덧붙여져서 내 기억 속에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 수업의 일부로 간 탐방이지만 머리 한 자리에 자리 잡았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선배님과 새로 들어온 후배들과 꼭 다시 가보고 싶다.

<답사 후기>

20071107 김보민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의 일정으로 2008년도 국어국문학과 답사를 다녀왔다. 안동 하회마을부터 시작하여 포항의 호미곶까지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춘천으로 돌아왔다. 작년엔 경상도 쪽을 갔다면 이번엔 안동, 경주, 포항 등 안 가본 곳을 탐방하게 되어 작년과 또 다른 마음으로 탐방을 다녀온 것 같다.

첫째 날, 학교에서 여덟시에 출발을 해서 첫 번째 장소인 하회마을에 도착했다. 예전부터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어서 군데군데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병산서원과 도산서원, 이육사문학관, 청량사를 갔다 오는 것으로 하루 일정을 마쳤다. 이날 기억에 남았던 것은 4월초인데도 꽃이 벌써 많이 피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탐방의 즐거움이 더 컸던 것 같다. 또 서원은 다 산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이다. 정말 옛 선비들은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살며 공부를 하거나 글을 썼을 생각에 절로 공부가 잘 되었을 거라 생각된다.

둘째 날, 아침을 먹고 이현보의 농암 종택으로 갔다. 그 다음으로 주실마을, 주왕산, 주산지 관광을 하였다. 이 날은 주왕산을 갔다 온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올라가기 전에는 2시간 코스라고 하여 힘들까봐 올라가기 싫기도 했지만 막상 올라가 보니 가는 길 내내 주왕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였다. 특히 기암절벽과 폭포가 많아 자연경관이 빼어나던 것 때문에 인상 깊었던 것 같다. 힘들긴 했지만 보람 있었고 안 갔으면 정말 후회할 뻔 했다.

셋째 날, 불국사와 김동리·박목월의 문학관을 가고 용장사지,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 사천왕 사지를 갔다 왔다. 이날은 김동리·박목월 문학관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다. 불국사나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도 좋았지만, 김동리·박목월 문학관에서는 내가 평소에 알고 듣던 시를 보게 되어서 반가웠다. 그리고 안압지는 신라 때의 연못이라고 한다. 연못 반대편으로 벚꽃이 너무 이쁘게 피어 있어서 사진을 많이 찍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체되어 빨리 가서 아쉬웠다.

넷째 날, 호미곶 일출을 보고 난 후, 호미곶 광장, 구룡포 해수욕장을 간 뒤 춘천으로 왔다. 셋째 날 석굴암 일출을 보지 못해서 호미곶 일출을 매우 기대했었다. 또 일출을 한번도 보지 못해서 기대하며 새벽부터 일어나서 보러 나갔는데, 구름이 끼는 바람에 잘 보이지 않아서 아쉬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구룡포 해수욕장에선 작년처럼 신입생 대 복학생 닭싸움도 하며 작년을 그리며 선후배간의 친밀감도 쌓아갔다. 바다도 구경하며 마지막 날까지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간 것 같아서 좋았다.

내년엔 한국문학탐방Ⅲ이라고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 싶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냥 수학여행으로 갔던 것과 공부를 좀 하고 난 뒤 그 곳을 가는 것은 느낌자체도 달랐기 때문이다.

나는 11 조로 성덕대왕신종에 대해 조사를 했다. 조원은 여섯 명으로 두 명씩 세 가지 주제를 분담하여 조사하였다. 첫 번째로 성덕대왕신종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두 번째로 성덕대왕신종의 설화에 대해, 세 번째로 에밀레종이 들어있는 시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세 번째 소개한 에밀레종이 들어있는 시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성덕대왕신종은 어떤 것이고, 모양은 어떻게 크기는 3.75m 정도 된다는 것을 조사만 한 후, 실제로 경주에 가서 보니 크기가 어마어마하였고, 옛 사람들이 저 신종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종에 새겨진 문양에는 비천상이 새겨져 있다고 조사했었다. 비천상은 금방이라도 하늘로 올라갈 것만 같은 인물이 중앙에 연화좌위에 앉아 염원을 드리는 것과 같다. 신종을 가까이서 보지 못하여 제대로 확인하진 못했지만, 비슷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았다. 또 종을 만드는 것 외에도 문양까지 세심하게 새겨 넣은 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성덕대왕신종의 설화로 종을 만들 때 아기를 넣어서 만들었다고 유명하며, 성덕대왕신종이 에밀레종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은 그 여운의 소리가 "에밀레" 같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직접 가서 들어봤더니 진짜 "에밀레"같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았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직접 성덕대왕신종을 치진 않고 녹음된 것을 틀어 주어서 아쉬웠었다. 신종 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새해가 시작되기 전 종치는 모습을 봐야겠다.

마지막으로 에밀레종에 남아있는 글로 시 두 편을 조사했다. 두 편의 제목은 김천우 시인의 '에밀레종'과 김선우 시인의 '에밀레종 소리 듣다, 일식을 보다'이다. 제목에서부터 에밀레종과 관련된 것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천우 시인의 에밀레종은 제 4 회 신라문학대상 시 부문에서 당선된 것으로 에밀레종의 슬픔과 한이 잘 담겨져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속삭이듯 옛 이야기 같은 시인 것 같고, 화려함보다는 애련함,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 같다. 종을 봐도 화려함보다는 애련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김선우 시인의 에밀레종 소리 듣다, 일식을 보다에서도 전의 시와 마찬가지로 슬픔과 애련함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답사 후기>

20021120 노재화

26년을 살면서 경주를 찾은 것은 지난겨울이 처음이었다. 정신없이 지나간 예비답사. 천년의 고도(古都)에 대한 설렘이 채 가시기 전에 나는 짐을 꾸려 다시 오랜 옛 서울을 찾았다. 경주는 오랜 역사와 많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오랜 시간을 흘러온 현재의 경주는 당시의 역사와 문화재를 고스란히 남기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경주는 그 흔적들로 이곳이 바로 신라의 서울이고, 그 안에 만연한 기운들로 자신의 가치를 말하는 듯 했다.

이번 경주 방문이 그리 낯설지 않았다. 국가의 도움지라고 보기에 너무나도 조용하고 쓸쓸했던 지난겨울. 그때 석굴암에서 맞은 아침 해는 쓸쓸해 보였고 불국사, 동리•목월 문학관, 포석정들도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지난겨울 스산한 밤공기를 느끼며 경주를 찾은 것과 달리 따뜻한 봄기운과 봄꽃들이 두 번째 경주 방문을 반겨주고 있었다. 경주는 학생들의 여행과 답사들로 북적북적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당대 서라벌에서의 신라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났고 그로인해 활기찬 옛 서울의 정취를 약간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신라 시대의 건축물과 현대의 건물들 사이에 존재했다. 눈에 보이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어울림이 있었다. 불국사를 찾은 많은 현대의 사람들은 커다란 불상 앞에서 합장을 했다. 사람들의 알록달록한 현대의 복장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불국사를 찾아 기도를 했던 사람들 역시도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그곳에서 만난 문학도 오랜 옛 서울의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 시대의 글과 당대의 글 속에는 시대는 다르지만 신라가 존재한다. 나는 그런 글들을 통해 옛날의 경주와 오늘의 경주를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비록 터만 남아있는 곳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경주에서 만난 문학들 속에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뻑뻑하게 진행된 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는 없었다. 더욱이 화창한 봄날, 활짝 핀 꽃들은 갈 길 바쁜 우리 일행의 눈길과 발길을 잡아끌었다. 경주를 방문하기 전 찾은 안동에서는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활짝 핀 봄꽃을 찾을 수 없었다. 위치적인 차이도 있었지만 안동에서 우리가 찾은 곳은 산에 둘러싸이고 산을 끼고 있었다. 그에 반해 경주는 많은 산이 도시 외곽을 둘러싸고 있고 도심지는 한 나라의 수도로 위치하기 충분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우리의 답사 일정이 날씨가 좋았던 까닭일까 이번 답사 역시도 활짝 핀 벚꽃과 함께 할 수 있었다.

매년 답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알지 못했던 지역으로의 여행이 새로운 볼거리와 먹을거리 그리고 생각할 것들을 만들어준다. 그것은 역사일 수도 있고 우리 전공과 관련된 문학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일 수도 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일말의 배움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문학탐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국어국문학과 답사가 나에게 매년 새로운 도전이고 배움터였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다. 지금까지의 답사는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새로운 배움에 대한 도전을 할 계획이다.

<답사 후기>

20081126 유민우

<발표 느낀점>

우리 조가 발표하게 된 부분은 "연오랑과 세오녀"였다. 연오랑과 세오녀설화는 어렸을 때

동화책으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 기억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생소한 이야기인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설화건 동화건 이야기를 읽어보기만 했지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현장에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설레임도 있었다. 특히 사전조사를 했을때 아주 큰 손바닥모양의 조형물을 보았는데 사진이 굉장히 멋졌기 때문에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기대도 많이 되었다. 도착하고 보니 조형물이 썩 예술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큰 조각은 그리 흔하게 볼 수 없는 것이기에 매우 멋있다고 생각 됐다.

마지막 발표조가 우리 조 였기때문에 어찌 보면 클라이막스를 장식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재일이 형이 간단한 연극형식으로 하자고 해서 콩트같은 발표를 하게 됐다. 그 연극이 물론 잘됐을리 없지만 모두가 즐겁게 봐준것 같아서 기분은 좋았다. 또 우리가 갔던 호미꽃에는 유채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있어서 처음보는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고생스런 답사이기도 했지만 눈으로만 보던 것의 현장을 직접 찾는 좋은 경험이 된것 같다.

<답사 후기>

원래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어서 답사를 막상 갈 때가 됐을 때는 귀찮기만 했었다. 그리고 대학 생활도 아직 적응이 안 되었을 때였고 동기들과도 다 친해지지도 못했는데 얼굴도 모르는 선배들과 어울려 지낸다는 것도 어색해서 가는 것이 좀 싫었다. 하지만 첫 목적지였던 하회마을에 도착했을때 그런 불만은 눈 녹듯 사라졌다. 실제로 사람이 거주한다는 하회마을의 매화꽃들은 정말 아름다웠다. 일본의 벚꽃을 보고 우리나라에는 그와 겨룰 꽃이 없을까 하고 내심 질투하던 나였기 때문에 매화꽃의 아름다움에 굉장히 감탄했다 말로만 듣던 불국사에 갔을때는 엄청난 인파에 놀랐고 그 엄청난 규모에 한번 더 놀랐다. 사실 불국사는 전부터 한번쯤은 가보고 싶었던 곳이긴 했지만 너무 금방 이동해서 아쉬웠다. 그리고 김시습과 관련된 유적 역시 시간 관계상 다 보고 오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

그 외에도 주왕산과 안압지의 절경이 또 기억에 남는다. 처음엔 대화를 나누기도 어색하긴 했지만 같이 지내다보면서 어느 정도 얼굴을 익히니 그래도 여러 사람과 조금 친분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도 여러 사람들과 좋은 장소에 가서 머물 일이 생기면 꼭 참가하고 싶다.

<답사 후기>

20081118 손수지

처음 조 발표의 주제가 정해진 날 ‘연오랑 세오녀’라는 말에 그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조사를 하게 되면서 이런 설화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연오랑 세오녀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연오랑이 바위에 끌려 일본으로 가서 임금이 되고 세오녀도 남편을 따라 일본으로 가면서 조선(신라)의 해와 달이 사라졌다. 이를 본 조선의 임금이 그 둘을 데려오라 사신을 보냈지만 임금이 된 연오랑은 갈 수 없게 되자 그의 아내인 세오녀가 짝 비단을 가져가라 이른다. 사신이 비단을 가져가서 임금에게 드리자 다시 조선에는 해와 달을 찾게 된다. 이는 해와 달의 근원신화라고도 한다. 처음에 이 설화를 읽었을 때 재밌다는 생각을 했다. 갑자기 해초를 캐던 연오랑이 바위가 움직여 일본까지 갔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로 인

해 해와 달이 없어졌다는 것도 재밌었다. 우리가 조사한 연오랑 세오녀는 마지막날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연오랑 세오녀 비가 있었다. 그 앞에서 우리 조는 연극으로 연오랑 세오녀를 발표했고, 살짝 부끄러웠다. 그래도 재미있었던 경험이었다. 그 후 앞에 바닷가에 나갔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바위를 타고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직접 가서 보고 나니 더 이해가 잘 되었고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것도 알아서 재밌었던 여행이었다.

<답사 후기>

20081137 전아름

나에겐 절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첫 문학탐방이 끝났다. 포기만이 가득했던 전날의 마음으로는, 서울에서 도산서원까지 스스로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안동에 도착한 후, 시내버스를 타려는데 백 원을 더 내라는 버스기사 아저씨의 호통에 움찔했다. 불안함과 낯선, 그래도 할머니 냄새가 가득한 시내버스 안에서 조금은 안정이 되었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가 도산서원에 도착했지만 정작 구경은 못해 아쉬웠다. 게다가 마지막 날은 과음한 탓에 정작 우리 조가 조사한 곳은 가지도 못했다. 내 얼굴이 나오지 않은 단체사진만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 조 발표인데, 가야 하는데……’하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다녀 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설화 내용의 이해가 잘 된 발표였다고 한다. 다른 조와는 차별화된 독특한 방식으로 발표를 했다. 연극이었다. 발표를 하기 싫은 마음이었다면 안가길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궁금했다. 인터넷 검색 엔진에 ‘연오랑 세오녀’를 치기만 하면 나오는 그 장소를 직접 가보고 싶었는데 말이다. 이렇듯 처음과 끝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탐방이었다. 단체로 가는 여행이 늘 그러하듯, 빠듯한 일정 속에서 모든 내용을 소화해 내는 것은 힘들다. 그래, 도산서원도 호미곶도 만약 갔더라도 그랬으리라 여기고 아쉬움에 마침표를 찍어야겠다. 탐방 일정 속에서 기억에 남았던 건, 시인 조지훈의 생가에 가서 투덜거리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에 유년시절 피터팬을 읽을 정도였다면, 환경이 좋았으니까 글도 잘 썼겠지.”라며 빈정거렸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렴하셨다.”는 오춘택 교수님의 말씀에, ‘그래도 영향은 있었겠지.’ 하는 생각과 ‘자세히 관찰하지 못한 나의 불찰일 거야.’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 나중의 생각이 더 굳어져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답사 후기>

20021137 송재일

2006 년 1 월 30 일. 포항 호미곶. 해맞이 행사를 하는 곳. 한반도 호랑의 꼬리부분. 이외에 다른 것은 알지 못했다.

2007 년 1 월 23 일. 포항 호미곶. 손모양의 상생의 탑이 있으며 연오랑과 세오녀 동상은 봤

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처음엔 견우와 직녀가 했다.

그리고 2008년 4월 5일 포항 호미곶. 매년 해맞이 행사를 하는 곳이며 손모양의 상생의 탑으로 유명한 곳이다. 또한 이곳은 우리나라 유일의 日月신화인 <연오랑세오녀설화>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이렇듯 포항 호미곶을 세 차례나 다녀오면서 비로소 이곳이 한국문학사적으로 중요한 곳을 인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연오랑세오녀설화>에 대해 조사, 공부하면서 <연오랑세오녀설화>가 단지 연오랑과 세오녀가 빛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설화의 그치지 않고 연오랑과 세오녀의 이름이 지닌 까마귀에서 이어지는 의미, 그리고 해와 달, 비단이 철기문화를 나타낸다는 상징성에 대해 알 수 있으며 포항 주변 지명이 대부분 이 설화에 바탕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상징성에서 이어지는 삼국시대의 우리나라의 역사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가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대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때문에 이번 포항 호미곶 답사는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몇 번 지나온 곳이라 달갑지 않게 생각되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마치 처음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녀온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항 호미곶 답사가 더욱 의미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 날 다들 피곤한 상태의 발표라 내용을 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됐지만 포트 형식을 통해 다른 학우들에게 <연오랑세오녀>설화란 이런 것이라고 알려줄 수가 있어 같은 조원들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에 다시 포항 호미곶을 누군가와 가게 된다면 해맞이 뿐 만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연오랑 세오녀>설화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답사 후기>

마지막 탐방, 하지만 끝이 아닌-

20051127 윤 숙

이제 4학년이기에 교수님들과 여러 학우들이 용기종기 모여 답사를 갈 일은 마지막이지 싶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답사는 뜻 깊은 답사로써 기억되어야 마땅하다.

처음으로 학우들 스스로의 힘으로 답사일정을 짜고, 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많이 미숙했지만 이러한 미비한 시작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깨닫고 돌아왔음으로 가슴만큼은 한 없이 벅차다. 우리의 힘으로 3박 4일 동안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되도록 많은 것을 눈과 피부와 머리와 가슴에 기억시키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행착오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해 하는 답사부장들과 회장단을 다독이며, 사고 없이 그리고 모든 학우가 전부 어우러져 훨씬 더 친숙해지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컸던 것 같다.

이제 다음 한 학기를 마치면 정들고 4년 동안 살을 부비며 지내왔던 나의 벗, 그리고 나의 스승님들과 동떨어져 새롭게 한발을 내딛어야 할 시간이 올 것이다. 성큼성큼 다가와 버린 그 시간 앞에,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법, 그리고 주위 사람을 보듬어 주는 법을 배울 수

있던 이번 답사가 많이 고마울 것 같다.

달근한 향기와 아찔한 색으로 내 마음과 너희 마음에 모두 흐드러져 물들어버린 벚꽃의 발그레함을 기억하자. 두 눈이 멀도록 빛나던 유채꽃의 생생함을 기억하자. 이미 우리가 있기도 전의 시간에서 우리가 반해 버린 그 곳들을 사랑했을 그 분들의 가슴을 닮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되도록 오랫동안 기억하러 애써보자.

<작품>

한 국 문 화 탐 방

20041139 박은서

3박 4일간의 답사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우선 일정 자체가 타이트 하지 않아서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예년보다 답사한 곳을 세세하게 체크하며 볼 수 있었다. 답사를 출발하기 전에 춘천은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답사 기간 내에는 날씨가 좋기를 바랬는데, 춘천을 벗어나 아래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해가 우리 국문과를 반겨주는 듯 했다. 오히려 날씨가 화창하여 따스함을 느낄만큼 여러곳을 돌아다니기에는 최적에 날씨였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춘천에서는 보지 못한 꽃과 나무들을 보다 일찍 인사 할 수 있었고, 경주로 들어설 때에는 도심 한 가운데서부터 벚꽃들이 활짝 피어 있어 고단한 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푸르른 산의 절경과 탁트인 바다의 향기를 음미하고 있자니 내 마음도 답답한 학교생활을 잠시나마 잊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여러 문인들이 살던 생가와 마을 그리고 문학관과 여러 흔적들을 되짚어 가며 그대들의 마음을 다는 아니더라도 그 분위기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어서 답사 일정이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소중한 뜻깊은 여정일 수 있었다. 여러 책속에서나 들은 이야기에서 그냥 조용하게 흘러갔던 여러 조각의 퍼즐들의 배경이 왜 그러한지를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여가며 주저리 주저리.. 대며 읊조리던 기억이 문득 스쳐지나간다.

답사기간 내내 과 인원을 총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 비추어 보면 답사 중간중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어 조마조마한 가슴을 쓸어내리기가 참으로 힘들었다. 하지만 답사일정 자체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기쁜 마음을 스스로 되새겨 본다.

그 중 가장 기뻐던 것은 위에 언급한 청량산을 더너온 일정이었었는데, 건강이 좋지 못한 친구, 고소공포증이 있어 산을 오르기 꺼려하는 친구들을 독려해서 낙오자 없이 산을 오른 기억이 문득 떠오른다. 100m 만 걸어가면 도착한다고 거짓말 하며 반복하기를 수차례, 저기 앞에 절이 보이지 않느냐며 아이들에게 애써 웃긴 이야기 하고 썰렁한 이야기를 번갈아 하며 마침내 도착하게 되었다. 숨을 헐떡이면서도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매쳐있는 가운데서도 결국엔 올라왔다는 안도감에 한숨 쉬며 웃는 아이들을 보니 그제서야 내 몸도 마음도 안도감에 긴장을 누그러트릴 수 있었다.

돌아오는 차안 모두가 피곤한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예비 답사를 가며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3박 4일간의 일정을 누구하나 짜증내지 않으며, 고단한 여정을 군말없이 따라와준 국문과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본다.

<작품>

여행

20051117 박은희

한걸음, 한걸음이 고행이다. 한발자국만 잘못디디면 가파른 경사 길로 떨어져 심하게 다칠 것 같다. 평소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나는 말로 할 것도 없다. 두려움에 잔뜩 움츠리고 길만 따라 걷고 있었다.

뻥뻥이 들어선 나무들과 가파른 언덕.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는 하나의 난관이고, 고생문이었다. 커다란 바위는 이끼 때문에 미끄러웠다. 어두운 나무 사이에선 꼭 귀신이라도 하나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크로스오 맨 가방끈을 더욱 짊어잡으며 위로 향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다 못해 부서질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 오를 것 같은데... 정상이라는 녀석은 쉽게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올랐을까. 중간 중간 나무계단이 보인다. 그 위에는 내가 그렇게도 바라던 물이 커다란 돌 안에서 넘치도록 흐르고 있었다. 한걸음에 달려가 시원한 물을 한 모금 입에 물었다. 그 순간 느껴지는 청량함이란! 과연 그것을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바짝 말라있던 입술에 촉촉한 생기를 불어넣고, 톱툰하게 말라있던 혀에게 생명을 주었다. 장작처럼 바짝 말라있던 식도에 생기를 불어넣고, 엔진과열로 인해 터질 듯이 두근거리던 심장을 차갑게 식혀주었다. 그 순간 이 약수 물 한 모금은, 천상의 어떠한 약과 비교될 수 없는 명약이었다.

쉬지 않고 물을 마시고, 위로 이어져 있는 나무계단을 봤다. 나는 선택을 해야 했다. 지금 편하게 쉬고 내려가면, 적어도 몇 시간은 편하게 쉴 수 있다. 하지만 저곳을 올라가면 더 힘들지도 모른다.

순간 고민에 빠졌다. 다리와 몸은 내려가자고 말하고 있었다. 두근거리는 심장과 움칠거리는 다리 근육이, 더 이상의 혹사는 무리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지나온 거리와 다시 올라가야 하는 곳의 거리를 재봤다. 월등히 내가 지나온 길이 짧았다. 그래서일까. 나는 더욱 오기가 생겨버렸다. 제까짓 길이 길면 얼마나 길겠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포기하기엔 모든 것이 아까웠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잡아끌면서 걸음을 옮겼다. 곧 내 결정을 후회했다. 적을 것이라 생각했던 나무계단이 의외로 많은 수를 자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노랑고 반듯하게 세워진 계단은, 천국으로 향하는 직행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걸어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오냐, 내가 걸어주마! 하는 이상한 오기와 함께 나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또 얼마나 걸었을까. 산 위에 구름과 함께 수 십 개의 연등이 나를 반기고 있었다. 산에 구름이 걸린 듯 위험한 절벽의 끝에 세워진 높은 탑과 아름다운 모습의 전각이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절경을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나는 이러한 모습을 한 호흡이라도 놓칠세라. 눈을 부릅뜨고 절경을 바라보았다. 새파란 저녁노을 사이로 붉은 햇살이 높은 탑 위에 걸려 있었다. 햇별의 위용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검은 탑은 웅장하게 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나는 육체의 고통도 잊고, 후다닥 산으로 나는 듯이 올라갔다.

산 위에서 보는 절경은 고소공포증인 나도 넋을 잃고 볼 정도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단지 그 순간에 젖어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청량한 바람이 불고 어디선가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개를 돌려 절을 봤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바람이 다시 부는 순간, 종소리가 저 멀리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절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아래서 본 듯이 절이 있었다. 절위에는 역시 연등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연등을 따라 걷는 순간, 보았다. 청록색 녹을 자연스럽게 몸에 걸치고, 유유히 하늘을 날고 있는 물고기를…….

그 물고기는 맑은 하늘을 노니면서 이따금씩 맑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바람과 장난이라도 치듯이 유유히, 그리고 아름답게 노닐고 있었다. 어린 날의 그날처럼.

그 순간 내가 왜 이 절에 올라왔는지 기억났다.

기억도 제대로 생각나지 않는 어린 시절. 나는 이곳에 왔었다. 눈처럼 하얀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이 절을 찾아왔었다. 나는 그런 엄마가 무서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있었다.

눈처럼 하얀 엄마였는데. 그날은 눈보다 더 하얗게 변해서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 손을 꼭 쥐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모습에서, 어린 나는 무엇을 느낀 것이었을까. 울음조차 흘리지 못하고 뒤따라가는 나를 엄마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니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리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 위 정상. 이 절에서 엄마는 나에게 물고기를 보여주었다. 그 물고기는 어린 나에게 너무 높은 곳에서 노닐고 있었다. 작은 키로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손가락을 꼬물거리는 나를 내버려두고.

엄마는 눈보다 더 하얀 사람이 되어 내려갔다. 나를 내버려두고. 그렇게 떠나갔다.

추억이 하나 둘 떠올랐다. 유복하지 못했던 집안과 학대. 그리고 나. 모든 것은 엄마를 힘들게 하는 추억이었다.

나는 이곳에 다시 돌아와야 했다.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회귀하듯이. 나는 이곳에 다시 와야만 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이곳. 그리고 끝을 맺어야 하는 이곳에서.

따뜻한 물이 내 볼을 스치듯 지나간다. 눈물이 흐른 곳은 너무도 쉽게 차가워지고 있었다.

“이곳에 와야 했어요. 그래야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으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래요. 그럼 내가 비참해지잖아. 하지만 알 수는 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편히 쉬어요. 엄마.”

풍경을 향해 작게 손을 모으며 기도했다. 파랗게 변하는 하늘 너머로 맑고 고운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작품>

한국문학탐방

국어국문 20051114 박경남

초봄의 따뜻한 기운과 함께, 3학년이 되어 처음으로 문학 탐방에 가게 되었다.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이 부담이 되기도 했고, 한국 문학의 역사를 눈으로, 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다. 복잡한 심정과 함께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탐방은 시작되었다.

예전에 안동에 한번 가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 안동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는데 맨 처음 도착한 안동 하회 마을을 돌아보니 예전과는 또 다른 느낌이 들었다. 아기자기하게 지어진 예쁜 한옥들과 함께 한국적 색채가 짙은 풍경들에 감탄을 하며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는데 세계 어떠한 다른 유명한 건물들에 비해서 안동의 한옥도 빠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기와는 유선형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옥 특유의 고유한 색채와 함께 이루어진 지붕의 모양은 새색시의 수줍은 모습마냥 단아하고 청초해보였다. 안동은 마을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 그런지 한국적 멋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았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구경을 하다가 늦어져서 헐레벌떡 버스에 뛰어갔던 기억이 난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육사의 시도 탐방에 와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다. 탐방에 와서 느낀 건 수업 시간에 의자에 앉아 배우는 것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배움은 다른 것 같다는 것이었다. 오감으로 느껴지는 탐방에서의 시간들은 책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깊게 마음에 와 닿았다. 물론 책으로 보는 수업도 필요하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보고 느끼는 수업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탐방을 다녔던 3박 4일의 시간동안 정말 많은 곳을 다녔는데, 하루에도 몇 번 이상 계속 이동하며 돌아다녔기 때문에 발도 까지고 다리도 붓고 피곤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좀 더 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치있는 경험들을 만들어낸 것 같다. 좋은 문학적 경험들과 함께 그 시간 안에서 호흡하며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던 이 시간들은 마음 깊이 남을 것 같다. 또한 탐방을 통해 그 전까지 몰랐던 좋은 선배님들과 예쁜 후배들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무척 즐거운 경험이었다. 4월 초순의 따뜻했던 봄 날씨만큼이나 기분 좋았던 탐방이었다.

<작품>

한 국 문 화 탐 방

20081144 한혜림

대학교를 들어와서, 또한 내 생애 처음으로 답사를 다녀왔다. 그저 마냥 설레었던 기억밖에 나지 않는다. 이번 답사는 경북지방을 돌아보는 것이었고 4월 2일. 그렇게 3박 4일의 길고도 짧은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처음 우리가 간 곳은 안동 하회마을이었다.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시절 교과서의 사진으로만 접하고 매체를 통해서만 보았던 하회마을의 모습은 생각보다 아담했었다. 그리고 병산서원을 거쳐서 내가 조사했던 퇴계이황의 도산서원에 도착했다. 처음 발표하는 입장이다보니 너무 떨어서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저 머리에서 떠올랐던 여러 생각들을 두서없이 막무가내로 발표하고 마지막에는 후회했던 기억 밖에는 나지 않는다. 고등학교 때 앞에서 발표를 그렇게 많이 해보고 모르는 사람도 없었는데 뭐 그리 떨었는지..... .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지만 그 때 그 상황은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답사 기간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행복했었던 것 같다. 맑은 날씨와 만개한 벚꽃, 푸르른 나무들과 새파란 하늘, 그렇게 모두가 환상적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농암 종택과 주왕산 그리고 국립 경주 박물관이었다. 농암 종택을 둘러싸고 있던 산과 강, 맑은 물, 멀리보이는 정자까지 정말 옛날 사람이었다면 분명 시한 수를 지었을 정도로 충분히 아름다운 곳이었다. 주왕산은 사실 기대하지 않고 갔다. 산을 오른다길래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화를 냈을지도 모른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산길보다는 잘 정리된 오솔길 같이 편했고 주위의 산은 커다란 바위와 함께 조화 되어 너무도 멋있는 경치를 보여주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는 등산로 밑에 보이는 계곡 물이 어찌나 맑던지 정말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었다. 가다보니 밑에는 계곡이고 다리만으로 되어있고 주위는 온통 바위인 곳이 있었다. 물소리를 들으니 기분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다. 마냥 기분이 좋았다. 그 길을 지나니 계곡물에 손발을 담글수 있는 곳이 있었다. 산을 더 올라가고 싶었지만 우리 일행은 그곳까지만 갔다. 계곡 물에 손을 담갔다. 너무나 시원한데다가 기분까지 좋아졌다. 물장난을 하고 싶어서 소심하게 물도 튀겨보았다.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 그곳은 사실 가보았던 기억이 꽤 많다. 하지만 가도 가도 새롭게 볼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이 느껴졌다. 새로운 건물도 생긴 것 같았고 또한 사진 찍을 풍경 또한 멋있게 자리 잡아서 정말 햇살을 받으며 그 상태로 즐겼던 것 같다. 그 외에도 답싸움을 하던 바닷가와 여러 곳들, 심지어 숙소까지도 너무나 즐거웠던 추억이 담긴 것 같다. 첫 답사를 통해 내가 몰랐던 작가의 생활과 작품, 존재하는 생각까지도 모든 것이 신기했고 새로웠었다. 비록 장시간의 버스생활로 신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나 많은걸 채울 수 있었던 기회를 갖게 되어 무엇보다도 참으로 뜻 깊은 답사였다.

<작품>

발자국

한 혜 립

도산에 내 발자국을 남긴다.
퇴계의 자취가 남겨진 곳에.

불국사에 발자국을 남긴다.
아사달과 아사녀의 사랑이
남겨진 곳에.

주왕산에 발자국을 남긴다.
맑은 물과 나무, 꽃 나의 미소가
남겨진 곳에.

언젠가 다시 찾기를
기약하면서
나는 발자국을 남긴다.

<작품>

태양이여

20081101 강주희

이른 아침
고요한 하늘은
차디찬 바람을 일며
파랗게 식어있었다.

그 안에선
뜨거운 태양이
붉은 기운을 품고
커져 가고만 있었다.

그 얼마나
기다려 왔던가
붉은 기운을 품고
구름 사이를 가르다.

어느 새
차가운 하늘은
붉게 물들어 버리고
새아침이 열리고 있었다.

위의 시는 일출을 보러갔을 때를 떠올리며 쓴 시이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느꼈었던 감정을 현대사회의 모습과 그 안에 내가 바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담고 싶었던 내용은 이러하다.

1 연은 이기적이고 냉철하기만한 사람들로 가득한 개인주의 사회를 표현한다. 2 연의 태양은 그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표현한다. 나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존재이다. 하지만 냉정하고 냉철하기만 한 그 사람들 속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진 내가 쉽사리 나아가지 못한다. 결국에는 내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로써 사랑을 전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회를 따뜻하게 만든다. 나의 기운을 주변에 퍼뜨림으로서 그렇게 따뜻함이 퍼져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더 이상 개인주의가 아닌 서로를 생각해주고 사랑이 넘쳐나는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작품>

답사를 다녀와서

20041184 한상우

한국문학탐방이란 수업이 있는지는 올해 들어 처음 알게 되었다. 예비답사 때 이번 답사를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답사수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답사 이전의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우리조가 맡은 작가를 조사하고 또 다른 조의 발표를 들으면서 그 동안 수박겉핥기 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작가들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였다. 그 작가들에 대해 말로 듣는 것보다 그 작가들이 지냈던 곳을 가서 직접 보고 느껴봄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쌓고 오래토록 기억 속에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의 한국문학탐방은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정말 알짜배기수업이 아닐 수 없다.

경북지역은 우리가 있는 곳과는 좀 거리가 있어 긴 여행이 될 것 같았지만 처음가보는 3박 4일의 답사에 가기 전부터 여간 들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첫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따스한 봄바람과 아름다운 경치가 우리를 반기자 온몸으로 스며드는 상쾌함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 목적지마다 각 조에서 준비해 온 발표를 듣고 그 후, 교수님의 자세한 설명까지 듣고 나니 그 곳이 다시 보이기도 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보람도 있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지만, 그 짧은 시간동안 우리가 얻어 온 것은 많았을 것이다.

수업으로서의 답사도 유익하였지만 여행으로서의 답사도 즐거운 시간이었다. 몇 년 만에 산에 오르니 힘들긴 하였지만 오랜만에 등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고 삼림욕 후의 상쾌한 기분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경주에 갔을 때에는 가는 곳마다 벚꽃이 만개하여 사진찍기에도 좋았고, 봄이라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아침 일찍 일출을 보러 올랐을 때엔 새해의 일출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감회가 느껴졌다. 이동하면서 낙동강도 구경할 수 있었고 마지막 날, 포항에서는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백사장에서 뒹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처음이었던 이번 답사는 좁았던 식견을 넓히는 좋은 기회였고, 학우들과 교수님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또, 도시생활에만 찌들어있던 나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여행이 되었던 것 같다.

<작품>

정신

국어국문학과 20051106 김선미

죽은 후의 내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분명 기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곳, 이육사 문학관에서 생각하건데 그도 나쁘지만은 않은 인생 아니었을까.

건물 밖 벤치에 앉아 건물을 바라본다. 외진 곳에 사람하나 다니지 않는 곳에 놓여있지만 신식 건물의 외관은 제법 훌륭하다. 거기에 배경으로 펼쳐져 있는 산은 마치 이 건물을 위해 옮겨다 놓은 착각마저 들게 만든다.

종종 이 벤치에 앉아 건물을 바라본다. 이러고 앉아 있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지금은 없어진 내 고향 생각도 하곤 한다. 물론 나 살던 곳이 이런 현대식 건물은 아니었지만 그곳도 이런 산과 밭이 늘어진 곳이었다.

고요한 적막감이 가득하다. 이곳은 항상 이렇게 조용하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날이었다.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이 자리에 앉아 이곳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형차 특유의 커다란 엔진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다. 흙먼지를 풍기며 달려오던 커다란 고속버스 두 대가 문학관 근처에 멈춰 선다. 그리고는 한 움큼의 사람을 쏟아냈다. 물고기 산란하듯 쏟아진 사람들은 저마다 소란스레 떠들며 사방으로 퍼졌다. 그들이 나타나자 지금까지의 적막이 꿈인 양 시끌벅적 소란스러워진다.

‘아아, 간혹 있던 관광객 무리들인가?’ 어안이 병병하다가 이내 깨달았다. 자주는 아니지만 꽤 있다. 이런 외진 곳까지 찾아 몰려오는 무리들. 진지하고 진심어린 감상이 아니라 코스 중에 하나, 이 지방에 온 김에 한번 들렀다 가보는 의무감어린 감상이 주류였다. 평화가 깨지고 거칠게 밀려들어오는 것은 침략에 가까웠다. 좋을 대로 우르르 몰려와 대충 훑고 가는 것 말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그들로는 정당한 돈을 내고 방문을 한 셈이니 어찌해도 상관없을지 모른다.

허나 매일같이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상념을 하는 나로서는 반갑지 않은 손님임에는 분명하다. 하도 오랜 시간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 나로서는 이제 이곳이 나고 내가 이곳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저마다 때를 지어 몰려다니던 이들이 이쪽으로 들이닥친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장소가 조경(造景)이 좋으라고 모양 좋은 나무도 심어져있고 벤치도 있는 곳이고 시비(詩碑)도 있으니 명당인 것은 알겠는데 이곳은 나라는 선객이 먼저 와있다. 그러나 나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당한 채 벤치는 점거 당했다. 더욱이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밀려날 지경이다.

“자, 찍는다!”

그리고 아랑곳 않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어댄다. 밀려나지 않도록 뺨뺨이 버티며 못마땅하게 지켜보았다.

“어머, 미안합니다.”

여자 하나가 그렇게 말하며 내 옆자리를 비집고 앉았다.

“어휴~ 넌 엉덩이가 왜 이렇게 크니?”

편잔을 주며 저들끼리 깔깔 웃는다. 정말이지 요즘 젊은 여자들은 적응하기가 힘들다. 거칠어진 건지 겁이 없어진 건지. 낮이 다 뜨겁다. 그래도 오랜만에 맞은 대규모 손님을 의식했는지 평소엔 꺼두었던 분수대도 작동한다. 잠잠하던 연못의 물이 치솟으며 사방으로 튕다. 물바람과 함께 햇살을 받아 무지개가 뜨고 오랜만에 문학관에 생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이육사 문학관 발표를 맡게 된 2조…….”

‘관광객이 아니라…….’

잔디밭에 모여앉아 얇은 책자를 읽는 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대부분이 파랗게 빛나는 젊은이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짓고 있는 표정은 나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루함, 노곤함, 나른함. 나 젊었을 적엔 상상도 못했던 죽은 눈빛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했다.

시대가 당대의 젊은이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일까. 한창 혈기왕성하고 빛이 나야 할 나이에 그들은 너무 의욕이 없이 따분하게만 보였다.

“청포도, 이육사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돛 단배가 급게 밀려서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흠뻑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시비에 적힌 시를 낭독하는 젊은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시는 이 자리에 앉아 지겹게 본 청포도이다. 그것은 옛적 ‘민족의 정신’을 되뇌면서 열의에 차 부르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의무감과 종이에 적힌 글자를 읽어 내리는 청포도에 정신이 확 드는 것 같았다.

이 나태해질 정도의 평화로운 날들 속에서 이 시들의 의미를 온전히 전하기란 힘들다. 나뻐와는 확연히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듯이 그들도 날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자, 이제 그만 이동하자.”

사내의 목소리가 울리자 내 자리를 점령하고 있던 여자들이 하나 둘 떠나간다. 나는 눈에서 멀어져가는 그들을 말없이 응시했다. 지금까지 그랬듯 이들도 짧은 시간 머물다 가는 이방인들에 불과하다. 나와 이들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이고 아마 두 번 다시 불일은 희박에

가까울 것이었다.

그 때 내 옆에 앉았던 여자가 불쑥 뒤돌아본다. 그 눈이 나를 보는 것인지 시비를 보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잠시나마 마주친 시선 속에서 나는 열의어린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내 후배에게 물려주었던 것이기도 한 것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았음에도 지금껏 찾을 수 없던 불꽃을 떠나가던 낯선 이에게서 발견하였다. 아마 영영 사라졌거니 하던 그 것은 어딘가에 남아 조용히 타오르고 있던 것이었다.

어찌되었든 나는 이미 없지만 나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기쁘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곳, 이육사 문학관에서 생각하건데 분명 나쁘지만은 않은 인생 아니겠는가.

그제야 보이지 않을 미소를 띠며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였다.



<작품>

잊지 못할 탐방

국어국문학과
20051121 변민영

4 학년 1 학기 수업이 시작될 무렵, 친구들은 나에게 졸업여행도 갈 겸 추억도 쌓을 겸 탐방 수업을 같이 듣자고 제안하였다. 그때만 해도 난 탐방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터라 그 이야기를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었다. 하지만 친구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탐방의 문을 두드렸다.

이렇게 하여 탐방을 가게 된 첫 날, 나에게서는 잊지 못할 날이 생겨버렸다. 그건 바로 산을 올라간다는 것이었다. 산은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높지 않은 산도 일사병이 심해 오르지 못해서 항상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곳이었다. 그런 곳이기에 산을 오르자는 말에 일단 뒤로 자리를 빼버렸다. 그렇게 해서 산을 올라가다 포기하던가 아니면 산을 아예 올라가지 말자 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도 잠시 선배들과 교수님에게 붙잡혀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선미와 희경 이, 그리고 교수님, 상우오빠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힘이 빠져서 헉헉거리면서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다. 신발도 질질 끌기 시작하고, 옆에 있는 선미와 말만 많아졌다. 그걸 보더니 교수님은 얼른 올라가서 쉬자는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너무 지친 나머지 바위 위에 주저앉자 교수님께서서는 딱 10 초만 쉬자고 농담을 던지셨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산자락에 있는 절에 도착한 나와 선미는 의자에 그대로 축 늘어지게 앉고는 오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등 마는 등 했다. 하긴 이렇게 가파른 산을 그만큼 오른 것은 내 일생일대의 처음 있는 일이니 더욱 그랬을 것이다.

20 분정도를 앉아만 있다가, 친구들과 사진을 열심히 찍어대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의 사진을 담아낸 카메라만 해도 핸드폰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족히 5 개는 넘었을 정도니 얼마나 사진이 많았을지 상상이 되고도 남는다.

그렇게 정신없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느새 절에서 내려가야 하는 순간이 와버렸다. 그때만큼은 뭐가 그리 아쉬운지 사진기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다. 조금만 더 일찍 올라올 걸 그랬나보다. 그러면 사진을 좀 더 많이 찍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도 잠시, 그 다음 날 산에 올라가는 코스가 있었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산에서 숨쉬기 힘들었던 기억만 새록새록 나서 그 코스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지만 내가 성인이 돼서 산에 올라가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보는 또 다른 틀

20081113

김희찬

처음에 답사를 가기 전에는 어차피 대학이니까 다른 행사처럼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답사라는 것은 그저 명분에 지나지 않는 여행을 떠올렸었다. 어차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지 못했으니 답사를 가는 기회에 선배나 동기들과 친해져야겠다는 생각만 했었다. 하지만 답사를 가기 전부터 발표 준비를 하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는데 막상 답사를 다녀오고 나니 생각이 크게 달라졌다.

첫날 아침. 준비한 발표를 신입생들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조금의 부담감과 나른한 일상을 떠나는데 대한 설렘, 여행에의 즐거움 등 여러 가지 생각, 감정과 함께 출발했다. 처음 도착지는 안동의 하회마을이었는데 유명한 곳이지만 솔직히 와볼 기회가 없었다. 유명한 하회탈과 함께 민속촌을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 진짜로 사람이 살줄은 몰랐다. 속은 현대식으로 하고 겉모양만 과거의 형태로 집을 짓고 사는것 같은데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관광객을 위해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국문학도로서 텍스트로만 봐왔던 탈춤공연을 실제로 관람하는지 알고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관람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조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도산서원에서 퇴계 이황에 대해 1 조가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한시간 뒤에는 내가 직접 발표해야 한다는것에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국문학과와의 답사라는것이 어디까지나 문학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행한다는것에 대해 실감하기 시작했다.

이육사 문학관에 도착한 뒤 내가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떨려서 처음에는 제대로 문학관을 볼수가 없었는데. 발표하고 나서 여유롭게 살펴보니 외관도 자연과 어우러지게 잘 꾸며놓았고 특히 시비가 있었는데 경관과 잘 어울리게 설치해 놓아서 흐뭇한 기분이 들었다. 이육사에 대해 발표를 준비하면서 고등학교에서의 입시 위주의 정보와 다른 순수한 시 자체만을 놓고 본 관점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문학관에 와서 소박한 이육사에 생애를 보면서 고향을 노래한 청포도라는 시가 저항시가 아니라 그저 고향을 노래한것 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숙소에 도착하고 난 뒤에는 저녁식사를 하고 잠깐 휴식을 갖은 후에 술자리가 이어졌는데 이름만 알고 있었거나 이름도 몰랐던 선배들과 친해지게 되었다. 역시 친해지려면 술자리만한 것이 없다는 말이 틀리진 않은 것 같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는데 첫날은 재미있었다. 둘째 날은 첫날의 청량사에 이어 주왕산을 올라간다고 해서 두려웠는데 다행히 첫날에 비해 편했고 경치도 수려했다. 문학과 관계없이 들른 몇 안되는 장소중에 하나였는데 와볼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다. 과거의 선비들이 그런 경치를 보면서 시조를 지었겠거니 라고 생각하니 자연의 풍류를 잘 나타낸 시조들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듯 느껴졌다.

세 번째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구경했는데 전날 마신 술이 숙취가 덜되어서 상당히 고생했다. 그래도 거의 다 일찍 일어나서 나온걸 보니 대학에 오고 나이도 더 먹었으니 좀더 성숙된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새삼 피부에 와 닿았다. 밥을 먹고 나서 불국사를 갔는데 어렸을 때 왔을 때랑 많이 달라보였다.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보존이 잘 안 되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라는 게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도 하고 말이다. 신라의 대표적 문화재 불국사를 좀더 신경써야 할 것 같다.

마지막 날에는 가볍게 연오랑세오녀 발표를 듣고 집으로 돌아 왔는데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여행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인 문학 위주의 여행을 하면서 그것과는 또 별개로 나 개인 의 인생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돌이켜 보게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좀 더 계획적 으로 생활하고 늘어난 책임감은 물론이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여행을 하면서 나 자신의 세상을 보는 틀 또한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하지 않았나 싶다. 끝으로 고생한 교수님들과 선배들, 동기들 에게 감사하다.

<작품>

봄의 시작점에서

국어국문학과

20051109 김인혜

아침 8 시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안동으로 갔다. 춘천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사는 나로서는 그렇게 아침 일찍 출발하는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전날 도착해 있어야 했다. 친구의 작은 자취방에서 몸을 구긴 채 하루를 지내고 새벽 일찍 춘천의 아침 공기를 마셔본다. 대학 4 년 동안 이렇게 이른 아침의 춘천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새벽의 찬 공기가 온 몸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상쾌함을 느끼며 난생 처음 가는 답사의 첫날이 시작됐다.

졸업을 앞둔 4 학년의 마지막 여행은 수학여행을 떠나는 여고생 마냥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첫날의 일정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온 후 너나 할 것 없이 모여 친구들끼리의 밤을 보냈다. 수업의 연장이라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았던 듯 여행이 주는 신선함은 모두를 변하게 하는 것 같았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가는 곳곳에는 봄의 흔적들이 가득했다. 내가 다닌 춘천에도 이렇게 꽃이 많았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만큼 그 곳의 봄은 춘천의 나를 잊게 만들었다.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내리고를 반복하며 쉴 새 없이 돌아다녔지만 새로운 곳의 풍경을 담기에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짧았던 것 같다.

둘째 날이 돼서 가게 된 농암 종택은 그 앞에 흐르던 낙동강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분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 곳은 농암 선생이 태어나 자라고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2000 여 평 대지의 넓은 농암 종택과 그 앞에 흐르는 분강을 구경하기에 30 분으로 정해진 짧은 시간은 그 곳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했었다. 버스를 타고 돌아서 도착한 농암 종택은 농암 선생이 실제로 걸어 다녔던 길과는 다른 곳이라고 했다. 단체로 여행을 온 것만 아니라면 농암 선생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어보는 것도 좋았을 거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친척이 살고 있던 곳이 안동이였기에 종종 들르곤 했었는데 하회마을을 제외하고 이렇게 많은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비로소 새로 알게 되었다. 그렇게 안동에서의 답사 첫 여행은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안동을 비롯한 경주, 포항을 거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정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했다. 버스를 타고 잠깐씩 내려 구경을 하고 발표의 내용을 듣는 것이 전부였으나, 잠깐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그 곳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수학여행으로도 자주 가본 경주로 출발했다. 안동에서 경주까지의 거리가 꽤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난다. 가는 내내 지쳐있던 모습들이었지만 경주에서의 여행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 피로도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 수학여행으로 많이 오는 장소인 만큼 우리가 도착했을 당시에 수학여행을 온 초등학교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 것 같은 초등학교 시절에 들렀던 불국사를 도착했을 때,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무언가를 느끼는 듯 했다. 역시나 짧은 시간 탓에 바글바글한 어린 아이들 틈 사이로 간신히 구경했던 불국사는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그 외에도 안동과 경주를 오가며 여러 작가들의 생가와 문학관을 둘러보았는데, 실제 작

가의 생각을 둘러보는 동안 마치 내가 아는 누군가의 집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다. 마치 시골의 할머니 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김동리, 박목월 문학관에는 두 작가의 서재가 차려져 있었는데 사진으로 찍으면서 마치 그들이 그 안에서 글을 쓰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 보기도 하고 작가의 작품들을 둘러보며 각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익숙한 곳이라 여겼던 답사의 일정은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점차 새로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렇게 뻑뻑했던 답사의 일정도 거의 끝이 나고 있었다. 춘천으로 떠나는 통학 기차를 타고 다니는 나로서는 매일 매일이 여행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마음먹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다. 4 학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선택한 답사라는 여행은 나에게 즐거운 경험이었다.

춘천의 4 월은 아직 찬바람이 불어 쌀쌀함이 있었던지라 가는 동안에도 날이 춥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봄의 공기는 찬바람을 감추고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봄의 시작을 함께 한 대학시절의 마지막 여행은 4 년간의 기억을 한꺼번에 정리해 주고 있었다. 이제는 여름을 향해 가는 지금, 아마도 2008 년의 봄을 당분간은 잊지 못할 것 같다.

<작품>

산

20081125 우상진

산을 오르는 것은
인생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한 발짝 내디면
오르막길이 있고
한 발짝 뒤로가면
내리막길이 있다

오르는 오르막길에
힘이 많이 드는 것은
앞에 있는 내리막길을 위해
그 평온함을 위해 있는 것이다

오르막 바위가 나를 힘들게 할때면
내리막 산바람이 나를 편하게 한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 같아서
힘들고 괴로운 일뒤에
즐거운 일들이 숨어있다.

<작품>

농암의 마음

20051140 조혜근

2005 년부터 시작 된 ‘한국문학탐방’이란 과목으로 말미암아 매년 4 월마다 전국을 돌아다닌 것도 올해로 3 차례에 접어든다. 몸이 고되긴 하지만 육체적 고통에 비해 얻는 것이 아주 많은 시간이다. 내가 살면서 평생 있는지도 몰랐을 곳들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매우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그 느낌과 생각으로 참여했던 탐방이 어느덧 3 차례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되었다.

공교롭게도 나는 두 번의 탐방에서 모두 김동리를 맡아 그의 작품인 <역마>와 <등신불>을 발표 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동리를 맡게 된다면 나와 그가 분명 무슨 인연이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데 김동리란 작가와 나는 별로 인연이 없었나 보다. 이번 작가는 농암 이현보 선생이었다.

이현보의 유명한 작품인 <어부가>는 고전 문학을 다루는 수업에서 많이 듣고 배웠던 작품이다. 또 자연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가들을 좋아 하는 나에겐 친숙한 작품이다. 그런 <어부가>를 농암종택에서 경관을 둘러 본 뒤 읽었을 때 어느 때 읽었던 것 보다 더욱 마음 깊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암종택과 어우러져 있는 주변 풍경이 시가의 노랫말들과 너무나도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농암종택 앞으로 펼쳐 흐르는 물은 편주를 띄어두고 인생사를 잊고 어부놀이를 할 수 있을 것처럼 평화로웠다. 그리고 강 건너편에서 농암종택을 마주하고 있는 산은 마치 절벽을 깎아 놓은 듯 하여 인간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자연의 자취만 있을 뿐이어서 그의 작품과 잘 어울리는 풍경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 곳에서 나의 눈길을 끈 것은 사실 농암종택 보다는 애일당이였다. 농암 선생이 별당을 지어 이름을 애일당이라 하였는데 그 이름에 깊은 뜻이 있다. 바로 90 이 넘은 부모가 늙어감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하루하루를 아낀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다. 원래는 귀먹은 바위라는 의미인 농암 위에 처음 지었는데 옮겨진 것이다.

탐방을 가기 전부터 제일 보고싶었던 곳이었다. 조금은 오래된 느낌이 묻어나오는 아주 편안한 색채일 것이라고 상상 했었는데 막상 실제로 본 애일당은 최근에 지어진 듯 해 보였다. 그리고 색채도 다른 정자나 별당에 비해서 화려해 보였다. 처음 애일당을 보고 기대에 미치지 못해 조금 실망을 했지만 그 별당을 바라보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다.

늙으신 부모가 날이 갈수록 더 늙어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 지은 이름임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오래되고 중후한 느낌보다 신선하고 화려한 색채를 사용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조금은 인공적이고 무엇인가 주변의 색들과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애일당이 다시 보였다. 주변들과 어우러지지 않는 듯하지만 산속에 피어나는 진달래 같이 잘 어울렸고 농암의 마음이 다시금 잘 느껴졌다.

대학생이 되면서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요즘은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안 맞아 서로를 이해 못하고 언성만 높이는 일도 있다. 예전에는 그럴 때면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여 풀었을 것을 지금은 서로의 목소리로만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 금방 풀릴 일도 더 악화되어 가는 것만 같다. 지금의 이런 나에게 있어서 애일당이 무엇보다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지도 모르겠다.

<작품>

넓은 가슴으로 참겠다

- 이육사박물관을 가본 후 쓴 시 -

20081133 임명철

넓은 가슴으로 참겠네

차디찬 빗물들

넓은 가슴으로 참겠네

뜨거운 햇빛들

슬픈 눈물은 넓은 가슴으로 떨어지고

떨어지는 눈물은 조용히 사라지네

넓은 가슴으로 참겠네

매서운 바람들

넓은 가슴으로 참겠네

쓰디쓴 눈빛들

넓은 가슴으로 혹한 시련이 떨어지고

얼어붙은 방 한칸에서 조용히 사라지네

<작품>

벚꽃 만발했던 날들

20081122 신이슬

대학생이 되고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국어국문과 학생들이 모여 답사에 관해 얘기를 듣게 되었다. 3박 4일의 일정이 그리 짧지 않은 일정이라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소풍처럼 설레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의 장소들이기에 걱정이 더욱더 앞섰다. 그러한 걱정들과 기대를 안고 결국 답사의 날이 오고 말았다.

7 시도 안된 시간에 일어나 학교를 향해 가는 길에 어느덧 비까지 추적추적 오고 있었다. 모두 졸린 눈을 비비고 있을 무렵, 차는 어느새 안동을 향해 출발하고 있었다. 안동은 춘천의 날씨와 달리 굉장히 맑은 날씨였다. 친구와 안동 하회마을을 걸으면서 괜히 예전에 보았던 사극 드라마가 생각이 났다. 사극에서 장이 열리는 장면처럼, 흙담에 흙집이 지어져있는 길을 걸으면서 장난스럽게 사극의 말투를 따라해 보곤 했다. 한참을 걸으면서 이런 곳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맑은 공기, 따뜻한 햇살, 아름드리 나무 어찌면 이곳이 몇 십억 아파트보다 더 값어치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생각도 잠시 뻑뻑히 짜여진 일정 때문에 우리는 다시 차에 올라야했다.

병산서원을 들리고 도산서원으로 향했다. 고등학교 시절 국사시간에 사진으로만 보던 서원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다면 저곳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되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여자인 나로서는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도산서원을 거쳐 이육사 문학관에 들린 우리는, 목판본으로 새겨져있는 청포도의 시를 찍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일반 컴퓨터로 쓴 글과는 느낌이 달랐다. 목판본의 시는 더욱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듯 자꾸 눈길을 끌었다. 예전 고등학교 때 이육사의 시를 배우며, 이육사가 이육사의 이름을 가지게 된 계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다. 자신의 죄수번호를 이름으로 사용했던 이육사, 그때는 시험의 목적으로만 들어서였는지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던 내용들이 이번에는 뭔가 슬프고 안타까운 기분을 들게 했다.

청량사를 거쳐 국학문화회관에서 다음날의 일정을 떠올리며 피곤한 하루의 끝을 맺었다. 둘째 날 농암 종택을 거쳐 조지훈 주실 마을을 오게 되었다. 내가 발표라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선배님들과 동기들, 그리고 교수님들 앞에서 열심히 발표를 끝마쳤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조지훈 선생님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이 되자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고 떨리기도 했다. 그래서 인지 조지훈 선생에 대해 듣고 말하고, 보는 게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다. 주실 마을을 걸쳐 아직도 생존하고 계신 이문열 선생님의 마을을 보고, 주왕산으로 이동했다. 점심을 먹고 주왕산을 올랐다. 그렇지 않아도 가장 힘든 코스라고 해서 전날부터 걱정이 되던 참이었다. 그러나 내 걱정이 과했는지 주왕산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고 경관이 너무 멋져서 힘든 것을 잊게 해줄 정도였다. 지나가는 내내 맑은 공기와 옆으로 떨어지는 폭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조금밖에 구경하지 못한다는 게 아쉬울 뿐이었다.

경주 숙소로 내려가는 내내 버스창밖에서는 벚꽃이 흐드러져있었다. 벚꽃놀이를 못가본 탓이었는지 꽤 신기한 풍경이었다. 벚꽃 만발한 경주에서 그렇게 둘째 날도 무사히 보낼 수가 있었다.

새벽 5시 20분, 일출을 보려는 학생들의 발길이 빨라졌다. 아직 이가 딱딱 부딪히도록 추운 날씨였지만, 생애 처음 보는 일출이기에 설레임이 컸다. 석굴암에서 아주 빨갛고 따뜻한

보이는 해를 맞이했다. 지구 반대편에서 열심히 빛을 내던 해가 어느새 우리나라를 밝게 하기위해 힘차게 떠오르고 있었다. 잠시 감격스러웠던 일출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했다. 아침을 먹고 다시 현진건의 무영탑에 배경, 불국사를 향해 출발했다. 불국사는 역시 수학여행 코스인지라 얼핏 기억도 났다. 그 때는 노는 게 더 바빠 구경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열심히 뛰어다니는 초등학생들을 보며 친구들과 열심히 사진 찍는데 바쁜 초등학생 내가 떠올랐다. 잠시 잠겨있던 회상을 뒤로하고 그때의 후회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보고 기억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 배경인 용장사지를 거쳐 성덕대왕신종을 보기위해 출발했다. 성덕대왕신종은 에밀레종이라고도 하면서 예전부터 그 종의 전설을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더 궁금하기도 했었다. 성덕대왕신종을 보면서 우선 그 크기에 놀랐다. 굉장히 크기도 컸지만, 그 종의 걸 무늬가 눈이 띄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종에서 또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니... 녹음된 종소리를 들어야만 했지만, 꼭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했다. 그 종의 전설이 아이를 넣어서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표지판에서 사람을 넣었다는 성분이 과학적으로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약간은 안심하면서도 실망감이 들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오던 전설이 틀렸다고 생각하니, 씁쓸하기도 했다. 성덕대왕신종을 보고, 월명사를 거쳐 숙소로 이동했다. 바다가 보이는 숙소는 마지막 날임을 실감케 했다. 조금은 아쉽고, 씁쓸한 점도 많았다. 평가회를 끝내고 방에 모여 친구들과 얘기를 나눴다. 뻘뻘한 일정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쉽게 잠들 수 없는 마지막 날이었다. 한 두 시간 정도 잤을까, 호미곶의 일출을 보기위해 일어나야 했다. 역시나 처음은 귀찮고 힘들었지만 일출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조금은 후회스럽기도 했다. 일출을 보고나서 숙소로 돌아와 마지막 날의 일정을 체크했다. 연오랑 세오녀의 발표를 맡은 12조의 재치있는 발표의 더욱 쉽고 재밌게 발표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길다고 하면, 길지만 그리 길지도 않은 3박 4일 동안 많은 걸 느꼈다. 답사는 교육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국어국문학과 학생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뜻 깊은 시간이었다.

<작품>

답사 감상문

20081108 김선미

답사를 가기 전에 7시 40분에 출발이라고 해서 친구 자취집에서 잠을 잤다. 답사를 간다는 기대감에 친구들과 놀다가 아침도 못 먹고 학교로 서둘러 갔다. 날씨가 좋지 못했지만 친구들과 즐겁게 버스에 타서 출발했다. 하회마을을 들렀는데 난생 처음 가 보는 하회마을은 역사 사진 속에 나올 법한 집에서 사람들이 산다는 게 신기했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둘러보고 다음 날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주왕산 계곡을 보려고 산을 올랐다. 오르면서 여길 왜 오르나 싶었지만 막상 올라가 보니 진짜 왜 올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원한 계곡 말고는 볼게 없었다. 차라리 그 시간으로 다른 유적지나 작품을 감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 날은 석굴암 일출로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에 타고 석굴암 쪽으로 갔다. 석굴암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는 기대를 했었지만 석굴암 앞에서 일출만 보고 사진 찍고 왔다.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서 해가 뜨든 말든 했지만 막상 해가 뜨니까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새롭고 신비해 보였다. 무언가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나 해야 할 분위기였다.

아침을 먹고 불국사를 갔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 특히 초등학교생들이 많았는데 초등학교생들 구경하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다. 너무 시끄럽고 사람도 많아서 사진 찍기도 발표를 하는 장소도 좋은 곳은 아니었다.

그리고 안압지도 가봤다. 나는 답사를 가게 된 동기가 경주에 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인지 4월 4일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었던 것이다. 안압지는 연못임에도 규모가 대단했고, 벚꽃으로 아름다웠다. 금방이라도 옛 신라 왕들이 거기서 술을 마실 듯했다.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깨끗하고 멋진 곳 이었다. 국립 경주 박물관에서 안압지에 대해 보고 가서 그런지 더 재미있었다. 그리고 사천왕사지에 들렀는데 정말 횡 했다. 터만 남겨져 있었고 작업하려는 모습이 남겨져 있었다.

마지막 날은 호미곶 일출로 시작했다. 숙소가 바로 바다 뒤에 있었고 일어나서 일출을 보려고 했지만 해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석굴암 일출처럼 춥지 않아서 괜찮았다. 시원한 바닷소리와 함께 사람들과 술 먹은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었다. 그리고 호미곶 광장에서 연오랑 세오녀 동상을 보았는데 그 때 발표가 너무 재미있었다. 그 동상을 배경으로 한 연극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춘천으로 출발했는데, 답사로 너무 고되고 힘들었지만 왠지 기억에 많이 남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쪽으로 가서 그런지 일찍 봄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비도 오지 않고 연일 화창한 날에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다녀와서 좋았다. 어느 곳을 가나 봄꽃들이 만개했었고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았다.

<작품>

일출

20051143 홍복정

답사 삼 일째.

의식 저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목소리는 점점 뚜렷해지고 나의 정신 또한 선명해진다. 그리고 문득 어제 저녁, 일출을 보러가기로 한 일이 생각났다. 눈이 번쩍 뜨인다. 그러나 고장이 난 강릉로봇처럼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뼈 마디마디에 모래가 낀 것 같다. 이미 일어나 있는 친구의 재촉이 아니었다면 일출은 포기하고 그대로 다시 눈을 감아 버렸을 것이다.

옷은커녕 세수도 못 한 채, 숙소 앞으로 나갔다. 이미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 무리를 지어 있었다. 나만 빼고 모두 기운이 넘쳐 보였다. 어제의 수다가 모자랐는지 입을 쉬지 않는다. 그에 비해 나는 자꾸만 내려가는 눈꺼풀과의 싸움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무슨 정신으로 일어나 여기 서 있는지 모르겠다. 3 시간이나 잤을까. 어찌어찌 일어나 있는 내가 대견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해서 일출을 봐야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

주위는 아직 어둠이 잔뜩 깔려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일출을 볼 수 있을까. 구름인지 아님 밤과 아침이 뒤섞인 새벽하늘이 원래 그러한 건지 그리 깨끗해 보이지 않았다. 미간사이에 살짝 힘이 들어간다.

잠시 뒤, 회장의 외침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버스로 몸을 옮긴다. 답사 이틀 동안, 몇 시간을 앉아 있던 버스지만 여전히 자리가 불편하다. 몸이 무거워 더 그런지도 모른다. 이런 나 따위는 상관치 않고 버스는 또 불쾌한 진동을 만들어 내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숙소에서 불국사(석굴암?)까지는 길지 않는 거리라 잠을 자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대로 잠을 들면 이번에는 정말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수다 떨기에는 귀찮았다. 그냥 고개를 돌려 멍하니 창 밖을 바라보았다. 채 5 분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보다 환해져 있었다. 살짝 고개를 올렸다. 여전히 하늘은 깨끗하지 않았다. 자연스레 입 밖으로 말이 흘러 나온다. “날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없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새를 못 참고 친구는 잠이 들었다. 혼잣말을 한 무안함에 고개를 다시 돌려 다시 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몇 분을 더 갖고 불국사(석굴암?)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니 아까는 느끼지 못한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일출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괜히 불안해진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불안이었다. 넓게 펼쳐진 산 뒤로 조금씩 해 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저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신기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오지 않고 멈춰있는 듯한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면 그 반이 더 나와 있고 또 보면 그 반이 더 나와 있었다. 노랑, 주황, 다홍, 붉은. 물감으로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는 곱은 빛깔이 각자 색을 그대로 뽐내면서도 사이좋게 어울려졌다. 한번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해는 빠르게 그 모습을 완성시켜 갔다. 그리고 온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무거웠던 내 몸도 그 붉은 빛을 받아 생기를 찾아가는 것 같았다. 아침부터 부지런을 떤 보람이 있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개운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웬지 오늘은 어제보다는 나은 하루가 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든다.

(‘불국사 일출’이란 제목에서 ‘불국사’를 삭제했음. ‘석굴암 일출’을 잘못 쓴 듯.)

<작품>

愛日堂

20051108 김은희

굽이쳐 흐르는 물 따라
바람도 청아하니
내 오늘도 찾아가오

아름다운 산천 행여나
당신 못 볼까
이 내 손으로 영지산 한 자락 높은 바위 위에
돌계단 쌓고 나무 깎아 집 지으니
색으로 곱게 옷 입혀주오

허나 어찌 당신보다 곱겠소
굽디고운 당신 옆에서
바위에 시 한수 적어 읊어 드리오리다

살아생전 내 못 다함을
바위위에 고이 세워보리라

※ 농암종택을 방문 했을 때 앞뒤에 있는 멋진 산들과 그 밑에 흐르는 강가.

기슭위에 지어진 애일당을 보고 난 후 그 곳이 농암 이현보가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번 써 보았다.

“부모의 봉양에 ‘날(日) 부족함’의 뜻이 정녕 거기 있는 것이다. 늙은이 자손들이 역시 이
마루에 올라 이름을 돌아보고 그 뜻을 생각하여 ‘親老而惟孝’를 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그
리고 여가가 있으면 조용히 가슴을 열고 수양하는 장소로 삼고자하는 것인즉, ‘애일당’은
늙은이의 가문에 ‘대대로 지켜져야 하는 규범(世守之規範)’으로 삼고자 함이다.”

- 『농암집』 ‘농암애일당(壘巖愛日堂)’ 라고 전한다 -

<작품>

애화 (唉花)

20021149 윤수진

꽃이 내리던 길을 슬퍼하던
묻혀 사는 이의 고운 마음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스름 길에 낙화여
어찌 바람에 몸을 내주어
사라져 가는가

바람에 아스히 사라지는
꽃잎이여

가는 길 못내 아쉬워
뒤돌아 본 붉은 벚꽃 사이로
쓸쓸한 목소리가 들리온다

<작품>

이문열 작가의 고향 두들마을

20061108 김은경

경북 영양에 자리 잡고 있는 석보면 원리리 두들마을은 작가 이문열의 고향이다. 탐방을 간 두 번째 날 우리 조는 이문열 작가의 고향 두들마을에서 작가의 생애와 작가의 작품들의 성격을 발표해야했다. 매년 그랬듯 발표를 맞지 않아도 내가 속한 조가 발표를 맞으면 떨렸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긴장 하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이문열의 고향은 들판이 속 시원히 펼쳐져 있었다. 들판 사이에 드문드문 있는 한옥들도 보였다. 새로 마을을 꾸몄는지 한옥들이 모두 새로 지은 것들이었다. 사실 거기서 좀 주춤 했었다. 안동의 고택들과 이현보 선생의 종택을 보고 온 후라 그런지 새로 지은 한옥이 진정한 한옥처럼 보이지 않았고 어딘가 모르게 낯선 모습이었다. 동네와의 조화도 약간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집들이 가식적이게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깨끗한 모습에 기쁨은 없지만 멋지긴 했다.

발표를 맡은 08 학번 춘기 학우가 발표 준비를 했다. 버스 안에서도 틀리지 않으려 발표문을 몇 번씩 다시 읽어보고 또 다시 읽는 모습에 나까지 불안하기도 하고 또 1 학년 때 내 모습이 떠올라 입가에 열은 미소를 짓게 하기도 했다.

탐방 중 다른 곳들처럼 이문열 작가의 고향도 둘러보고 걸어보고 설명도 듣는 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발표는 마을 입구에서 둘러앉아 어수선했던 분위기에서 하게 되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랐지만 다른 탐방지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한 것 같아 교수님과 임원 선배들이 내린 결정인 듯 했다. 약간은 서운했지만 바쁜 일정 속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어수선했던 속에서 08 학번 학우의 발표는 끝났고 서둘러 다시 버스에 올랐다.

이문열 작가의 고향에서 본 모습은 멀리서나 보이는 정돈된 한옥이었으며, 관광지로 다시 재정비한 약간은 상업적인 모습이 풍기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도 봄은 왔었고 꽃들과 산과 나무가 어울어지는 절경은 이문열 작가의 수많은 작품이 태어나기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다. 그의 저서 <그해 겨울>,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금시조>, <황제를 위하여>, <영웅시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 많은 작품 속에 인물들의 삶의 역정이 펼쳐지는 무대가 바로 이곳이기도 한 그 곳은 어쩌면 겉모습만 살짝 들여다 본 내게 진정한 본 모습을 안보여준 것인지도 모르겠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다. 경북이란 곳과 이문열 작가의 고향이라는 두들마을은 도심속에 생활하는 나에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못할 지도 모르는 곳이기도 하다. 어쩔 수 없이 돌아섰던 발걸음에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올해 봄 그 멋진 하늘과 꽃과 들판이 어울어져 한적한 모습을 하고 있던 두들마을은 평온하고 조용한 시골마을을 본 것 같아 그것으로 아쉬움을 달래기에 충분한 것 같다.

<작품>

성덕대왕신종

김 춘 기

엄마 엄마..
어느이가 어떠한 이유로
이리 슬프게 울고있는가

엄마 엄마..
어느이가 이 불쌍한 아이를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만들었는가

나라의 안정을 위해
임금의 안정을 위해

어느이가 이 불쌍한 아이를
사람의 손을 거칠때마다
애타게 엄마를 찾도록 만들었는가

<수필>

주실마을

20081139 주선률

조지훈 생가가 있는 주실마을에 들어왔다. 주실마을은 조씨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어느 키 작은 아저씨께서 알려주셨다. 그 키작은 아저씨는 우리가 오는 것을 모르셨는지 우리가 거의 다 구경을 하고 나서 온거라 별로 말하지 못하셨다. 주실마을은 산뜻한 봄내음이 많이 풍기는 곳이었다. 가끔 소똥냄새도 나지만 그것도 고향의 그리움을 알려주는 향수같은 것이어서 괜찮았다. 특히나 주실마을에 바람이 엄청 불다가 말다가 해서 갈대잎들도 눈앞을 지나가서 머리에 다 묻었다. 그곳에서 본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물고기 모양의 종이였다. 바람은 세게 불었지만 종소리는 청아하였다. 비포장도로인 시골길을 걷다가 우연히 한옥 앞에 서계시던 할머니를 보았다. 나는 할머니께서 계시는구나 하고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너희들 조지훈생가 보러왔니?” 이러셨다. 우리들은 마치 반기는 듯이 대답을 하였다.

“네!” 조지훈 생가는 보존이 깨끗이 되어있어서 구경하기에 편안한 곳이었다. 할머니께서는 우리에게 오랜만에 타지사람이 왔다는 듯 흐뭇해하셨다. 우리는 할머니가 너무 반가워서 가벼운 농담도 했다. 조금 익살스런 농담도 했지만 할머니께서는 다 받아주셨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른인 것 같지만 할머니께서는 우리가 한없이 귀여운 손자같은 것이었다. 탐방을 하면서 지쳐있던 심신을 어루만져주시듯 할머니의 미소는 우리에게 큰 힘이 돼주셨다. 주실마을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 할머니가 생각났다. 내가 중학교 때 입원했을 때 힘드신데 매일 찾아오셔서 보살펴주시고 먹을 것도 챙겨주셔서 그 때는 참 고마우셨다. 고향에 계신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까지 할머니와 같이 생각한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 것 같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고향의 정취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측은한 생각이 든다. 뺨글머리에 얼굴 가득한 주름살, 굽은 허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헌신하셨기에 생기신 것들인 것을 요즘에 어른이나 아이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작품>

호미곶

20081110 김정은

호미곶 그곳은 가슴 아픈 이별의 그곳
연오랑과 세오녀의 가슴 아픈 이별의 그곳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가슴졸이던 곳
이제나 저제나 울까 님을 그리워하던 곳
해와 달을 감출정도로 사랑의 마음이 컸던 그들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았던 호미곶
그곳에서 나는 사랑과 그리움을 보았다.

< 시 >

일출을 바라보며

20081127 유주신

몸을 불태우며 떠오른 태양
잠든 대지를 어루만지니
세상을 붉은 옷을 입는다.

지난 밤을 벗어버리고
제 색깔을 찾는 나뭇잎들

지난 날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아침을 여는 사람들
모두를 환히 밝혀주는 태양 아래
나의 마음도 조금씩 물들어 간다.

<작품>

그곳

국문과 20081136전소향

게슴츠레 뜬 눈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발 디딘 그곳.

거센 바람 눈 뜨라고
내 눈을 찰싹 때려도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던 그곳.

옹기종기 모여
얼은 몸 녹일수록
무거운 눈꺼풀 이겨낼 새 없이
아무생각 없이
서 있던 그곳.

푸른 바다, 푸른 나무, 푸른 하늘
붉은 빛으로 감싸 안고
떠오르던 둥근 것.

조심스레 나의 눈 띄우고
붉은 빛처럼 강렬하게
세상을 잠 깨우네.

세상과 함께 일어나
무언가 힘에 이끌려
동그란 눈 뜨며
서있었던 그곳.

<작품>

선덕대왕신종

20081131 이은주

4 월 4 일 국립경주박물관에 달려있는, 우리에게 에밀레종으로 잘 알려진 선덕대왕신종을 보러갔다. 교과서나 TV 로만 보던 커다랗고 아름다운 종을 보고 있으니 옛날 우리 선조들의 대단한 기술을 느낄 수 있었다. 선덕대왕신종은 18.5t 이 넘는 무게를 자랑하는 커다란 종인데 이것을 지탱하는 지름 8.5cm 의 용고리는 현재의 기술로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1300 년 전부터 써오던 용고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잘 버티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다.

에밀레종의 설화 중에 내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 달랐던 부분이 있었다. 책에는 아낙네가 희룡조로 시주할 것이 아기 밖에 없다며 놀렸다고 나온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내용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는 아낙네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아기라도 시주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처음엔 거절당했었다. 하지만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 점을 치게 되었고 어린 생명(어린 아이)을 넣어야 제대로 된 종을 만들 수 있다고 하여 그 집으로 찾아가 아기를 시주받아 종을 만들자 한 번에 성공하였다. 그 종을 올리자 아이가 어미를 부르는 듯 ‘에밀레 에밀레’라는 소리가 나와 에밀레종이라 지어졌다고 알고 있다. 몇 번을 들어도 그렇게 들리진 않았지만 말이다.

아기를 넣어 만들었던 설화가 진짜다, 아니다 로 견해가 엇갈렸는데 종 앞에 설명을 위해 세워둔 구조물이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신라의 전설이 망라되어있는 조선 후기 읍지인 『동경잡기』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종을 보다 신비롭게 보이도록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된다고 한다. 그 근거로 살생을 금하여 벌레조차 죽이지 않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집어넣어, 중생을 구제한다는 범종을 만들었을지 생각해 보게 하였고, 그 뒤에 선덕대왕신종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펼친 결과 사람의 뼈를 이루는 성분인 인이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비록 설화 속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 조상님들의 뛰어난 주조 기술은 거짓이 아니다. 현대의 발달된 과학기술 없이 우리의 조상님들은 뛰어난 종을 만들어 내셨고, 그렇게 만들어진 종은 현재의 기술로도 만들지 못하는 굉장히 대단한 종이다. 지금의 선진국보다 훨씬 앞선 조상님들의 기술력은 현대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이다.

<작품>

병산서원에서

20081134 장수영

아직도 살아 숨쉬는
옛 정기
병산서원에 앉아서
느끼고 있다.

옛 문인들의
글씨가 튀어오를만한
병풍이
멋스러이 펼쳐져있다.

뒷 편을 지키고 서있는
장승같은 산들에
햇빛이 반사되어
따사롭게 나를 감싸고 있다.

이런 평화로운 풍경을
남겨두고 나는 떠난다..
지금 이 곳에서
문인들이 사라졌듯이...

<작품>

에밀레종

20081106 김경례

에밀레 에밀레
구슬픈 소리가 들려오네

에밀레 에밀레
아기가 어미를 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네

에밀레 에밀레
구슬픈 소리의 사연이 궁금하네

에밀레 에밀레
사연의 끝은 아직 끝나지않은
이야기 이네

<작품>

봄을 만나다

국어국문학과 20061136 이혜림

나는 봄이 좋다. 싱그러운 풀내음이 좋고, 향기로운 꽃향기가 좋고, 나를 감싸는 듯 한 포근한 날씨가 좋다. 그렇기에 봄을 빨리 만나고 싶어하였는지 이번 탐방은 나에게 공부의 의미보다 봄을 만나는 여행과 같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무거운 짐 가방을 한 가득 들고도 마음만은 가볍다. 나는 이제 경상북도로 봄 여행을 떠난다.

처음 도착한 곳은 안동의 하회마을이다. 탈로 유명한 그곳은 전통가옥으로 빼곡한 마을이었다. 높은 빌딩과 아파트로 가득한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와 평화로움, 고풍스런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넓게 펼쳐진 영남의 젖줄이라는 낙동강은 마음까지 땡 뚫어지게 했다. 그리고 병산서원을 거쳐 꿀맛 같은 점심을 먹고, 도산서원에 갔다. 도산서원은 이번 탐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다. 전경이 최고였다. 배산임수가 따로 없었다. 절로 시조가 읊어질 것 같았고 내가 시조 작가인양 기분을 내보기도 했다. 그리고 청량사로 향한다. 산이라면 딱 질색이지만 봄을 만끽하는 장소로는 산만한 곳이 없다. 생각보다 완만한 곳이었고 정상에 올라 절에서 사진도 찍었다. 그리고는 첫째 날이 지나갔다.

다음날, 이현보의 농암종택을 찾았다. 강물소리, 새소리가 마냥 듣기 좋았다. 그리고 조지훈의 주실마을, 이문열의 두들마을을 거쳐 주왕산으로 이동했다. 첫 날의 산보다 더 멋있었던 것 같다. 폭포가 있고 푸르른 나무가 울창하여 기분까지 상쾌하다. 등산이라기보다는 산책 같았다. 가벼운 산책을 마치고 경주로 이동했다. 그리고 둘째 날이 지났다.

일출을 본다기에 ‘일찍 일어나야겠다’ 싶어서 귀찮은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실제로 일출을 본 적이 없었기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볼까 하고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해가 뜰 때 천천히 떠오르는 줄 알았었는데 둥그란 해의 머리 부분이 눈에 보이자 해 전체가 뜨는 것은 빨랐다. 그 붉은 기운이 주변 구름까지 색을 물들여서 너무 아름다웠다. 부지런히 시작한 셋째 날은 피곤했지만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아침을 먹고 목욕• 동리문화관과 불국사를 갔다. 그리고 경주박물관을 갔는데 규모가 매우 컸다. 그곳에 전시된 여러 금장식품은 오늘 날의 것보다 더 정교하고 세밀하고 아름다웠다. 사진도 찍고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다. 그렇게 셋째 날은 저물어 갔다. 웬지 모를 아쉬움에 끼리끼리 모여 술자리를 갖고 마지막 밤을 보냈다.

마지막 날, 또 일출을 보러갔다. 오춘택 교수님께서 자연산 미역이라며 건네주신 미역도 먹고 바위에 붙은 신기한 조개도 보고, 일출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아침을 먹으러 간 식당 앞의 유채꽃밭은 또 하나 가장 기억의 남을 장소였다. 내 허리높이까지 자란 꽃들과 사진을 찍고 꽃에게는 미안하지만 꺾어서 머리에 꽂기도 하고 참 많이 웃었던 추억의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구룡포 해수욕장에서 선후배간의 닭싸움을 했다. 더운 날씨였지만 다들 마지막 장소에서의 추억을 사진기에 담느라 바빴다.

그렇게 모든 일정이 끝나고 춘천으로 돌아갔다. 3박 4일간의 일정은 그렇게 끝이 났다. ‘더 신나게 더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봄을 만났으니 나는 만족한다. 한 달 전 경상도에서 만난 봄, 지금 춘천에서 만나고 있는 봄, 이렇게 봄을 두 번을 만났으니 말이다. 그래서 올 해는 두 배로 행복할 것 같다. 지금 이 시간 그곳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이젠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또 하나의 추억을 새기며 다시 떠올려 본다.

<작품>

발자취

국어국문학과
20071110 김수빈

내가 남긴 추억을 찾아
떠나는 여행
내가 남긴 기억을 되짚어
떠나는 여행
그곳에 남긴 나의 발자취

추억을 찾아온
나의 발자취
기억을 찾아온
나의 발자취
그곳에 돌아온 나의 발자취

그때와 달라진 건
그때보다 변한 건
그곳이 아닌 오직 나
추억을 찾은 나의 발자취

<작품>

청량사

국어국문학과
20081111 김주경

힘들게 힘들게
걸어간 그 곳엔
좋은 공기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오른 그 곳엔
맑은 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공기와
맑은 물이 있는 그 곳은
내 심금을 울려놓았습니다.

다음번엔
어떤 것이
날 기다려줄까요.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립니다.

<작품>

이육사의 생가에서

국어국문학과
20081128 이기범

이육사의 생가에서 이육사 조사를 맡은 조의 발표를 듣게 되었다. 대략적인 설명이 끝난 뒤 이육사의 대표적 작품인 청포도와 절정을 읊어 주었는데 무언가가 떠올랐다.

청포도는 이미 중학교 때 배운 작품이었다. 이육사의 고국을 향한 끝없는 향수와 청포를 입고 찾아올 대상에 대한 염원을 주제로 하였다고 배웠다. 그런 시를 그의 생가에서 듣게 되니 교실에서는 몰랐던 느낌이 나를 감싸 돌아왔다.

이곳에서 청포도를 지은 이육사는 어떤 심정으로 썼을까 하는 생각과, 얼마나 애절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손님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을까. 막연한 꿈에 사로잡히진 않을까. 또 그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기 바로전 생을 마감한 이육사는 아쉬워 했을까. 저 세상에서 이곳이 웃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식민지적 압력에 대항하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하여 대륙을 전진하며 술한 고난과 역경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역경과 인고의 극복노력은 기다림의 철학과 초인 의지로 승화된다. 그의 죽음을 초월하는 정신이 있었기에 그가 기다린 손님은 뒤통수를 긁으며 멧쩍게 미안하다고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잡다한 생각들을 하며 그의 문학관에서 청포도 시와 청포도가 그려져 있는 스탬프를 탐방책에 찍어냈다. 아마도 나는 그의 정신의 흔적을 끄트머리라도 간직하고 싶었던 것일 거다.

<작품>

愛歌 (애가)
-호미꽃 광장에서

20081135 장아름

다시 못 볼까
공중에 손톱 세우고
다시 못 볼까
공기로 폐를 채우니

서슬 같은 해 올라
늪엿이 질 때까지
전전궁궁 앓는 이 맘

어이 알고 바위 올라
그런 님 찾아가니

하늘이 하야스레하다
바람이 엷파랗다

거미줄 같던
붉은 실 다시 고이 묶으니
하루를 사노라
천년을 사노라.

<작품>

일출

국어국문학과
20011173 최문관

메마른 나뭇가지와
성긴 숲들 사이로

식당의 분주함과
나른한 오후의 적막감

등 푸른 생선과
바퀴벌레

굵게 핀 목련과
말라버린 동백꽃

너와 나의 관계
이성과 감성의 엇갈림

한줄기 희망과
헛된 욕망

이 모든 것이
일출의 장난이다.

<작품>

유산과 문화유산이된 문학들

20081143 최은주

나의 첫 답사는 안동, 경주, 포항 등을 돌며 그 지역의 시인, 작가, 문학 그리고 문화유적 등을 볼 수 있는 답사이다.

제일 첫 목적지는 안동 하회 마을이었다. 전통양식으로 지어진 집들이 웅기종기 모인 마을인데 주변 경관도 뛰어났고 작고 낮은 담벼락과 크지 않고 소담한 집의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퇴계 이황 선생님의 도산서원에 도착했을 때 도산 서원 앞쪽으로 짙 펼쳐지는 경치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경치를 구경하고 도산 서원을 구경하고 나니 ‘도산십이곡’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곳의 멋진 풍경에 둘러싸여 학문에 임하고 자연을 노래하면 사는 이황 선생님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육사 문학관에서는 고등학교 때 이육사 선생님의 시를 수업시간에 많이 접했기에 낯익은 작품들을 보면서 반가웠다. 그 중에 ‘절정’이라는 시를 매우 좋아했었는데, 이육사 선생님의 동상과 ‘절정’의 시비가 문학관에 있어서 그 시비를 계속 바라보며 이육사 선생님의 모습과 시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동 한 곳은 청량사였는데 분홍색 연등이 걸려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절이다.

둘째 날 이현보 농암 종택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이황 선생님이 이현보 선생의 제자였고 농암 종택 앞의 길을 가리키며 이쪽으로 이황 선생님께서 이현보 선생님께 학문을 배우러 걸어 다니셨다고 말씀하셨다. 농암 종택에서 도산서원과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은 두 분이 사제지간이고 이현보 선생이 이황 선생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니 두 분의 저택에서 닮은 모습을 느꼈던 것 같다.

조지훈 문학관에서는 조지훈 선생님의 대표적 작품 ‘승무’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은 조지훈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던 물품과 사진이었다. 선생님께서 쓰신 물품들은 한 눈에 봐도 조지훈 선생님께서 얼마나 멋쟁이셨는지를 알 수 있을 만큼 감각이 남다르셨다. 문학관을 나와 시 공원에서는 조지훈 동상과 쉼터, 조각 작품과 어우러진 ‘승무’ ‘낙화’등의 시비도 함께 볼 수 있었다. 시 공원은 문학관의 느낌과는 조금 달랐는데, 공원을 거닐며 시를 감상할 수 있게 해 놓은 아이디어가 참 좋았다.

동리.목월 문학관에서는 ‘좌 동리 우 목월’이라는 이름을 보며 두 분의 우정이 얼마나 끈끈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동리.목월 문학관은 답사기간 동안 갔었던 문학관 중에 가장 자료도 많았고 작품전시 방법도 매우 훌륭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나 인테리어 모두 두 분의 이미지와 어울리게 꾸며 놓아져 있어서 돌아보는데 흥미로웠고, 즐거웠다.

경주에는 세 번째 와보는데 불국사,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등이 어렸을 때에도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경주가 새롭게 보였다. 그땐 어렸고 문화재를 보는 것 보다 뛰어 노는 것이 더 재밌었던 나이였고 지금은 그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

친 것들을 자세히 보며 경주의 유물과 벚꽃을 감상하고 마지막 목적지인 포항으로 떠났다.

마지막 날 포항 호미곶에서 일출을 보고 연오랑 세오녀 설화의 재미있는 재연을 보고 마지막 답사를 마쳤다.

내가 답사했던 곳들은 문화유적지도 많았고 그 고장의 작가와 작품들은 그곳의 유적들과 함께 문화유산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작품>

연오랑, 세오녀의 노래

국어국문학과

20081119

손 해 립

멈추어라, 멈추어라
바위야

고운님 남겨 두고
내 갈곳이 있으랴.

슬프도다, 슬프도다
이 마음

고운 님 곁에 없이
왕이 된들 무슨 낙이 있으랴.

가자꾸나, 가자꾸나
바위야

고운 낭군님 찾아
어서가자 바위야.

이것이 천명이거늘
해가 어둡고
달이 어두운들
어찌 하리오.

고운님이 짜낸
고운 비단아.
햇빛을 찾아오렴.
달빛을 찾아주렴.

이 몸은
이곳에서
님과 함께
머물리라.

<작품>

만대루에 앉아 있는 일

국어국문학과
20051134 이한나

만대루에 올라 앉아
봄햇살을 싱그럽게 받아 먹다가
그래도 배가 부르지 않아서
이것, 저것 찾아보는데
다가와서 한 잔 따라주는 매화의 손길
한 잔의 여유와
또 한 잔의 침착함
두 잔 세 잔 쌓여서
흠뻑 취한 나에게
오늘 하루 즐겁게 보냈냐며
달방석을 내어주는 만대루

<작품>

에밀레

20081116 문숙경

에밀레 에밀레
어디선가 들려오는 종소리

과연 종소리인가
아기울음소리인가

에밀레 에밀레

에밀레라 에밀레라
에미탓으로 에미탓으로

옹거니, 아기가 우는소리구나
부모가 보고파서 우는 것일까
종속에 묻힌것이 한이되어 우는것일까

어찌하여 아기는 이토록 우는것일까

에밀레 에밀레
곶가에 맴도는 이소리

아기야 울지마라
아기야 울지마라

뼈가 깎이는 고통을 겪은 아기야 울지마라

아기야 울지마라
아기야 울지마라

니가 그렇게 서글피 울면
부모가슴은 오죽하리

아기야 울지마라 울지마라

<작품>

아기야 울지마라

20081141 채상윤

에밀레 에밀레 종이 울린다
다른 강철덩어리와는 다른소리
그 안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세상을 밝히는 종소리
니가 있기에 아침이 온다

에밀레 에밀레 아기가 울고 있다
차디찬 종 속에서 살아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차가운 강철이
되어버려 한반도를 울리는
차디찬 강철이 되었다

<작품>

에밀레종

20081142 최성은

오늘도 들리네

서글픈 울음소리

누구 울음소리 일까

서럽기만 하네

아기울음 같은 이 울음소리

부모님의 애절한 마음

오늘도 들리네

서글픈 울음소리

<작품>

한국문학탐방

20081118 손수지

4월 2일 아침에 버스로 출발하여 첫 코스인 안동에 도착. 하회마을을 한바퀴 휘 돌고 병산 서원을 갔다. 또 점심을 먹고 도산 서원에 갔는데 도산 서원을 보니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면 정말 신선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공기도 너무 좋고 경치도 좋았다. 그리고 이육사 문학관을 가서 이육사 선생님의 저서도 보고 석판도 찍었다. 그 후 이동하여 청량사를 올라가는데 너무 길이 좁고 가파라서 힘들었지만 위에서 청량사를 보니 웬지 뿌듯하고 멋있었다.

그렇게 바쁜 하루가 가고 4월 3일 아침부터 이현보씨의 농암 종택을 가서 멋진 풍경과 집들을 보고 주실마을 두들마을을 거쳐 주왕산으로 갔다. 처음에 청량사보다 더 힘들다며 겁을 주셨는데 막상 가보니 길도 잘 되어 있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뻔하게 올라갔다. 주왕산의 선녀폭포에 도착하여 오랜만에 계곡물도 만지고 그림에서 나올 법한 하늘과 산을 보게 되어서 좋았다. 그리고 한참을 자고 경주에 도착하여 숙소에서 편히 쉴 수 있었다.

4월 4일 새벽부터 일어나 일출을 보러 가서 일출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 아침바람에 너무 추워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번 해의 처음 보는 일출에 신기하기도 하고 기뻐다. 숙소로 돌아와 밥을 먹고 불국사로 이동. 경주의 고유명사라 할 수 있는 불국사에는 사람이 정말 많았다.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다시 김동리 박목월 문학관으로 가서 두 분의 작품을 볼 수 있었다.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 한쪽은 김동리 다른 한쪽은 박목월 문학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상 깊었다. 웬지 정말 친한 친구였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용장사지를 들렀는데 정말 그냥 빈 터 같은 느낌에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국립경주박물관으로 가서 한 때 국사에서 배웠던 구석기 신석기 등등 배웠던 것들을 직접 그 때의 유물들을 보면서 재밋기도 하고 정말 이 시대에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할만큼 정교하고 예쁜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포항으로 달려 숙소에서 도착.

4월 5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호미곶에 도착. 전 날의 날씨와는 달리 아침치고는 따뜻한 날씨에 일출을 느긋이 볼 수 있었다. 또 일출과 함께 사진을 찍고 숙소로 돌아와서 아침밥을 먹은 후 호미곶 광장에 도착했다. 우리 조가 조사했던 연오랑 세오녀를 짧은 연극으로 하여 발표한 후 바다를 보았다. 손모양이 정말 특이하고 저 건축물을 왜 세웠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이제 집으로 가는구나 하며 버스에 타서 자는 도중 구룡포 해수욕장에 도착. 바다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조개도 줍고 시원한 바닷물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다. 버스로 가서 춘천으로 출발 길지만 짧았던 4일동안 많은 것들도 보게 되고 직접 경험하여 뜻깊었던 여행이 되었던 것 같다.

<작품>

호미곶

20081137 전아름

애뜻한 두 부부의 상봉 아래
내 얼굴은 없다.

3 박 4 일의 머리와
배 분질러버린 듯
내가 보낸 시간이
그랬다.

‘이번 정류장에선 못 내려요.’
낮선 몸뚱이의
무기력함.

마늘 씨 같은 머리들 사이에
또 하나의 얼굴을
넣어본다.

정작 갔어야 했을 곳
호미곶

<작품>

20021137 송재일

To. 착한 국문인 윤숙, 경립, 민우, 수지, 전아름, 박아름, 에게...

오빠가 어느덧 4 학년 그동안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학교행사를 포함하여 국문과 행사에 참여 하지 못한 점이 대학생활 내내 마음에 많이 아쉬움이 남았어. 때문에 나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한국문화탐방에 다녀오기로 했다. 이번마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못한다면 대학생활과 추억이라는 교집합에 아무것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리고 이러한 염려를 뒤로 역시 다녀와서도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더라. 너희는 어떨까. 1 학년친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추억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기회 되겠구나.

그동안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나는 단지 경치가 아름다운 곳, 먹을거리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여행의 주목적이었어. 하지만 이번 한국문화탐방은 국문학도로서 내가 앞으로 다닐 여행의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 탐방을 계기로 그동안 그냥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쳤던 곳들이 한국 문학사적으로 많은 의미와 의의가 있는 곳임을 깨우쳐 주고 그 속에는 멋진 자연의 모습들 또한 같이 어울려져 있음을 새삼 깨우치게 됐어. 이 깨달음으로 앞으로 나의 여행길에는 아름다운 곳과 먹을거리, 그리고 한국문학사라는 새로운 여행의 목적이 생긴 거지.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처음 접하는 문학 탐방이라 기대가 컸던 것은 물론 이거니와 그만큼 그것에 대한 실망이 걱정이 되더라. 단체로 움직인다는 것에 부담이 있었으며 과연 한국문화탐방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버스만 타고 다닌 기억만 남지는 않을까 술만 먹은 기억만 남지는 않을까 걱정이 먼저 들더라. 그렇게 한국문화탐방을 떠나서 하회마을. 도산서원, 불국사, 이육사문학관, 포항 호미곶 등 일부러 찾아다니기 힘든 곳을 다니면서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사적으로도 많은 의미가 서린 곳이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았어.

하지만 개인이 아닌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시간에 쫓겨 수박겉핥기식으로 둘러볼 수밖에 없는 점에 많이 아쉽더라. 나는 다음에 따로 시간 내서 다시 천천히 찾아가보려고 해. 너희들도 시간이 된다면 한번쯤 다시 돌아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수업의 연장인 한국문화탐방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여행으로 말이야...

조장으로 그리고 오빠, 혹은 형으로 많이 챙겨주려고 나를 노력은 했는데 언제나 그렇듯 많이 아쉬움이 남고 미안하네... 그래도 다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많이 웃어줘서 고마워. (조금 아픈 친구도 있었지만..) 마지막 날 발표하는 가운데서도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다들 따라줘서 즐거운 발표가 될 수 있게 해준 점도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자꾸나... 하루하루 파이팅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좋은 날이 될 거야.

그럼 이만....

From. 2008 년 5 월 어느 날, 재일이가...

<작품>

벚꽃 그늘 아래서

윤 숙

기억의 끝자락에서 나는 너를 잊었다 한다.

달근하게 나를 적셔오는 벚꽃그늘 아래서
나는 네 기억을 없던 것이라 한다.

한 잎, 한 잎-
내 손등에 어렴풋이 물들어가는 연분홍 자욱에
울렁이는 눈과 머리와 가슴의 요동.

아니지.
적어도 이 꽃잎들이 내 어깨선을 간질일 때에 만큼은
내게 넌 사랑이었다 말해야 하겠지.

너무 가차이 주위에 자리해버리는 순간엔
누구나 교만해지기 마련인 사람의 감정놀이.
그 개구진 놀음 앞에 나는 너를 부정했다.

숨을 막고 눈을 닫고 가슴을 짓누르며
나는 어제와 그제를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하지만 오늘.
바로 오늘만큼은 나, 산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불게 부풀어 오른 입술 사이를 비집고
내 콧등위로 내려 앉은
꽃잎을 후- 불며
오늘에서야, 나는 너를 사랑이라 말한다.